Weekly 공감

2011.08.03 NO.120

gonggam.korea.kr




# 저 낮은 곳을 향하여 나눔의 등불을 켠 보통 영웅들

P27~45

오효성 입소스코리아 대표 “고졸 직원들 일만 잘하더라” P14~15

대구세계육상대회 ‘약물, 꼼짝 마!’··· 도핑콘트롤센터 24시 P22~23

#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 로고 및 슬로건 공모전




## 2012 SEOUL NUCLEAR SECURITY SUMMIT

2012년 3월 서울에서 제 2차 핵안보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핵안보정상회의는 전 세계 50여 국가 정상과 국제기구 수장이 참가해 핵안보 및 핵테러에 대한 공동 대응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안보분야 최대 규모의 정상회의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드높이고, 한반도 안정에 기여하며, 핵안보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는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국민 여러분께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로고와 슬로건을 공모 합니다.

### 공모 분야

**로고**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상징 로고

**슬로건**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의의와 목표를 잘 표현하는 문구

### 참여 대상

- 대학(원)생 부문 :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학(원) 소속 재학생 또는 휴학생
- 일반인 부문 :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가 가능

### 진행 일정

- 접수기간 : 2011.7.20(수) ~ 2011.8.14(일)
- 심사기간 : 2011.8.16(화) ~ 2011.8.26(금)
- 당선작 발표 : 2011.8.29(월) 오후 5시
- 시상식 : 2011.9.1(목) 예정 (내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참가 방법

**접수방법** 온라인 및 우편 접수

**접수처**

- 온라인 접수 : 홈페이지 (www.seoulnss.go.kr)를 통한 접수
- 우편 접수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도심공항타워 24층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공모전운영 사무국 앞 (우:135-090)

**접수형태**

- 온라인 접수 : 홈페이지 (www.seoulnss.go.kr)에서 작품별 별첨양식을 다운로드 후 작성 및 등록
- 우편 접수 : 홈페이지 (www.seoulnss.go.kr)에서 작품별 별첨양식을 다운로드 후 작성 및 우편발송

### 수상내역

(단위: 만원)

| 구분 | 대학생 부문 | | 일반인 부문 | |
|---|---|---|---|---|
| | 로고 | 슬로건 | 로고 | 슬로건 |
|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준비기획단 단장상 (외교통상부 장관상) | 200 | 100 | 200 | 100 |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상 | 100 | 50 | 100 | 50 |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 100 | 50 | 100 | 50 |
| 지식경제부 장관상 | 100 | 50 | 100 | 50 |

### 운영사무국

- 문의전화 : 02)2016 -7160, 2016 -7103
- 이메일 : nsscom@mofat.go.kr

그 외 자세한 사항이나 문의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www.seoulnss.go.kr

스마트기기로 QR코드를 스캔해 보세요.
모바일 공모전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주최 및 주관 : 핵안보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외교통상부

후원 :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 숨은 나눔과 봉사에 격려를



조선DB

**박상원**
배우

*봉사는 흉내에서 시작된다. 마치 유행병처럼, 때로는 사치심에서 출발하지만 어느 순간 참된 의미를 깨닫는 것이 봉사다. 그런 의미에서 소리 없이 나눔과 봉사를 실천해 온 이들에게 국민추천포상을 한 것은 참 잘한 일이다. 이들에 대한 칭찬과 격려는 앞으로 더 많은 나눔과 봉사의 촛불을 만들어낼 것이다.*

얼마 전 아프리카 순방에 나섰던 이명박 대통령께서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를 방문해 위생상태가 열악한 빈민촌에서 직접 방역활동을 벌였다. 대통령의 수행원 자격으로 그곳에 간 나도 방역 등 봉사에 참여했다. 같은 월드비전 친선대사인 동료 연기자 정애리씨와 KOICA 봉사단원들도 함께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봉사활동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에티오피아에서 6·25전쟁 참전용사를 만난 자리에서는 어느 때보다 가슴이 뭉클했다. 그분들은 자신들이 과거 도움을 줬던 나라가 이제 자신의 나라를 돕는다는 사실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내가 월드비전 친선대사를 맡은 게 내년이면 20년이 된다. 김혜자 선생님은 나보다 1년 앞서 친선대사를 맡아 아프리카의 참상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해오셨다. 내 경우 주로 지진과 지진해일, 내전 등 긴급 재난현장에서 활동을 해왔다.

월드비전은 6·25 전쟁고아들을 위해 만들어진 기구로, 우리와 인연이 깊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중반까지도 원조를 받던 나라였지만 지금은 이렇게 원조하는 나라로 성장했다.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가 된 경우는 지구상에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

우리 국민의 가슴은 매우 뜨겁다. 나라 안팎에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기금을 모으고, 나라의 위기상황에 금붙이 파는 나라가 어디 또 있는가. 우리나라는 월드비전 회원국 중에서도 기부금을 많이 내는 'G4'에 속한다.

연말 같은 특정한 시기가 되면 기부와 봉사의 바람이 분다. 하지만 '바람'도 괜찮다. 처음부터 가슴이 움직여 봉사를 하기란 쉽지 않다. 봉사는 흉내에서 시작된다. 마치 유행병처럼, 때로는 사치심에서 출발하지만 어느 순간 참된 의미를 깨닫는 것이 봉사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우리 사회에서 나눔과 봉사의 문화가 널리 퍼지고, 특히 연예계 후배들의 참여도 늘고 있어 반갑다. 솔직히 나도 20년 전엔 여행 간다는 생각으로 아프리카 봉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마음이 움직이고, 진정한 나눔과 봉사, 헌신의 의미를 깨닫게 됐다.

우리같이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이들은 당장은 봉사의 기쁨으로, 그리고 대중의 사랑을 통해 직·간접적인 보상을 받게 된다.

그런 점에 비춰볼 때 얼마 전 소리 없이 나눔과 봉사를 실천해 온 이들에게 국민추천포상을 한 것은 참 잘한 일이다. 이들에 대한 칭찬과 격려는 앞으로 더 많은 나눔과 봉사의 촛불을 만들어낼 것이다.

나눔과 봉사의 촛불은 나누면 나눌수록 오히려 더 많아진다. 더구나 국민이 주는 칭찬과 격려다. 이러한 격려와 칭찬이 많아질수록 나눔과 봉사의 촛불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늘어 우리 사회는 더욱 밝고 따뜻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G

# Contents

NO.120 2011.08.03 통권 221호



일러스트·유현호

27

기획특집

## 남을 위한 봉사와 나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이 먼저 위로받아야 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불편한 장애우이면서 어렵게 모은 재산으로 더 어려운 이들을 돕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재능을 나누고 봉사의 삶을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회의 그늘진 곳에 따뜻한 온기를 퍼뜨리는 사랑의 민들레 씨앗 같은 이들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귀한 상을 주었습니다. 그분들의 감동과 희망의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표지 이야기**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들, 서로 닮은 듯한 미소가 정겹다. 조용히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나눔과 봉사를 실천한 공로로 국민추천포상을 받은 선행봉사자 24인의 얼굴이다.


**위클리 공감** http://gonggam.korea.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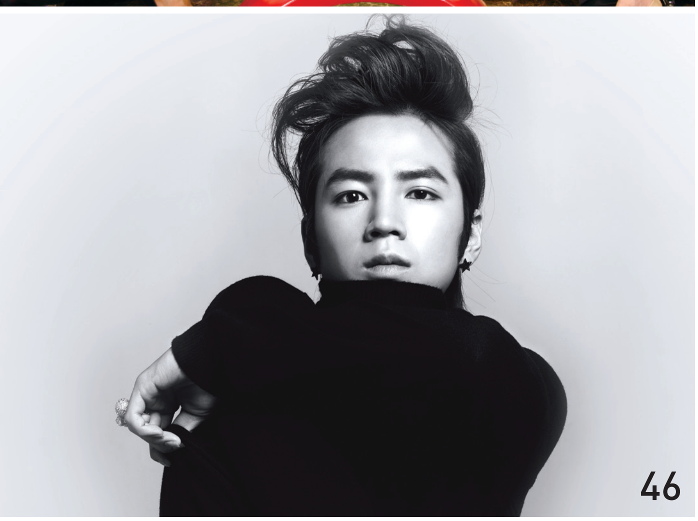
**발행일** 2011.08.03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정병국 **제작협력** 조선뉴스프레스 **인쇄제본** 타라티피에스 **문의** 02-3704-9668 **정기구독** 02-2625-32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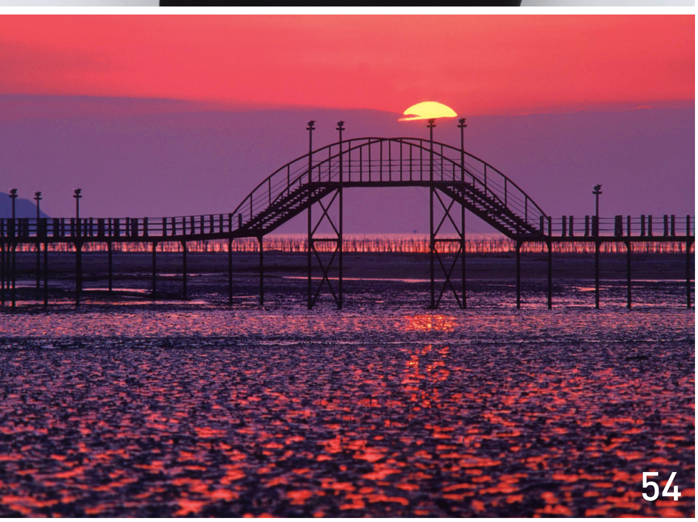
〈Weekly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림** 이 책을 펼치면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인쇄돼 있습니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 Lounge
공감라운지

〈Weekly 공감〉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8월 11일(목) 오전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관심 있게 읽은 기사,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등 다양한 독자 의견을 보내주시면 〈Weekly 공감〉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 [ 지난호를 읽고 ]

### '엄마품 돌봄교실' 바로 이용하세요

"지난 119호에 실린 '기획 특집 – "엄마, 방학 걱정 마세요!… 학교 있잖아요~"'기사를 잘 읽었습니다. 저희가 맞벌이부부라 방학이 되면 아이들에게 신경을 써 주지 못해 늘 미안했습니다. 방학 때 아이가 혼자 있어 불안한 경우가 많았는데 식사, 교육, 심지어 레크리에이션 활동까지 이용할 수 있는 돌봄교실을 보고 바로 지정학교에 문의를 했습니다. 이번 방학은 아이도 즐겁고 엄마도 안심할 수 있게 돼 다행입니다."

**박혜선 (광주광역시 두암3동)**

### 대구육상대회 기대됩니다

"이번 호 특별기획 '"최고대회 만들자"… 대구, 마지막 스퍼트' 기사를 잘 읽었습니다. 기사를 통해 대회의 준비 상황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이어 곧 개최되는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우리 모두의 정성으로 준비할 때입니다. 선수들과 관광객들을 웃음으로 맞이하여 친절한 대회, 알찬 대회였다는 외신 보도를 기대합니다."

**최성열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 문화재 환수,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번 호 '외규장각 의궤, 문화재 환수의 시발점'을 읽고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가 14만 점이 넘는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외규장각 의궤도 환수가 아닌 대여 형태로 국내에 들어온 상태라는 기사를 보고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문화재는 제작된 장소에 존재할 때 진가라는 말을 가슴에 새기고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들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반환을 위한 노력을 다 함께 시작할 때입니다."

**우윤숙 (대구광역시 달서구 죽전동)**

###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법 머리에 쏙! 쏙!

"여름 휴가철을 맞아 아이들과 물놀이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마침 '알아두세요–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법' 기사를 보았습니다. 물놀이 전 준비운동, 구조요령, 휴식시간을 갖는 것 등 알고는 있지만 간과하기 쉬운 안전수칙들을 때에 맞춰 다시 한번 알려 주셔서 좋았습니다. 특히나 '물놀이 상황별 대처법'은 다양한 상황에서 대처하는 자세를 알려 주어 위급상황에서도 기지를 발휘할 수 있는 정보라 유익했습니다."

**이영희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1동)**

### 아이랑 뮤지컬 보러 가고 싶어요

"이번 호 문화공감 '엄마와 함께하는 여름방학 문화산책'을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지난 호까지는 어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뮤지컬이나 영화를 소개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아이들 방학 시즌에 맞춰 재미있는 공연을 소개해 주셔서 부모님들에게 유익했을 것 같습니다. 송중기와 이보영이 더빙을 한 〈리오〉는 아이들에게도 인기 있겠지만 삼바축제와 브라질의 자연경관을 3D 애니메이션으로 볼 수 있어 대학생인 저도 기대됩니다. 기사를 읽으면서 저도 아이가 있다면 아이와 함께 공연을 보러 가고 싶었습니다."

**김충희 (경기도 광명시 광명2동)**

## 이 기사, 아쉬워요

### "영화 속 줄거리 더 알려 주세요"



영화에 관심이 많아 〈해리포터〉, 〈쿵푸팬더〉, 〈스타워즈〉 시리즈를 다룬 이번 호 영화 속 영웅이야기를 잘 읽었습니다. 3편의 영화 속 '영웅에 대한 해석'은 인상 깊었습니다. 하지만 영화를 보지 않은 사람은 이 칼럼만으론 공감이 어렵지 않을까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영화 속 줄거리를 더 알려 준다면 쉽게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창환 (군인 · 전라남도 목포시 복만동)**

###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일정도 궁금해요"



산사 템플스테이, 수도원 피정에 관한 기사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템플스테이와 피정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문득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사에 프로그램에 관한 일정이 나와 있지 않아 직접 인터넷에서 찾아봐야 했습니다. 템플스테이나 피정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대해 소개를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권영찬 (대학생 ·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 도전! 대구세계육상선수권 퀴즈



**1** 탄소 섬유로 만들어진 의족을 착용하고 달려 '블레이드(Blade · 날) 러너'라는 별명을 가진 남아공 출신의 스프린터. 장애인 육상선수로는 최초로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한다. 이번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4백미터 경기에 출전하는 이 선수의 이름은?

*지난호인 119호 P.18~19의 〈주목! 이 선수–다리없는 '의족'선수 달구벌 달린다〉 기사 참고.

**2**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공식 주제가. 라이브의 여왕 인순이와 한국의 폴 포츠 허각이 불러 기대가 되는 이 주제가의 제목은?

**3** '총알 탄 사나이는 나!'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기간 동안 가장 주목받는 종목.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우사인 볼트, 타이슨 게이, 그리고 아사파 파월이 금메달을 다툴 것으로 예상되는 이 경기 종목은?

**퀴즈 정답을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8월 11일 오전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알 림**

## 위클리공감 iPad 전자책 서비스




대한민국 대표 정책정보지 위클리공감 애플리케이션(이하 위클리공감 앱)이 아이패드용 전자책(PDF)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위클리공감 앱은 애플 앱스토어 검색창에 '위클리공감'으로 검색, 내려받을 수 있으며 창간호인 2009년 3월 4일자부터 최신호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과 한 발짝 더 소통하려 노력하는 위클리공감의 다양한 소식들을 언제 어디서나 위클리공감 앱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 제주도를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뽑아주세요!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한 인기투표가 한창(11월 10일까지)인 가운데 '제주도'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투표에 참여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전화 투표** | 001-1588-7715, 영어 안내 음성 후 '삐' 소리가 나오면 7715(제주선정코드)를 입력한다. 전화료 약 1백40원

**문자 투표** | '제주' 'jeju' 'JEJU' 중 택1 하여 문자 작성 후 001-1588-7715로 전송.

**자세한 내용은 '세계 7대 자연 경관 제주 공식블로그(blog.naver.com/7wondersjeju)' 참조**
**제주-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범국민추진위원회 www.jejun7w.com**

| | | | | | |
|---|---|---|---|---|---|
| 1 | | 2 | | | |
| 3 | 4 | | | | |
| | | | | 5 | |
| | 6 | 7 | | | |
| | | 8 | | | |
| | | | | | |

빈칸의 답을 '공감퍼즐 몇 호'라는 제목과 함께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8월 9일 오전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아이폰 〈정책투데이〉 앱에서도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가 로**

2. 지혜와 재능이 뛰어나고 용맹하여 보통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을 해내는 사람.
3. 몸이 납작해 타원형에 가깝고, 눈은 오른쪽에 몰려 붙어 있으며 넙치보다 몸이 작은 물고기.
5. 고등학교 졸업을 줄여 이렇게 부르죠.
6. 한강, 낙동강, 영산강과 함께 4대강에 속하는 강.
8. 홍수 등의 수해를 막기 위한 대책. "이명박 대통령은 7월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폭우 상황과 OOOO을 점검했다."

**세 로**

1. 물건의 값. OO 관리. OO 정책.
2. 영국과 미국을 아울러 이르는 말. OO 문학.
4.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에 투자한 돈.
5. 원생대와 중생대 사이의 시기.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데본기, 석탄기, 페름기.
7. 비, 눈, 우박 등으로 일정 기간 일정한 곳에 내린 물의 총량.

**〈Weekly 공감〉 118호(7월 20일자) '공감 퍼즐' 정답**

**가로** **3**장비 **4**킹콩 **6**고속철도 **8**가족 **9**샤이니
**세로** **1**스타킹 **2**준비 **3**장마철 **5**공고 **7**도가니

**〈Weekly 공감〉 118호 '공감 퍼즐' 당첨자**

김성윤 ·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3가
이장호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2동
정진미 ·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정향자 ·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
한정희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남동

### 시민과 공무원 그리고 군 장병

# 수해복구 한마음

서울·경기 지역에 내린 폭우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민·관·군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빗줄기가 약화되면서 시작된 복구작업은 군 장병과 경찰, 소방대원들이 대거 투입되면서 속도를 붙였다. 여기에 시민 자원봉사자들이 힘을 보태면서 피해지역은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

지난 7월 27일 육군 52사단의 장병들은 서울 우면산 앞 남부순환도로와 피해 아파트 지역에 투입됐다. 비가 그치지 않은 데다 토사물로 움직이기도 힘들었지만 3천2백여 장병들은 밤을 새워 복구작업에 매달렸다. 그 결과 29일 오후 남부순환도로의 통행이 재개됐고 다른 복구작업도 탄력이 붙었다.

육군은 29일 현재 서울과 강원 지역에 장병 1만 7천여 명과 6백여 대의 장비를 투입하는 등 수해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피해가 큰 서울을 지키고 있는 수도방위사령부는 인력과 장비, 차량 등 사상 최대 규모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도 비상태세를 유지하며 총력 지원에 나섰다. 서울시는 26일부터 비상근무태세를 유지하면서 긴급지원금을 편성해 복구를 지원했다. 경기도는 수해대책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담당공무원들을 31개 시·군의 현장에 파견해 수해복구 현황을 점검하고 지원했다.

시민들도 피해현장으로 달려갔다. 서울의 경우 29일 하루에만 3천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일손을 도왔다. 서울 우면산 일대, 관악구 신림동, 구로디지털단지역, 사당역 인근 등 피해를 입은 8개구에서 토사를 제거하고 가구와 집기를 말리고 도로를 청소하는 등 노고를 아끼지 않았다. 빵과 음료를 제공하고 봉사단을 파견하는 등 기업과 종교단체들도 피해복구에 뜻을 함께했다. G 글·변형주 기자



1

조선DB


3

문화체육관광부 mcst.go.kr


조선DB



연합
2

1 대한적십자사 자원봉사자들이 서울 방배동 전원마을 수해현장에서 빨래봉사를 하고 있다.

2 물에 젖고 토사로 뒤범벅인 가구와 집기를 닦는 것은 수해로 인한 눈물을 닦아내는 것과 같다. 자원봉사자들이 깨끗한 물로 식기와 집기에 붙은 오물을 닦아내고 있다.

3 수해복구에 대통령도 일손을 보탰다. 이명박 대통령이 흙으로 덮인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삼육재활센터의 복도를 청소하고 있다.

4 군 장병들은 잠시 총을 놓고 수해지역으로 출동했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장병들이 서초구의 한 지하주차장에 고인 흙탕물을 퍼내고 있다.

5 주한미군들도 피해 주민들의 고통을 씻어내는 데 동참했다. 경기도 동두천시에 주군하고 있는 미군 장병들이 주민들과 함께 수해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
4


조선DB
5

조선DB







대중교통요금 등 공공요금은 동결을 원칙으로 하고 인상할 경우 시점을 분산해 충격을 완화하기로 했다(왼쪽 사진). 기상이변과 구제역 등으로 가격변동 요인이 심한 농축수산물은 정부비축물량 방출하고 수입량을 조절하는 등 수급조절을 통해 가격을 안정시킬 계획이다.

# 서민 주름살 펴게… 물가관리 고삐 죈다

## ‘물가구조 태스크포스’ 설치… 매주 장관급회의 열어 시장친화적 대안 마련

하반기 경제정책의 핵심은 물가관리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산하에 ‘물가구조 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매주 장관급 회의를 여는 등 정책 역량을 물가안정에 모으기로 했다. 국제유가 상승과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이 적지 않지만 현장과 소통을 강화해 시장친화적인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물가가 좀처럼 낮아지지 않고 있다. 기상악화, 구제역, 국제유가 상승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탓이 크다. 석유제품과 농·축·수산물이 전체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근원물가도 오르고 있다. 올초 2.6퍼센트이던 것이 지난 6월에는 3.7퍼센트까지 상승했다. 기상악화에 따른 곡물가 상승이 가공식품과 외식비 오름세를 부추기고 있다.

정부는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상승에 따라 서민생활이 불안해지고 있다고 판단, 다각적인 물가안정 정책을 펴 왔다. 하지만 물가 상승 요인이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많아 효과는 크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물가관리에 고삐를 더욱 죄고 있다.

단기대응과 구조적 대응을 동시에 추진한다. 물가상승률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전망한 연간 4퍼센트, 하반기 3.8퍼센트 수준에서 안정화시키고 물가가 구조적으로 안정화되는 선진물가시스템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 공산품
### 물류센터 확충해 유통비용 절감

지난 5월 이후 공산품가격은 전체 소비자물가와 비슷한 수준인 4퍼센트 초중반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가전품과 섬유제품 등은 안정적이었지만 국제곡물가격 상승으로 과자와 빙과류 등 가공식품




조선DB

의 오름세가 컸다.

가공식품 가격의 안정을 위해 지식경제부는 지난 7월 22일 5개 식품업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를 통해 빙고, 아이스크림, 라면, 과자 등 4종의 가공식품을 오픈프라이스에서 제외하고 8월부터 가능한 품목부터 최대한 빨리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하기로 합의했다.

낱개 제품에 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박스에 표시하거나 제품 가격 리스트를 소매점에 배포하기로 했다. 대형마트에는 쌀과 수입산 삼겹살의 유통량도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유통구조 개선도 촉진한다. 먼저 중소상점의 유통비용을 줄인다. 이를 위해 현재 2천3백개인 나들가게를 2013년까지 1만개로 늘리고 공동구매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나들가게는 중소기업청이 컨설팅과 판매시점관리(POS) 등을 지원하는 혁신형 동네 슈퍼다. 물류센터도 확대한다. 전국 18개의 중소 유통물류센터의 물류기능을 강화하고 통합물류센터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새로운 유통채널도 육성한다. 인터넷숍과 프랜차이즈 등 가격경쟁을 주도하는 소매채널을 대상으로 '착한가게'를 선정, 시상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재제조(再製造: remanufacturing) 산업을 활성화해 소비자들의 선택권과 비용절감을 확대하기로 했다.

**농·축·수산물**

## 정부비축물량 풀고 유통구조 개선

농·축·수산물은 최근 기상악화와 구제역 등으로 롤러코스터 가격 추이를 보이고 있다. 8월 이후 기상변화에 따라 가격변동 가능성은 열려 있다. 정부는 수급안정을 통해 변동폭을 최소화하는 데 정책의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쌀과 배추는 정부비축물량 방출을 통해 수급을 조절한다. 2009년산 쌀의 소비 촉진을 통해 2010년산 쌀 부족을 메운다. 배추는 봄배추 수매물량을 방출하고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방제활동과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간다. 휴가철에 많이 소비되는 삼겹살은 7~8월 수입물량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수급을 조절한다.

추석에 대비한 조치도 마련했다. 이번 추석은 예년에 비해 일러 과실의 공급부족으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기출하를 위한 생육촉진 기술지원을 강화해 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사과와 배를 대체할 수 있는 과일세트도 공급하고 수입과일엔 무제한 할당관세를 시행하기로 했다.

농산물 유통구조도 개선해 나간다. 수급안정 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가격변동의 폭을 줄일 수 있는 거래방식을 확산하는 것이 요점이다. 수급안정 시스템을 위해서는 계약재배를 늘리고 생산량 예측모형을 시범운영한다. 거래방식도 개선한다. 생산지 인근 도시와 직거래장터와 사이버거래를 확대해 유통비용을 줄인다. 가격안정명령제 도입과 정가수의매매 확대 등 도매물가 안정화 조치도 추진한다.

**지방공공요금 · 개인서비스요금**

## 원칙은 동결, 인상 시엔 인상시점 분산

대중교통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지방공공요금은 서민생활과의 연관이 밀접하다. 정부는 경영효율화를 통해 지방공공요금의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인상이 불가피하더라도 인상시기를 분산시켜 충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상·하수도요금의 경우 올해 상·하수도 공기업 평가항목에 '경영혁신을 통한 원가상승분 흡수효과' 지표를 신설하는 등 원가절감을 통한 요금인상 억제책을 강화하고 있다.

외식비 등 개인서비스요금의 관리망도 죈다. 최근 외식비는 원재료가격 상승과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으로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하반기에도 이런 추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주부물가모니터단의 기능을 강화하고 업계의 자율적인 가격안정 분위

기를 조성해 오름폭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지역간 가격경쟁을 통한 물가안정책도 도입한다. 시내버스, 지하철, 삼겹살, 돼지갈비, 김치찌개, 된장찌개, 설렁탕, 자장면, 배추, 무 등 10종의 주요 서민생활물가 품목에 대해 매월 지역간 가격을 비교하는 방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들의 지역별 가격을 조사해 홈페이지 등에 '서민생활물가 비교표'를 공개할 예정이다.

현장활동도 강화한다. 장·차관과 지자체장의 현장방문을 활성화한다. 지역별 물가책임관제도 운영한다. 행정안전부의 주요간부를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해 담당지역의 물가를 파악하고 가격안정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지방물가 종합상황실의 경우 상황실장을 부단체장으로 격상하고 개인서비스 요금 동향을 상시 보고하도록 했다.

**불공정거래 감시**

## 자발적 가격 인하하면 과징금 할인

시장경제의 효율성은 경쟁에서 비롯된다. 가격을 무작정 올리지 못하는 이유도 경쟁의 영향이 크다. 하지만 일부에선 가격담합을 통해 가격을 올리는 불법을 저지르는 일이 있다. 정부는 가격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제재가 실제로 가격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과징금제도를 개선했다. 가격담합을 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최종 심결 전에 해당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가격을 내리면 과징금을 더 많이 깎아 준다. 가격인하의 폭과 기간을 과징금 감경 폭에 반영해 기업의 자발적 가격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담합을 비롯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억제 수단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는 크게 행정적·형사적·민사적인 방법이 있다. 이 가운데 과징금 등의 행정적 제재와 형사적 제재는 매우 활성화돼 있다. 담합에 대한 형사적 제재는 미국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반면 피해 소비자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적 제재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비자단체 등이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이를 적극 지원해 민사적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소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소송에 참여할 소비자를 모집하는 경비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 등을 비롯한 전자상거래가 가격안정에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정위가 전자상거래업계와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통해 소비자보호와 공정거래질서를 강화해 업계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도 그 일환이다. G

글·변형주 기자



조선DB

전기요금이 8월부터 주택용 2퍼센트, 산업용 6.3퍼센트 등 평균 4.9퍼센트 올랐다.

## 전기요금 소폭 인상… 서민 할인혜택은 늘려

8월부터 전기요금이 소폭 오른다. 전기요금 현실화의 일환이다. 전기요금이 원가를 밑돌 정도로 저렴해 한국전력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데다 에너지절약 측면에서도 부정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국제적으로도 한국의 전기요금은 OECD의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주택용은 47.8퍼센트, 산업용은 54.6퍼센트에 그친다.

하지만 물가압력이 크기 때문에 인상폭은 최소화했다. 이번 인상으로 전기요금은 원가의 86.1퍼센트에서 90.3퍼센트로 올라간다. 요금인상률은 용도에 따라 다르다. 주택용의 인상률은 낮지만 교육·산업·심야용은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다. 주택용의 인상률은 2퍼센트다. 오르기 전 월 4만원을 부담하던 4인가구의 경우 추가부담액은 월 8백원 정도에 그친다.

원가회수율이 낮았던 산업, 교육, 가로등, 심야전기는 인상폭이 크다. 산업계의 경우 평균 월 28만6천원을 더 내게 된다. 인상 전 산업계 월평균 전기요금은 4백86만원이었다.

서민들의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전기요금을 깎아 주는 '에너지 복지할인제도'를 정률제에서 정액제로 바꿨다. 전기 사용량이 많을수록 혜택이 많은 불합리한 현상을 고치기 위해서다. 이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존 월 5천2백30원에서 8천원으로, 차상위계층은 6백16원에서 2천원으로 할인액이 많아진다.

### 용도별 요금조정안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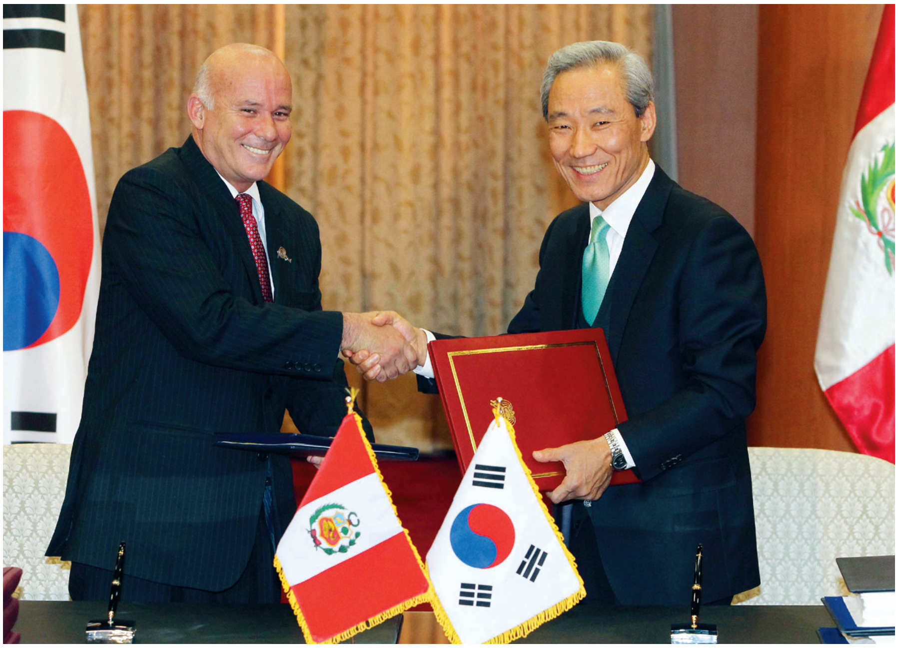
| 구 분 | | 평균 | 주택 | 일반 | | | 산업 | | | 교육 | 가로등 | 심야 |
|---|---|---|---|---|---|---|---|---|---|---|---|---|
| | | | | 저압 | 고압 | 계 | 저압 | 고압 | 계 | 저압 | 고압 | 계 |
| 조정률 | | 4.9 | 2.0 | 2.3 | 6.3 | 4.4 | 2.3 | 6.3 | 6.1 | 6.3 | 6.3 | 8.0 |
| 원가회수율 | 조정전 | 86.1 | 87.9 | 88.2 | 92.3 | 90.3 | 79.5 | 87.2 | 86.8 | 81.9 | 77.1 | 66.3 |
| | 조정후 | 90.3 | 89.7 | 90.3 | 98.1 | 94.3 | 81.4 | 92.7 | 92.1 | 87.1 | 82.0 | 71.6 |

*농사용 요금은 동결

**출처** 지식경제부

# 한·페루, 지구 반대편 '새 경제 파트너'

## FTA 발효… 자동차 등 수출 89퍼센트 증대 기대


조선DB

지난 3월 21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에두아르도 페레이로스 페루 통상관광부장관이 한·페루 FTA에 서명했다.

한·페루 FTA가 8월 1일부터 발효됐다. 페루와의 FTA는 칠레·싱가포르·EFTA(유럽자유무역연합)·ASEAN·인도·EU에 이어 7번째로 발효되는 FTA다. 작년에 중남미 국가 중 최고인 8.6퍼센트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페루는 근래 주목받는 신흥시장 중 하나다.

한·페루 FTA의 발효로 양국 간 현재 교역되고 있는 품목에 대한 모든 관세가 10년 내에 철폐된다. 한국은 1백7개, 페루는 5개를 제외한 모든 상품시장을 개방한다.

작년에 한국은 페루에 9억4천만 달러어치를 수출했다.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가전제품·기계류 등이었다. 페루로부터의 수입액은 10억4천만 달러로, 철·구리·아연 등 광산물과 커피·수산물 등을 주로 수입했다.

대외경제연구원에 의하면, 한·페루 FTA의 발효로 대페루 수출은 단기적으로 약 67퍼센트, 장기적으로 약 89퍼센트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페루로부터의 수입은 단기 14퍼센트, 장기 17퍼센트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관세인하로 인해 자동차, TV·세탁기·냉장고·컴퓨터 등 전자제품, 중장비 부품, 섬유직물염료, 플라스틱 제품, 의약품 등의 대페루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한국은 페루 시장에서 중국·일본보다 다소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다. 중·페루 FTA는 2010년 3월 발효됐지만 한국보다 낮은 수준이고, 일본은 한국보다 늦은 지난 5월 31일에야 페루와 FTA에 서명했기 때문이다.

페루 측 개방분야에는 전기·가스·발전서비스 등 국가기간산업도 포함되어 있어 한국 투자자의 페루 진출에 청신호가 켜졌다. 더 나아가 한국 기업이 자원부국인 페루의 에너지·자원개발사업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광물자원공사·한국석유공사 등 한국 기업들은 작년에 페루에 15억6천만 달러를 투자했다.

### 농수산분야 다양한 보호장치 마련에 성공

농수산물 분야의 민감한 품목에 대해 다양한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데 성공한 것도 주목할 만한 일이다. 한국은 쌀 및 쌀 관련 제품을 양허(讓許)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고, 쇠고기·고추·마늘·양파·감귤·사과·배·치즈·인삼류 등에 대해서는 추가 개방 없이 현행 관세를 유지하며, 포도·오렌지 등에 대해서는 계절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페루의 주요 관심 품목인 오징어 중 냉동·조미·자숙 등 주요 품목은 10년 후 관세가 철폐된다. 그 밖에 외국과의 FTA 체결 때마다 논란이 됐던 '개성공단 생산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에 합의한 것도 특기할 만한 일이다.

글·배진영 기자



조선DB

98퍼센트의 취업성공률을 자랑하는 서울여상 학생들이 실습실에서 결재 예절을 배우고 있다.

# 고졸 취업문 활짝 열리니 특성화고 '웃음꽃'

## 은행권 15년 만에 고졸행원 선발… 대기업도 마이스터고 우수학생 사전선발

학력 차별은 우리 사회의 고질병 중 하나다. 취업, 임금, 승진 등 졸업 후 사회생활의 차이가 크다 보니 '학력 인플레'가 기승이다. 반면 산업계는 인재기근에 시달리고 있다. 눈높이가 높아져 생산현장이 외면받고 있다. 우리 경제의 지속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최근 고졸자를 채용하는 기업이 늘고 있어 반갑다. 고졸자도 자신의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도록 정부도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7월 21일 전국은행연합회는 반가우면서도 놀라운 발표를 했다. 2013년까지 2천7백여 명의 고졸인력을 채용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올해부터 향후 3년간 전체 2만2천5백여 명의 전체 채용인원 가운데 12.1퍼센트를 고졸인력으로 채운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2년간의 평균보다 약 2배가량 많은 규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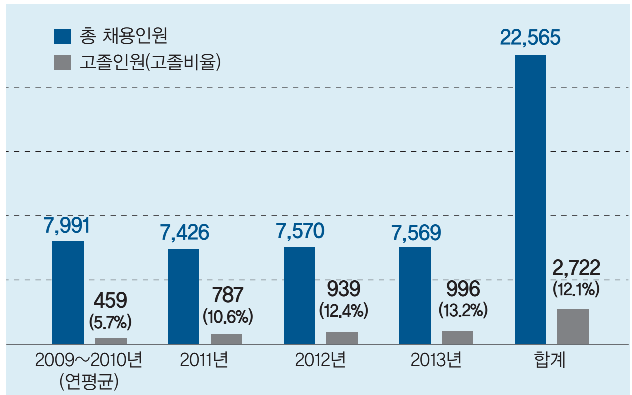
은행권이 고졸인력 채용을 확대한다는 것이 별스럽지 않게 들릴 수 있다. 하지만 IMF 외환위기 이후 고졸자들의 시중은행 취업이 사실상 중단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깜짝 놀랄만한 일이다. 외환위기 당시 극심한 구조조정을 단행했던 은행권은 그동안 고졸인력 채용을 꺼려왔다. 유명상고 졸업생들을 '모셔가던' 모습은 과거의 기억으로만 남아 있었다. 기업은행, 산업은행, 국민은행 등이 올해 고졸인력 채용을 발표할 때 '15년 만의 고졸 행원 채용'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이유다.

은행권에서 시작된 고졸인력 채용 확대 바람은 제조업과 유통, 서비스 등 산업계 전반으로 번져나가고 있다.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포스코, 현대중공업 등 국내 유수의 기업들이 먼저 나섰


조선DB

고졸인력을 채용하는 은행과 기업들이 늘고 있다. 지난 7월 20일 이명박 대통령이 20명의 고졸인력을 공채한 기업은행의 신입행원 교육장을 방문했다.

**은행권 고졸인력 채용 계획** (단위 : 명)




**출처** 전국은행연합회

다. 생산, 기능직 인력을 중심으로 고졸인력 채용을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졸업도 하기 전에 취업을 결정하는 기업도 있다.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STS반도체통신 등은 마이스터고의 우수학생들을 졸업 전에 채용한 후 재학 중에 업무 교육을 시키고 학자금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입도선매'식으로 우수인력을 일찌감치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 마이스터고 2년생 장학금 주며 미리 채용

현대차는 향후 10년간 총 1천여 명의 마이스터고 학생들을 졸업 전에 선발할 계획이다. 이들은 현대차가 제공하는 방과후 교육활동, 방학기간 중 단기 집중교육, 현장실습을 받으며 보전과 금형 등 분야의 기술인력으로 육성된다. 졸업할 때까지 5백만원의 학자금도 제공된다.

삼성전자도 매년 1백명의 마이스터고 우수학생들을 선발해 채용할 계획이다.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사전 직무교육을 시키고 모두 5백만원의 학자금을 지원한다. 1기 학생들이 이미 모집돼 삼성전자 생산 현장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내로라하는 대기업들이 마이스터고를 주목하는 이유는 그만큼 우수한 자원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이스터고는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길러낸다는 목표로 지난 2010년 도입한 특성화고다. 정부는 마이스터고 졸업생을 1백퍼센트 취업시킬 계획이다. 현재 약 3천6백명인 2학년 학생 가운데 64퍼센트인 2천3백명의 취업이 결정된 상태다.

공공기관도 고졸인력 채용에 나서고 있다. 교직원공제회는 올 하반기 1백71명의 전체 채용인원 중 26.3퍼센트인 45명을 고졸자로 선발한다. 내년에는 이를 52.1퍼센트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내년 신규 채용 인원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2백여 명을 고졸인력으로 충원한다. 이들이 취업 후 급여와 처우 등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내부 규정도 정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고졸 출신 채용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여성, 지방인재, 이공계 전공자 등에게 채용기회를 확대하도록 돼 있는 '사회형평적 인력활용' 지침에 고졸자를 포함한다는 구상이다.

### 취업 후 정원 외 대학진학의 길도 확대

취업 후 진학을 통해 전문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취업 후 일정기간이 지난 특성화고 출신이 정원 외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재직자 특별전형' 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올해 9개 대학이 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20개 대학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청은 16개 대학에 '중소기업형 계약학과'를 개설한다. 특성화고 출신이 학사와 석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정부가 비용의 70퍼센트를 지원할 계획이다.

고졸인력 채용 확대를 정부가 지원하는 이유는 '학력 인플레'로 대표되는 인력수급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채용, 보수, 승진 등 '학력 차별'을 피하기 위해 대학을 가려 한다. 이 탓에 산업현장이 비는 반면 청년실업률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력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도록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G

글·변형주 기자

고졸 여직원 3명 채용한 오효성 입소스코리아 대표

# "보고서 잘만 만들더라… 3명 더 뽑을 생각"

**프랑스계 마케팅 리서치 회사 입소스코리아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4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특성화고 출신 여직원 3명을 연구보조직으로 신규 채용했다. 처음에는 일각의 우려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임직원 모두 대만족이다. 오효성 입소스코리아 대표는 "하반기에도 특성화고 출신 직원들을 추가 채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계 시장조사기관 입소스코리아의 오효성 대표. 최근 고졸 여직원 3명을 신규 채용한 오 대표는 "처음에 고졸 채용에 반대하던 사람들도 지금은 모두 좋아한다"고 밝혔다.

프랑스계 시장조사 기관인 입소스코리아의 오효성(56) 대표는 최근 작은 실험을 단행했다. 특성화고를 갓 졸업한 고졸 출신의 여직원 3명을 신규 채용한 것이다. 입소스코리아의 모회사인 입소스는 세계 2위의 시장조사 전문 회사다. 프랑스 파리에 본사를 두고 전 세계 64개국에 모두 9천1백여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다.

이 가운데 서울 잠원동에 있는 입소스코리아의 직원 수는 모두 1백30여 명이다. 연매출 3백억원가량을 올리는데, 전체 직원 가운데 고졸 출신 직원은 지금껏 전무했다. 기업이 의뢰한 시장조사를 수행하고 상담업무를 진행하다 보니 직원들 대부분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채워졌다. 이에 오 대표의 '고졸 채용' 방침은 사내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오효성 대표는 지난 7월 26일 그 실험에 대해 설명했다.

"시장조사 업무는 인내심을 요하는 반복 업무가 많습니다. 반면 대학원 이상을 졸업한 직원들은 이에 대한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부모를 잘 만나서 외국유학까지 다녀온 친구들은 자립심도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현실에 안주하는 경향도 있었어요. 외국 어학연수를 다녀왔다고 해서 영어실력이 꼭 뛰어난 것도 아니었고요."

이 같은 상황은 오 대표가 '고졸 채용'이란 패를 꺼내 든 배경이 됐다. 고졸 출신 여직원 3명의 평균 나이는 19세다. 모두 서울에 있는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곧장 입소스코리아에서 한솥밥을 먹게 됐다. 오 대표는 "여직원들이 업무용 컴퓨터 프로그램도 잘 다루고 영어도 곧잘 한다"며 "집안 사정이 안좋아 대학 진학을 못했으나 나중에 회사에서 모은 돈으로 야간대학에 진학하려는 친구들"이라고 새로 뽑은 여직원 자랑을 이어 갔다.

### "영어도 곧잘 하고 업무에 불평불만 없어"

오 대표에 따르면 특성화고 출신의 이들 여직원은 문서정리와 자료검색 등 연구보조 업무를 맡고 있다. 오 대표는 "단순 업무에도 대학원 출신 직원들처럼 불평불만도 없다"며 "매달 나가는 보고서 가운데는 비슷한 유형들이 많은데 이런 보고서도 곧잘 만들어 낸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오 대표가 특성화고 출신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지난해부터

다. 지난해 그는 서울에 있는 한 대학의 입학사정관을 역임했다. 그 때 경험으로 그의 머릿속에는 '가정형편이 어렵지만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아이들'로 특성화고 졸업생의 이미지가 각인됐다.

물론, 그가 고졸 출신을 직원으로 채용하려 하자 주위에서 말리는 목소리도 나왔다. 팀장과 본부장급에서는 "외국계 리서치 회사란 기업 이미지도 있는데 고졸자를 채용하면 회사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겠느냐"며 우회적으로 반대의사를 피력했다. "동종 업계에서 고졸자를 채용하는 일이 전무하다"는 것도 이들의 반대 근거였다.

하지만 고졸자를 채용한 후 지금은 모두가 반기는 분위기다. 우선 기존 직원들은 특성화고 출신 직원들이 기대이상의 업무능력을 발휘해 자신들의 업무부담을 덜어주자 표정이 밝아졌다. 신규 채용된 여직원도 자부심이 가득하다고 한다. 오 대표는 "고졸 출신으로 세계적인 외국계 회사를 다닌다는 자부심 아니겠냐"고 말했다. 사측으로서도 인력채용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입소스코리아의 고졸 출신 여직원의 임금은 대졸자의 70퍼센트 선으로 알려졌다.

### "처음에 반대하던 팀장들도 대만족"

회사 이미지를 이유로 고졸 출신 직원 채용에 반대했던 팀장과 본부장급에서도 이들 직원의 업무수행 능력에 만족하는 분위기다. 이제는 오히려 더 뽑자고 아우성이다. 이에 오 대표는 "하반기에도 특성화고 출신 직원 3명을 추가 채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가 '고졸 채용'에 적극적인 이유는 또 있다. '학력 인플레'가 달갑지 않기 때문이다.

"제 매형이 고등학교 교장입니다. 요즘 고등학교 교실에 가면 학생들이 거의 다 엎드려 잠을 잔다고 합니다. 25퍼센트는 수업내용을 못 따라와서 잠을 자고, 25퍼센트는 수업내용이 너무 쉬워서, 나머지는 저녁에 학원수업을 들으려고 미리 잔답니다." 그는 "이게 정상이냐"며 "대졸자를 양산하는 것이 학력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력 인플레'가 각 가정의 경제적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도 그가 걱정하는 대목이다. "학력 인플레로 인한 교육비 급증으로 노후를 대비한 저축을 못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그는 대신 "교육비 문제를 획기적으로 줄여 주면 노후에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을 더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 경제정책의 초점도 학력 인플레를 낮추는 데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그는 "학력 인플레는 개인적·국가적 차원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중산층이 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사회적 효율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말했다. G

글·이동훈 기자

'고졸 채용' 개선돼야 할 점

## 같은 직급 업무능력 별 차이 없는데 대졸자 임금, 고졸자보다 1.6배 높아


조선DB

지난 7월 13일 서울무역전시장에서 열린 특성화고교생 채용박람회에서 고교생들이 전시관을 살펴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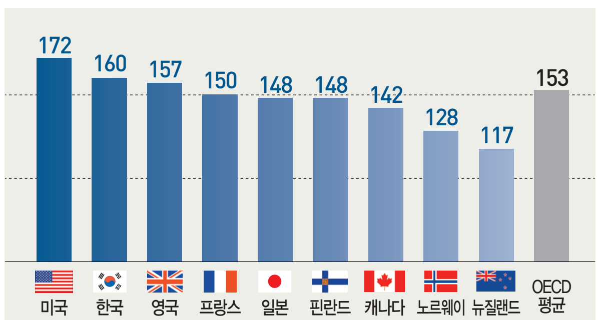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불고 있는 고졸 채용 열풍이 일회성 이벤트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졸자의 채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대졸과 고졸 출신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것이 관건. 하지만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졸자 임금은 고졸자의 1.6배에 달한다. OECD 24개 회원국 가운데 미국(1.72배)에 이어 2위다.

고용노동부 통계에도 지난 2009년을 기준으로 고졸자의 초임은 월 1백37만원에 그친다. 한달 2백3만원을 첫달 월급으로 받는 대졸 출신 취업자에 비해 70만원 가까이 낮다. 또한 승진기회에 있어서도 고졸자가 대졸자보다 밀리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정작 업무능력에 있어서는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26일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3백7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72.3퍼센트가 "고졸 인력의 업무능력은 같은 직급의 대졸 인력에 비해 별 차이가 없다"고 응답했다. '고졸의 업무능력이 대졸보다 낮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24퍼센트에 그쳤다.

오효성 입소스코리아 대표는 "특성화고 출신을 채용한 결과 회사의 효율성 측면에서 만족도가 더욱 높다"며 "더욱이 특성화고 출신들은 대학 4년을 헛다닌 직원들보다 더 열정적이라 점점 고졸 출신 채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단언했다.

**OECD 회원국 대졸·고졸 임금격차** (고졸임금=100 기준)




출처 OECD (2008년)

## 한국방송사상 첫 장애인 앵커 이창훈씨

# “제 재능이 기회로 연결돼서 기쁩니다”


홍인

장애인 앵커 1호 이창훈씨가 국혜정 아나운서와 함께 7월 25일 서울 여의도 KBS 보도국에서 점자정보단말기를 이용해 뉴스 진행을 시연하고 있다.

“볼 수는 없지만 제겐 남보다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방송을 듣고 따라하곤 했죠. 제 재능을 기회로 연결할 수 있게 돼 기쁩니다.”

아나운서 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는 하지만 지난 7월 25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앵커 위촉장을 받아 든 이창훈(27)씨의 감회는 그 이상이다. 이씨는 시각장애 1급으로 빛과 어둠도 구별할 수 없는 ‘전맹’이다. 그런 그가 지난 6월 20일부터 한 달간 KBS가 진행한 첫 장애인 뉴스 앵커 선발시험에서 무려 5백23대 1이라는 경쟁률을 뚫고 국내 방송 사상 최초의 장애인 앵커가 된 것이다.

이씨는 이날 보도국 뉴스 스테이션에서 국혜정 아나운서와 함께 뉴스 진행 시연을 해보였다. 점자정보단말기를 이용해 텍스트 파일로 된 뉴스 원고를 손으로 짚어가며 편안하고 신뢰감 있는 음성으로 원고를 읽어내자 주위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사전 연습을 할 수 없는 속보 또한 즉석에서 무리 없이 소화해 냈다.

경남 진주에서 1남3녀 중 막내로 태어난 이씨는 생후 7개월에 앓은 뇌수막염 후유증으로 시력을 완전히 잃었다. 한때 사지마비까지 찾아와 “사람 구실 못할 것”이라는 걱정까지 샀지만 이를 이겨내고 8세 때부터 맹학교에서 점자를 익히며 학업에 열중했다. 서울신학대와 숭실대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했고 2007년부터 한국시각장애인인터넷방송(KBIC) 진행자로 활동하며 방송인의 꿈을 키워왔다.

이날 위촉식에는 진주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어머니 이상여(57)씨도 참석했다. 현재 이창훈씨는 누나와 함께 서울에 살고 있다. 이씨의 어머니는 “꿈을 일궈낸 아들이 자랑스럽다”면서 “아들이 야구중계를 들으며 따라하는 게 취미였는데 이런 결실을 얻었다”며 감격스러워했다.

비정규직 프리랜서로 KBS와 1년간 계약하는 이씨는 “다른 장애인들에게 용기를 주었으면 좋겠다”며 “꿈과 희망을 전하는 앵커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또 자신의 ‘성공담’이 “장애 극복이나 인간승리 식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롤모델로 KBS 9시뉴스의 민경욱 앵커를 든 이씨는 “생동감 있는 뉴스 진행능력을 닮고 싶다”며 “꿈과 희망을 전하는 앵커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실무교육 후 가을부터 정규뉴스 코너 진행

이씨는 3개월간 앵커 실무 교육을 받은 뒤 가을부터 정식으로 일반 뉴스 진행에 투입돼 정규뉴스의 한 코너를 진행하게 된다. KBS 임흥순 과학재난부장은 “다른 경쟁자에 비해 이창훈씨의 뉴스 진행 능력이 월등하고 발음과 뉴스에 대한 지식, 안목 등이 뛰어났다”고 말했다. KBS는 2백50만명(등록장애인 기준)이 넘는 국내 장애인들에게 기회와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의미에서 매년 한차례씩 장애인 앵커를 선발해 방송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씨의 원활한 뉴스진행을 돕기 위해 한 대에 1천만원가량인 점자정보단말기를 구입하고 자료 조사와 안내를 도맡을 직원도 따로 채용할 계획이다. G

글 · 채지은 (한국일보 문화부 기자)




조선DB

오는 2014년까지 3만 대의 고속전기차가 서울 시내를 누비게 된다. 사진은 서울시가 관용차량으로 사용할 고속전기차.

# On! 고속전기차 3만 대 서울 누빈다

## 2014년까지 보급… 8천 대의 전기충전기 도심 곳곳에 설치

오는 2014년이면 고속전기차가 서울 도심 곳곳을 달리게 된다. 관광객이 많이 찾는 남산을 비롯 강남과 여의도 등에서 전기버스를 탈 수 있게 된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 7월 27일 발표한 '전기차 마스터플랜 2014'에서 밝힌 내용이다. 서울시는 '마스터플랜'을 통해 "2014년까지 전기차 3만 대와 전기오토바이 1만 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배달용 등 전기오토바이도 1만 대 보급

서울시가 보급목표로 세운 전기차 3만 대는 서울시 전체 등록차량의 1퍼센트 수준으로 전기버스 4백 대를 비롯 전기택시 1천 대, 전기승용차 2만8천6백 대로 이뤄진다. 특히 장기적으로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를 대체할 예정인 전기버스는 오는 2012년까지 우선적으로 남산을 비롯 여의도, 강남 등 6개 순환노선에 34대가 보급된다.

오토바이와 택배차도 단계적으로 전기차로 바뀐다. 음식과 신문배달용 오토바이는 현재 서울에서만 2만여 대가 운행 중이다. 하지만 배달용 오토바이는 소음과 매연으로 주거지역에서 단골 민원대상이 돼 왔다. 현재 50시시(CC)의 전기오토바이가 보급되고 있지만, 오는 2013년 1백10시시 본격 양산에 맞춰 일제히 업그레이드된다.

8천 대의 전기충전기도 도심 곳곳에 설치된다. 공영주차장, 노상주차장에는 5분 만에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급속충전기 1백26대가 설치된다. 지금 기술로도 급속충전기는 10~30분이면 100퍼센트 충전이 가능하다. 완속충전기의 경우 충전에만 4~6시간이 걸린다. 그간 전기충전기 부족과 장시간의 충전시간이 전기차의 최대 약점으로 지적돼 왔다.

서울시 측은 "전기차에 우선 주차권을 주고 주차비를 할인해 주는 등의 전기차 연간 주차회원제,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운영, 아파트 충전기 설치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했다"며 "전기차에 대한 세제혜택과 하이브리드차와 동등한 금액(3백만원)의 구매차액 지원도 정부에 건의해 민간 보급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 · 이동훈 기자




아리랑TV

나승연 평창 유치위 대변인(왼쪽)이 지난 7월 29일 방송된 아리랑TV의 토크쇼 〈하트 투 하트〉에 출연, 강채리 앵커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아리랑TV 토크쇼에 출연 '더반의 스타' 나승연 대변인

# "아직도 꿈 같아… 조국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가 발표된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 IOC 총회에서 설득력 있는 프레젠테이션을 선보인 나승연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대변인. 최근 '나승연 신드롬'까지 일으키고 있는 그가 '친정'격인 아리랑 TV 토크쇼 〈하트 투 하트〉를 찾았다.

돌이켜보면 아직도 흥분의 여운이 가시지 않는다. 지난 7월 7일 새벽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평창이 2018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발표되던 순간, 우리 국민 모두 환호성을 외쳤다.

그때 누구보다 큰 마음속 짐을 내려놓았을 사람들이 더반에서의 최종 프레젠테이션에 참가한 발표자들이었을 것이다.

아리랑TV의 토크쇼 〈하트 투 하트〉는 7월 29일 오후 9시30분 '더반의 스타'로 떠오른 나승연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대변인 편을 방송했다. 영어와 프랑스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호소력 있는 프레젠테이션을 펼친 나 대변인은 4년간 아리랑TV에서 리포터와 앵커 등으로 활동한 바 있다.

강채리 앵커가 진행한 이날 방송에서 나 대변인은 "지난 3주간

다양한 인사들을 만나느라 바빴다"며 "진짜 일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사실 자크 로게 IOC위원장이 봉투를 열어 "평창"을 외치던 그 감격스런 순간이 영상을 봐야 기억난다고 했다.

"그 순간 제가 숨기고 있던 감정들이 폭발했거든요. 최종 발표에서의 팀워크도 훌륭했고 저희 팀과 조국이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

**최근 자신에게 쏟아지고 있는 관심에 대한 느낌은.**

"아직도 꿈 같아요. 하지만 저는 훌륭한 팀의 일원이었을 뿐이고, 평창유치위와 대한올림픽위원회(KOC), 정부, 강원도 등의 지원, 그리고 5천만 한국민의 지지를 받아 이룬 업적입니다. 안 보이는 곳에서 저보다 더 노력해 주신 분들이 많으세요. 이분들도 국민의 관심을 받았으면 합니다."

**유치위 대변인으로 어떤 활동을 수행해 왔는지요.**

"주요 업무는 각종 프레젠테이션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발표자들을 준비시키는 것도 역할의 하나였죠. 또 해외 언론과 접촉하는 부분에서 홍보담당자를 도와드려야 했고 지난 2월 IOC 평가위원회 평창 방문과 로잔에서 열린 기술 브리핑, 그리고 기자회견 질의응답 사회자를 맡았습니다."

**첫 발표자였는데도 전혀 흔들림이 없어 보였어요.**

"다 연기였어요(웃음). 막상 IOC 위원들 앞에 서니 긴장되고 제 역할에 대해 큰 부담이 느껴졌어요. 처음 1분은 말이 잘 나오지 않아 최고경영자(CEO) '터비 레디'란 분의 이름을 '터디 레비'라고 하고 말았어요. 쉬운 이름이고 연습할 때 실수도 안 했던 부분인데, 큰 실수였죠."

**아무도 못 알아챈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첫 발표자인 만큼 전체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기 때문에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끝나고 나니 다른 팀원들을 실망시킨 것 같기도 하고, 더 잘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 아쉬웠어요. 하지만 다른 팀원들이 잘해 주셔서 제가 최종 발표 때에는 더욱 분발할 수 있는 힘이 됐습니다."

**발표 연습은 어떻게 하셨나요?**

"최종 발표 연습만 한 달 정도 했어요. 서울에서나, 출장지에서나, 또 혼자든 팀원들과 함께든 매일 몇 시간씩 연습했어요. 헬리오스 파트너스 대표 테렌스 번스 씨가 우리 팀의 발표 지휘자로 훈련시켜 주셨고, 팀 단위 연습을 많이 했어요. 팀원의 에너지를 모아 시너지를 발휘해야 하니까요."

**어느 분의 발표가 가장 인상적이었는지요.**

"한 명을 콕 집어내기 힘들지만, 조양호 유치위원장님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대중 앞에서 연설하는 게 익숙지 않으셨고, 매우 바쁘신 분인데도 저와 함께 계속 연습을 하셨어요. 최종 발표가 다가왔을 때는 18개월 전과 전혀 다른 분이 되셨어요. 피땀 어린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죠."

**팀워크는 어땠는지요.**

"매우 좋았습니다. 박용성 KOC위원장님은 유머 감각도 뛰어나셔서 많은 웃음과 열정을 더해 주셨어요. 김연아 선수도 동계올림픽 유치의 스타죠. 세계 챔피언으로 존재감도 크고 영어 발음도 훌륭하고 중요한 순간을 놓치지 않고 전달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도 정말 큰 자산이었습니다. IOC위원들도 대통령님의 발표를 직접 언급할 정도였는데, 모국어가 아닌 영어 발표를 정말 잘해 주셨어요."

**나 대변인의 프레젠테이션 음성 분석 결과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냉정한 프로 근성으로 신뢰감 높은 승부사 기질'이 발견됐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 감정을 통제하기 매우 어려웠어요. 연습할 때 눈물을 흘린 적도 있는데, 최종 발표 때 제가 두번째 무대에 오르기 앞서 무대에 섰던 김진선 유치위 특사께서 발표 중 눈물을 흘리셨어요. 만약 저까지 눈물을 보이면 적정선을 넘는 것 같아 최대한 제 감정을 숨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게 맞는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나 대변인이 '명품 영어'를 구사한다는 평가들을 하는데.**

"감사합니다만 실은 프레젠테이션에서 대부분 IOC위원들이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어요. 너무 빨리 말하는 것과 어려운 단어 사용이나 긴 문장은 피했어요. 동시에 약간 한국적 요소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저희 팀원들이 다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하지 않으니까요. 각 발표자가 사용하기 편한 단어들을 선정하려고 애썼는데 덕분에 저희 발표가 더욱 설득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실 예정인가요.**

"지난 18개월 동안 한국 알리기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했습니다. 아직 수많은 사람이 한국이 얼마나 멋진 나라이며 장점이 많은지 너무 모릅니다. CNN 등의 뉴스를 통해 북한과의 분쟁, 일본 원전사고 현장과 가까운 나라로만 알아요.

한국이 얼마나 멋진 곳이고 한국인들이 얼마나 정이 넘치는지, 김치 이외에도 훌륭한 점이 많고 한국방문이 좋은 경험이 될 것이란 걸 널리 알리고 싶어요. 평창 유치위의 대변인으로서,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서 한국과 한국기업을 해외에 더욱 잘 알리고 싶습니다." G

글·박경아 기자

# "한국의 가장 훌륭한 자산은 한국인"

## 아리랑TV에 출연 찰스 테일러 교수… "이 대통령 더반 영어연설은 잘한 결정"

나승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대변인이 출연한 〈하트 투 하트〉 방송 중 영상을 통한 '깜짝 질문'이 하나 있었다. 전 미국광고학회 회장이기도 한 찰스 테일러 미국 빌라노바 대학 석좌교수의 질문이었다.

테일러 교수는 영상을 통해 "나 대변인이 호소력 있고 열정적인 연설을 통해 동계올림픽 개최가 한국인의 염원이란 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했다"고 평가한 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질문을 던졌다.

나 대변인은 이에 대해 "'새로운 지평'이 우리 팀이 강조한 메시지"라고 답했다.

테일러 교수는 앞서 7월 21일 7시 방송된 아리랑TV의 생방송 뉴스프로그램 〈투데이〉에서도 한국의 국가브랜드를 중심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남아공 더반 영어 연설, 우리 대표단의 활약에 대해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 "국가브랜드위원회가 만든 아이디어 놀라워"

테일러 교수는 "한국팀 프레젠테이션 전략은 아주 훌륭했다"며 "자부심에 가득 찬 한국팀의 프레젠테이션은 다른 두 도시와 분명하게 비교됐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 대통령이 영어연설을 한 것은 아주 잘한 결정이었다"며 2014 동계올림픽 유치전 당시 소치 지원 연설을 한 블라디미르 푸틴 전 러시아 대통령을 예로 들었다.

"더구나 이 대통령이 영어로 연설을 함으로써 조건 없이 평창을 지원하겠다는 의지가 많은 IOC위원에게 곧바로 전달됨으로써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또 "국가브랜드는 한 나라의 이미지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한국은 훌륭한 브랜드를 갖고 있다"면서 "국가브랜드위원회를 만든 이 대통령의 아이디어는 놀랍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 세계에 내보일 것들이 무척 많다. 경주와 제주, 그리고 서울만 해도 삼청동·인사동·대학로 등 놀랍고 훌륭하다. 국가브랜드위원회까지 노력을 하고 있어 더 많은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경민 기자

찰스 테일러 교수가 아리랑 TV 뉴스 프로그램 〈투데이〉에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와 한국의 국가브랜드에 대해 말하고 있다.

테일러 교수는 "다만 그러한 명소들을 '30대', '40대' 하는 식으로 선정하는 것은 오히려 언급되지 않은 곳을 관심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가장 훌륭한 자산으로 '한국인'을 꼽았다.

"한국인들은 부모대에서 이룬 성과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을 보세요. 정말 세계적인 도시입니다. 세련된 패션, 훌륭한 이웃이 있습니다. 또 한국인의 환대는 어디서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장점을 두루 꿰고 있는 테일러 교수는 개인적으로도 한국과 특별한 인연을 갖고 있다. 그의 아내가 한국 여성이며, 부부 사이에 생후 5개월에 입양한 한국 출신 아들이 한 명 있다. G

글·박경아 기자

4대강살리기



# 4대강 국민 공모전

## 심벌마크 공모전

| | |
|---|---|
| 공모부문 | 4대강(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의 이미지를 상징화 한 심벌 디자인 |
| 공모자격 | 개인 및 단체(4인 이내), 국내 2년제 이상 대학(원) 재, 휴학생 |
| 공모기간 | 2011. 7. 11 (월) ~ 2011. 8. 5 (금) 18:00 까지 |

### 시상내역 (총상금 : 1,700만원)

| 분야 | 개인 및 단체 | 대학생 및 대학원생 |
|---|---|---|
| 대상 (국토해양부장관상) | 700만원(통합1명) | |
| 최우수상 (국토해양부장관상) | 300만원(1명) | 300만원(1명) |
| 우수상 (국토해양부장관상) | 100만원(1명) | 100만원(1명) |
| 장려상 | 50만원(2명) | 50만원(2명) |

### 유의사항

- 수상작에 대한 저작권 등 일체 권한은 국토해양부에 귀속되며, 응모작은 반환하지 않음
- 참가자 수 및 작품 수준 등의 이유로 상금 및 수상인원은 변동 가능함
- 작품 제작 시 일어나는 안전사고, 시설물 파손, 초상권 침해, 민 · 형사상 문제의 책임은 제작자에게 있음
- 제작에 사용된 모든 콘텐츠는 창작권 · 저작권을 제작자가 보유하여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수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브랜드 네임 공모전

| | |
|---|---|
| 공모부문 | 수변공간 브랜드네임, 도메인네임 |
| 공모자격 | 전 국민 참여 가능 |
| 공모기간 | 2011. 7. 11 (월) ~ 2011. 8. 5 (금) 18:00 까지 |

### 시상내역 (총상금 : 440만원)

| 분야 | 브랜드 네임 | 도메인 네임 |
|---|---|---|
| 대상 | 아이패드(1명) 100만원 상당 | 아이패드(1명) 100만원 상당 |
| 최우수상 | 넷북(1명) 50만원 상당 | 넷북(1명) 50만원 상당 |
| 우수상 | MP3 (2명) 20만원 상당 | MP3 (2명) 20만원 상당 |
| 장려상 | 도서상품권 (3명) 10만원 | 도서상품권 (3명) 10만원 |

### 유의사항

- 수상작에 대한 저작권 등 일체 권한은 국토해양부에 귀속되며, 응모작은 반환하지 않음
- 참가자 수 및 작품 수준 등의 이유로 상금 및 수상인원은 변동 가능함
- 동일한 명칭은 먼저 접수한 제작자를 시상함
- 작품 제작 시 일어나는 안전사고, 시설물 파손, 초상권 침해, 민 · 형사상 문제의 책임은 제작자에게 있음
- 제작에 사용된 모든 콘텐츠는 창작권 · 저작권을 제작자가 보유하여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수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국토해양부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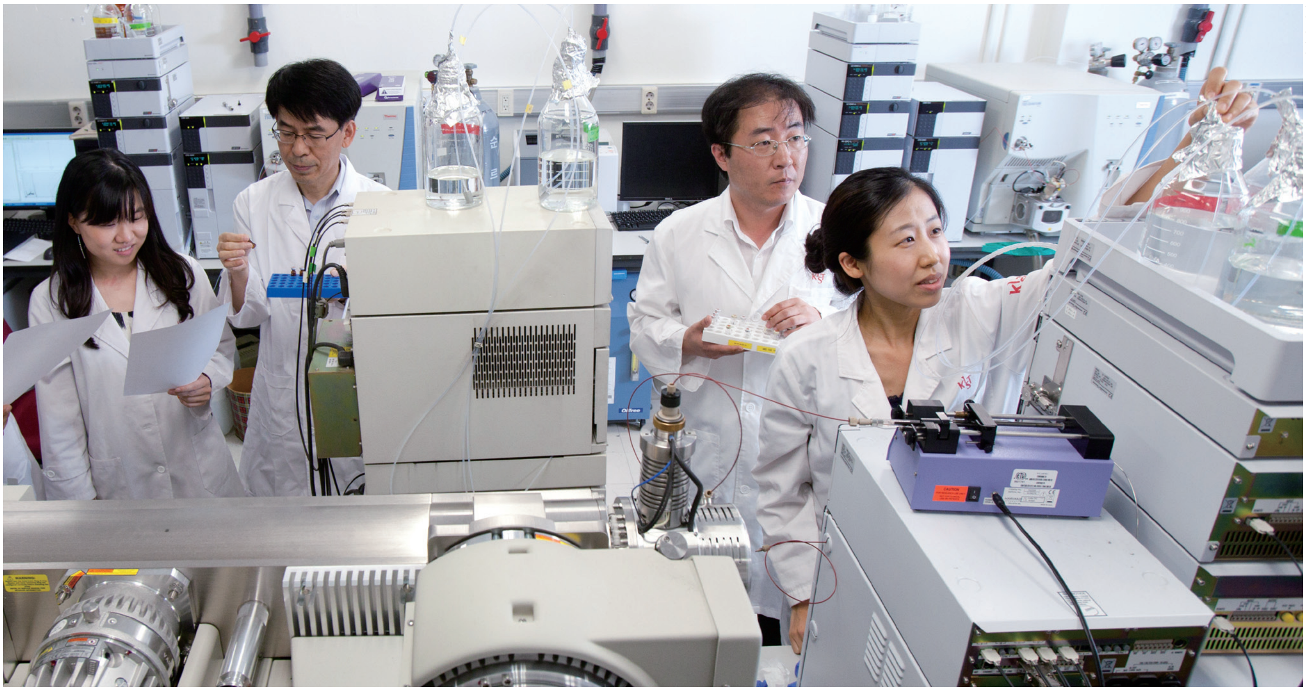
공모전 운영사무국
Tel 02)525-2648
MAIL : 4rivers@loomaroo.com

상세공모요강은 4대강 국민 공모전 홈페이지(http://www.contest4rivers.co.kr/)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 '약물 꼼짝 마!'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도핑콘트롤센터

# "금지약물 복용 48시간 안에 가려낸다"

육안으로 가늠할 수 없는 찰나의 레이스가 펼쳐지게 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고 싶어하는 선수들의 욕망이 자칫 빗나갈 경우 금지된 도핑(Doping)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 크게 '금지약물 체내 투여' 및 '금지방법 사용'을 포함하는 도핑은 승부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기에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는 도핑을 억제하고 사용을 적발하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경민 기자

물샐 틈 없이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도핑 유혹을 막아라! 국제공인을 받은 국내 유일의 도핑검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내 도핑콘트롤센터. 왼쪽 두번째가 권오승 센터장이다.

오는 8월 27일 개막하는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준비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분야가 '도핑(Doping)'이란 금단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한 반도핑 준비다.

도핑의 어원이 되는 '도프(Dope)'란 원래 경주마에게 투여하는 약물을 지칭하며, 도핑이란 선수가 운동경기에서 성적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약물을 사용하거나 특수한 물리화학적 방법을 이용하는 일을 말한다.

대구세계육상대회를 위한 반도핑 준비에 바쁜 곳 중의 하나가 서울 성북구 월송로에 위치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도핑콘트롤센터다. 이 센터는 세계도핑방지위원회(WADA)가 인정하는 전 세계의 35개 국제공인도핑테스트 기관(32개국) 중 하나다.

1988년 서울올림픽 육상경기 개최를 위해 1985년 KIST 안에 문을 열고 국제공인을 받은 이 센터는 서울올림픽 당시 세계신기록으로 남자 1백미터 우승을 차지한 캐나다 벤 존슨의 금지약물 복용 사실을 밝혀낸 곳으로도 유명하다.

### 서울 KIST 내에 위치… 국제공인 35곳 중 하나

권오승 도핑콘트롤센터장은 "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 연구원으로 이곳에서 일했는데 23년 만에 센터장으로서 대구세계육상대회를 치른다는 점에서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센터는 WADA가 규정한 금지약물, 그리고 금지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모두 13개 공인분석법을 바탕으로 하는 검사 장비를 구비하고 있다. 나날이 지능화되는 도핑에 대응하기 위해 WADA가 기존의 도핑테스트 항목 일부를 개정하고 추가함에 따라 지난해 10월 이곳 센터도 산소운반증강제류, 유전자조절제류, 혈액파라미터 분석 등에 대한 장비를 갖추고 공식인증을 받았다. 대표적으로 선수의 혈액을 미리 뽑아두었다가 다시 수혈해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혈액 도핑'을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한 준비다.

"경기 결과를 '한방'에 바꿀 수 있는 도핑 유혹은 육상뿐 아니라 어느 종목의 스포츠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금지약물 복용이란 고전적인 방법' 이외에도 최근에는 혈액 도핑이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자주 사용된 '혈액 도핑' 적발준비도 완료**

대구세계육상대회가 개막하면 오전·오후 하루 두 차례 경기를 마친 선수들의 소변시료가 이곳 센터로 전달돼 온다. 각 시료에 대해 48시간 내에 검사 결과를 분석해 보고해야 한다.

따라서 모두 25명인 센터 인원은 장비를 점검하고 인원을 보충하며 대회 개막일부터 도착하기 시작할 소변시료를 맞을 준비에 한창이다. 특히 경기종목이 많은 날 선수들의 소변시료가 한꺼번에 몰릴 것에 대비해 약 한 달 전부터 별도로 5명의 인력을 충원해 도핑시료 검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권 센터장은 "도핑시료검사를 하면 국내에서는 약 1퍼센트, 전세계적으로는 약 2퍼센트의 양성반응이 나타난다"고 전했다.

금지약물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오용되는 것이 벤 존슨이 복용한 것으로 드러나 '악명'을 떨친 근육강화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다. 남성호르몬인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적발된 금지약물 가운데 64.9퍼센트로 1위를 차지했다(2009년, WADA). 다음은 대마초 성분인 카나비노이드(7.8퍼센트), 체중감소를 목적으로 복용하는 이뇨제(6.4퍼센트) 순이었다.

권 센터장은 "도핑은 단지 금지약물 복용이나 '혈액 도핑'뿐 아니라 다른 선수에게 방법을 알려주거나 권하는 것까지도 광범위하게 포함한다"며 "그렇게 규정한 것은 반도핑이 선수 건강 보호와 도핑 탐지, 그리고 도핑 저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육상 종목 가운데 우리나라가 세계 정상급에 가장 근접한 종목이 마라톤인데, 지난 6월 정만화(51) 국가대표 마라톤 코치와 지영준(30·코오롱) 선수 등 일부 마라톤 선수가 금지약물 투여 혐의를 받아 잠시 '깜놀'한 사건이 있었다.


대구세계육상조직위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는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와 함께 대회 개막을 앞두고 도핑관리운영 인력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는 이에 대해 일부 마라톤 선수들이 투여한 것으로 전해진 조혈제가 금지약물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 곧 진화가 됐다.

도핑콘트롤센터가 국제공인을 받은 국내 유일의 도핑검사 기관이라면 KADA는 국내 유일의 도핑방지 전담기구로 국제육상경기연맹(IAAF)과 협력해 대구세계육상대회의 반도핑 시스템 운영을 맡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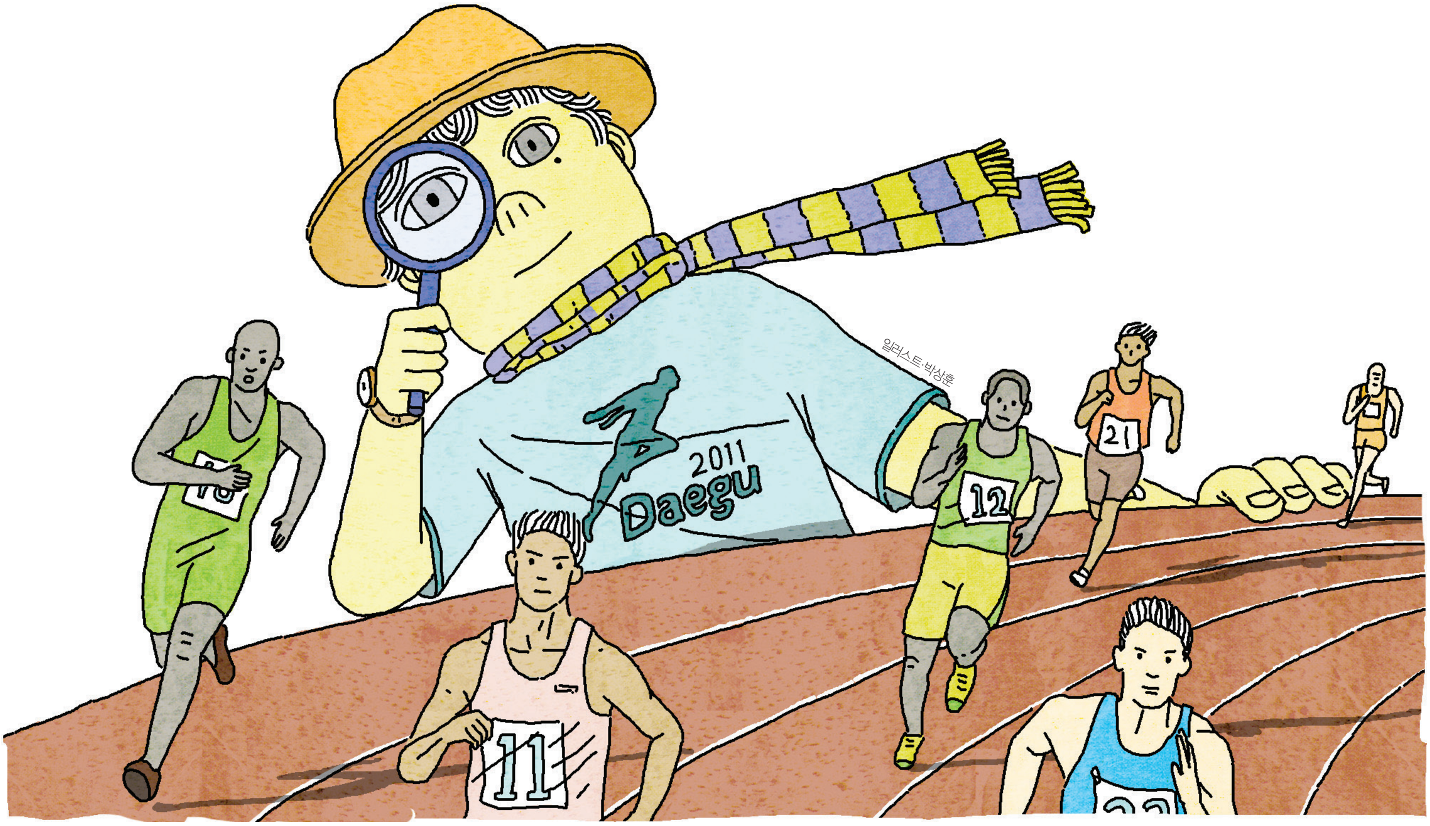
**대구엔 선수촌 등 3곳에 도핑관리시스템 설치 운영**

KADA의 이칠화 사무총장은 "무조건 모든 약물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선수도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며 "다만 치료목적사용면책(TUE) 절차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IAAF와 대구 조직위는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를 대상으로 하는 '생체여권제도'를 도입했다. 선수촌에 입촌할 때 선수들의 혈액과 소변시료를 수집해 프로필을 만든 뒤 경기 후 검사에서 얻은 결과와 비교해 차이점을 찾는 방식으로 금지약물 사용여부를 검사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KADA와 조직위에서 선발한 도핑검사관은 불시에 선수들의 도핑 검사를 할 수 있으며 대구스타디움, 선수촌, 로드레이스 코스 등 3개소에 도핑관리시스템을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KADA는 IAAF와 이러한 작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며, 대회 기간 중 소변시료를 채취해 서울의 KIST 도핑컨트롤센터로 보내고 결과를 받아 판독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 대회 개막을 앞두고 도핑관리 전문인력을 파견해 도핑검사관, 혈액채취요원 등 도핑관리운영인력에 대한 전문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G 글·박경아 기자




일러스트·박상훈

# 제일 빠른 종목? 100m X 400m 계주 O

## 초속 2미터 이상의 풍속이면 100m · 멀리뛰기는 기록 공인 못 받아

그저 열심히 뛰고 달리는 경기가 육상이다? 천만에 말씀. 육상은 인간이 육체의 한계에 도전하는 극기의 스포츠이면서 인체의 능력을 최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경기기술이 발휘되는 종합스포츠다.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육상경기 속으로 들어가 보자.



### 남자 400미터 계주 세계기록은 100미터에 9초28꼴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육상선수는 자메이카의 우사인 볼트다. 우사인 볼트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2009년 베를린 세계육상선수권대회 100미터, 200미터, 400미터계주에서 모두 우승해 올림픽과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단거리 3관왕'을 차지한 유일한 스프린터다. 그는 또한 3종목 모두 세계최고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육상경기의 속도경쟁은 흔히 100미터를 중심으로 비교되며, 100미터 기록이 가장 빠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우사인 볼트가 가진 단거리 3종목의 세계최고 기록을 비교해 보면 단위당 평균속력이 가장 빠른 종목은 100미터(초속 10.44미터)가 아닌 400미터계주(초속 10.78미터)다. 400미터계주를 1백미터당 평균기록으로 환산하면 9초28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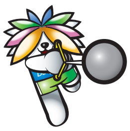
### 가장 멀리 날아가는 투척종목은 창던지기

원반, 창, 포환, 해머 등 4대 투척경기는 고대 부족 간 전쟁에 대비한 훈련과정에서 스포츠로 발전했다. 투척경기는 힘을 바탕에 둔 파워와, 턴과 스텝의 조화로 이루어지는 기술의 경기다. 투척선수는 신장이 크고 단단한 근육을 가진 체형으로, 육상선수들 중 가장 우수한 체격을 가진다.

창던지기는 투척종목 중 가장 멀리 날아가는 종목이다. 해머와 포환은 2미터13센티미터, 원반은 2미터50센티미터의 원형으로 제한

된 구간 내에서 던져야 하지만 창던지기는 약 30미터의 도움닫기가 허용되고 무게도 남자 8백그램, 여자 6백그램으로 가장 가볍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 투척 각도는 45도로 날아갈 경우 정확한 포물선을 그리면서 가장 멀리 날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제로 창은 가볍고 길기 때문에 45도로 던져지면 공기저항을 크게 받게 되면서 머리 부분이 들려 멀리 날 수 없게 된다. 최근 미국 UCLA 스포츠생체공학연구소는 정상급 창던지기 선수들은 대부분 31~33도 사이로 던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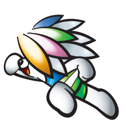
### 해머던지기는 피겨스케이팅과 사촌지간

투척종목인 해머선수는 몸을 빠르게 회전하는 유연성을 바탕으로 무거운 중량의 해머를 빠르게 회전시킴으로써 구심력을 최대한 증가시켜야 한다. 해머 무게는 남녀 각각 7.257킬로그램과 4킬로그램. 지름 2.135미터의 서클 내에서 하체를 고정한 채 머리 위에서 1미터가 넘는 연결줄에 달린 해머를 회전시켜 원심력을 최대한 이용해 투척한다.

회전력을 바탕으로 한 운동능력의 관점에서 해머던지기와 피겨스케이팅은 유사점을 갖는다.

요즘 대부분 해머선수들이 회전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4회전 기술은 1964년 도쿄올림픽에서 일본선수들이 처음 시도했다.

4회전 기술. 많이 들어보지 않았던가? 김연아의 라이벌이었던 일본의 아사다 마오(주쿄대)는 같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2004년 아테네 올림픽 해머던지기 금메달리스트 일본의 무로후시 고지로부터 '회전에 관한 비법'을 전수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근육이 가장 고통스러운 경기는 400미터

400미터 경기는 단거리종목 중 가장 긴 거리를 달린다. 단거리종목은 레이스 중 들이마신 산소가 실제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전혀 이용되지 못하는 무산소 에너지로 달린다.

100미터는 대부분 이미 저장된 에너지로 레이스를 마칠 수 있다. 200미터의 경우에도 소비 에너지의 상당 부분은 저장 에너지를 이용하며 레이스 후반에 가서 추가 에너지를 분해하는 시도를 하게 된다.

단거리를 최고속도로 계속 달리면 젖산이란 피로물질이 안정 시보다 훨씬 많이 축적되기 시작한다. 따라서 400미터 경기는 무산소 상태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능력의 한계에 이르게 되면서 체내에 저장된 에너지가 거의 고갈되고, 새로운 피로물질도 많은 양 축적되어 근육이 극도의 고통에 빠져들게 된다.

이런 탓인지 지금까지 올림픽과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단거리 3종목을 혼자 휩쓴 선수는 없다. 100미터, 200미터 2관왕은 우사인 볼트, 칼 루이스, 제시 오웬스 등이 있지만 200미터와 400미터 2관왕은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우승자 마이클 존슨이 유일하다.



### 육상선수 심장은 크기와 기능이 일반인의 1.5배

육상선수는 계속된 훈련을 통해 더욱 튼튼한 스포츠 심장을 완성하게 된다. 초음파 심장 촬영기술(Echocardiography)로 심장 구조와 기능을 관찰한 결과 대부분의 육상선수는 좌·우 직경이 일반인의 거의 1.5배 이상 증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좌심실 크기가 현저하게 증가되어 혈액을 한 번에 짤 수 있는 양이 많기 때문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중·장거리와 마라톤선수의 심장에서 나타나며 한 번에 짜 내는 혈액량이 많기 때문에 심장박동을 자주 하지 않아도 되는 효율적인 심장기능을 나타낸다. 마라톤선수의 안정 시 심박수는 현저하게 감소하여 40~45회 정도에 불과하지만 일반인은 60회 이상을 나타낸다. 심장 무게도 차이를 나타내는데, 중·장거리 혹은 마라톤선수는 3백50~4백그램에 이르지만 일반인은 약 3백그램에 불과하다.



### 기온과 바람은 변수이자 '웬수'

초속 2미터 이상의 풍속이면 100미터와 멀리뛰기는 기록이 공인되지 못한다. 두 종목 모두 개인의 집중력과 리듬감은 물론 기온, 바람, 공기저항 등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대기압이 낮은 고지에서는 공기저항이 적기 때문에 멀리뛰기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해발 2천2백미터 고지에서 개최된 1968년 멕시코 올림픽에서 밥 버몬이 수립한 8미터90센티미터는 무려 23년 동안 깨지지 않았다. 1991년 도쿄세계선수권대회에서 마이크 포웰이 칼 루이스와 명승부를 벌이면서 새롭게 수립한 8미터95센티미터도 여전히 깨지지 않고 있다.

또 더위와 습도를 함께 고려한 온도지수(WBGT)가 섭씨 28도 이상이면 마라톤경기를 금지시킨다. 고온과 함께 습도가 높으면 발한과 호흡에 의한 증발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다. 습기 찬 대기는 수증기의 포화정도가 높게 되면서 피부표면과 대기 사이의 수증기압 차이가 현저히 감소하여 땀의 증발이 어렵게 됨으로써 증가하는 체온의 효과적인 조절이 어렵게 된다. 엄청난 에너지 열량을 생성하기 때문에 만약 체온조절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완주 후에는 약 1백20도까지 체온이 증가될 수 있다. G 글·김기진 (계명대 체육학과 교수)

기획재정부
ftahub.go.kr



# 대학(원)생 한·미FTA 에세이 공모전

2011.7.18~8.25

7월 1일 한·EU FTA 발효와 최근 한·미 FTA 비준안 상정 예정 등에 따라 대학사회 내의 FTA에 대한 관심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해 기획재정부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가 '한·미 FTA 에세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에 FTA 시대를 살아가는 국내외 대학(원)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1. 응모 자격

- 2011년 6월 현재 국내외 대학(원)에 재학·휴학 중인 학생
  - 개인 또는 팀 단위(3인 이내)로 응모 가능
  * 팀 단위로 응모할 경우, 참가자 모두 응모 자격을 충족해야 함

## 2. 에세이 주제

- 대주제: 한·미 FTA로 달라지는 우리 생활

① **달라지는 고용환경**
(예시) 한·미 FTA 발효로 달라질 나의 취업전략

② **달라지는 소비환경**
(예시) 한·미 FTA 발효로 달라질 장바구니 물가와 쇼핑 노하우

③ **달라지는 중소기업환경**
(예시) 한·미 FTA 시대에 내가 꿈꾸는 수출입 성공기

④ **한·미 FTA로 달라지는 우리나라 위상 체험기 또는 가상의 사례**
(예시) 외국 여행 중 외국인이 먼저 알아본 우리 위상

※ 제시된 4개의 소주제 중 1개 이상을 포함하고,
(예시)를 참고해 구체적이고 참신한 주제로 작성

## 3. 시상 내용

| 상 구분 | 시상 팀 | 시상 내용 |
|---|---|---|
| 대상 | 1팀 | 기획재정부 장관 상장 및 상금 500만원 |
| 최우수상 | 1팀 | 기획재정부 장관 상장 및 상금 300만원 |
| 우수상 | 1팀 | 기획재정부 장관 상장 및 상금 200만원 |
| 장려상 | 3팀 | 기획재정부 장관 상장 및 상금 각 100만원 |

※ 수상 대상작이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 4. 공모 일정

- 공고·접수: 2011년 7월 18일~8월 25일
  - 8월 25일 오후 6시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
- 에세이 심사: 2011년 8월 26~30일
- 결과 발표 및 시상: 2011년 9월 첫 주
  - 시상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5. 응모 요령

- 에세이 분량: 첨부된 파일 형식에 따라 10장 이내
  - 요약본 1장은 별도로 함

- 제출 서류
  - 참가신청서
  - 에세이 요약본과 본문(한 개의 파일로 작성)
  - 신청자의 재학·휴학증명서(2011년 6월 현재), 신분증 사본
  * 팀 참가인 경우 참가자 전원의 서류 제출

- 접수 방법: 우편 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 우편 접수
  * 주소: (우 427-725)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
  정부 과천청사 기획재정부 302호 무역협정본부 교육홍보팀
  「대학(원)생 한·미 FTA 에세이 공모전」 담당자 앞
  * 필요 서류 모두 1부씩 출력, 원고 파일이 들어있는 USB 동봉
  - 이메일 접수
  * 주소: hshan@mosf.go.kr

## 6. 유의 사항 및 기타 내용은 FTA종합지원포털(www.ftahub.go.kr) 참고





기획특집

# 따뜻한 당신들이 있어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이 먼저 위로받아야 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불편한 장애우이면서
어렵게 모은 재산으로 더 어려운 이들을 돕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재능을 나누고 봉사의 삶을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함께하는 삶이 더욱 아름답다는 것을 깨우쳐주며
사회의 그늘진 곳에 따뜻한 온기를 퍼뜨리는
사랑의 민들레 씨앗 같은 이들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귀한 상을 주었습니다.
그분들의 감동과 희망의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일러스트 · 유현호








국민이 직접 추천해 선정한 국민추천포상 수상자들이 7월 15일 청와대에서 훈포장을 받고 기념촬영을 했다.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창열, 고준석, 배정철, 안병원, 박종월, 정상모, 서영남, 하충식, 노재목, 양재옥, 강경환, 노금자, 김용철, 조천식, 김태옥, 조성부, 신명남, 유옥진, 안효숙, 오주영, 편사범씨. 앞줄 휠체어를 타고 있는 길분예(왼쪽), 이옥선씨.

# 나눔·봉사가 넘치는 사회가 다가옵니다

## 고 이태석 신부 등 24명에 국민추천포상… '사랑 바이러스' 확산 기폭제로

소리 없는 나눔과 봉사, 선행으로 그늘진 곳에 빛을 비추며 세상을 밝고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게 우리 국민이 칭찬과 격려를 보냈다. 국민추천포상제란 이름으로. 어려운 환경을 이겨낸 평범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기에 상을 받는 사람도, 그들이 받는 상도 더욱 빛났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꼽히는 남부 수단에서 손수 병원을 짓고 그 지역에서 유일한 학교를 건립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한 의사이자 성직자인 고 이태석 신부님. 48세로 영면한 고인의 생애는 영화 〈울지마 톤즈〉를 통해 우리 국민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서 자신이 위로받아야 할 입장인 황금자(87) 할머니. 평생을 가정부, 폐지수집 등 일을 하며 어렵게 모은 전 재산 1억원을 장학금으로 기부한 사연은 나눔이 결코 여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교훈을 주었다.

뿐만 아니다. 사고로 양손을 잃은 장애인이면서도 염전을 일궈 자신보다 어려운 처지의 장애인과 노인을 도와온 강경환(51)씨. 보따리 장사 등으로 힘들게 모은 15억원대 재산을 대학에 기부한 길분예(92) 할머니, 평생 모은 재산을 자식이 아닌 국가의 미래를 위해


조선DB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나눔과 봉사의 주인공 포상 행사에서 고 이태석 신부의 모친 신명남 여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한 뒤 손을 잡고 있다.

내놓은 김용철(89)·조천식(87) 할아버지. 노숙인과 형편이 어려운 어린이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해 온 서영남(75) 할아버지.

이 밖에도 장애인, 노숙인 등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는 많은 분. 이분들이 어려운 이웃에게 내놓은 게 어디 돈뿐이고 밥뿐이랴. 살아보자는 의지와 희망도 함께였다.

**'함께 살아보자는 의지와 희망'이 더 큰 선물**

정부는 각박한 현실 속에서도 꿈과 희망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분들의 공적을 우리 국민이 직접 추천해 포상하자는 취지로 지난 3월 7일 '정부포상 국민추천제'(이하 국민추천포상)를 도입하고 6월 28일 국무회의에서 24분을 포상 대상으로 선정했다. 고 이태석 신부님을 제외하곤 대부분 택시기사, 트럭운전사, 일식집 혹은 국숫집 주인과 같이 이름 없는 보통 사람들이었다.

이분들은 지난 7월 15일 청와대에서 훈장과 포장, 표창을 받았다. 국민추천포상제는 과거 유사한 제도가 있었으나 유명무실해졌다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월 8일 국무회의를 통해 "일반 국민과 서민들이 훈포장에 많이 추천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고 주문, 다시 도입됐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3월 7일부터 한 달간 인터넷과 우편 및 방문 접수 등으로 국민추천을 받은 결과 총 3백61건이 추천되어 국민추천포상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포상 및 격려 오찬에서 "지금까지는 이런 훈포장을 정부가 지정했지만 이번부터는 국민이 스스로 추천했기 때문에 진정으로 국민이 인정한 봉사라고 생각한다"고 국민추천포상제의 의미를 강조했다.

**국민추천포상 수상자들**

| 훈격 | 성명 | 공적 요지 |
|---|---|---|
| 국민훈장 | 故 이태석 | '수단의 슈바이처'로 불린 신부님 |
| | 황금자 (87) | 평생 모은 1억원을 장학금으로 기부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
| | 강경환 (51) | 양손을 잃은 장애를 극복하고 이웃을 돕는 소금장수 |
| | 길분예 (92) | 보부상 등으로 모은 15억원대 재산을 대학에 기부한 할머니 |
| | 김용철 (89) | 국가안보를 위해 85억원의 재산을 기부한 독지가 |
| | 조천식 (87) | 국가 과학기술 발전 위해 100억원대 재산 기부한 경제인 출신 자선가 |
| | 서영남 (75) | 노숙인과 빈곤층에게 자활의지까지 함께 주는 무료급식소 대표 |
| 국민포장 | 노금자 (65) | 어머니와 딸의 마음으로 34년간 봉사해 온 자원봉사의 여왕 |
| | 이옥선 (81) | 근검절약해 모은 돈 2천만원을 장학금으로 기부한 위안부 피해 할머니 |
| | 정상모 (70) | 반평생을 쉼 없이 어려운 이웃과 지역사회에 헌신해 온 봉사자 |
| | 김태옥 (63) | 국내외 저소득층에 '희망의 빛'을 찾아주는 안경유통회사 회장 |
| | 박종월 (60)<br>안효숙 (59) | 전국을 다니며 무료로 안경을 맞춰주는 부부 안경사 |
| | 조성부 (58) | 대학생에게 장학금·기숙사를 제공하고 청소년 교화에 힘써 온 스님 |
| | 하충식 (51) | 검소한 생활 속에 나눔과 지역사회 봉사를 솔선한 병원장 |
| | 배정철 (48) | 번 돈을 '통 크게' 사회에 환원하는 주방보조 출신 일식집 사장 |
| 대통령표창 | 유옥진 (58) | 서울 용산 쪽방촌에서 헌신적인 방문간호를 펼친 기간제 간호사 |
| | 안병원 (60) | 심장병 어린이 459명에게 새 생명을 찾아준 40년 경력 택시기사 |
| | 오주영 (58) | 중증 장애인의 발이 되고 재활을 도와주는 초록봉사대장 |
| | 양재옥 (54) | 26년간 기부와 선행을 실천해 온 모범 기업인 |
| | 노재목 (51) | 매일 300여 명에게 무료급식을 하는 식당 주인 |
| 국무총리표창 | 김창열 (59) | 노숙인과 홀로 사는 노인 등을 찾아 봉사하는 무료급식소 대표 |
| | 편사범 (58) | 19년 동안 소외 어린이들에게 동화구연을 해온 아버지봉사회장 |
| | 고준석 (48) | 2교대로 일하며 사회봉사로 보람을 찾는 회사원 |

이 대통령은 이어 "여러분은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분이다.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낀다"며 "다른 모든 이웃을 생각하는 여러분의 활동이 주변으로 퍼져 우리 사회가 따뜻해지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이 대통령 "국민이 진정으로 인정한 봉사"**

대통령의 말마따나 나눔은 다른 나눔을 낳는다. 동백장을 받은 황금자 할머니가 어렵게 모은 1억원을 2006년 서울 강서구 장학회에 기부한 이후 강서구 직원과 주민들 사이에 매달 1만원씩 기부하는 운동이 일어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이들에게 수여된 훈장은 국민이 주었기에 더욱 빛났고, 마땅히 받을 만한 이들이 받았기에 더욱 영예로웠다. 이웃을 둘러보면 어디서나 만날 법할 평범한 분들, 이분들에 대한 보다 큰 격려와 칭찬은 보다 많은 국민이 나눔과 봉사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일에 참여하는 일일 것이다. G

글·박경아 기자




고 이태석 신부의 후임으로 남수단 톤즈에서 활동중인 우경민 신부(왼쪽 아래)가, 이태석 신부가 창단한 '브라스 밴드'와 함께 사진을 찍었다. 오른쪽 사진은 생전의 이태석 신부(오른쪽 아래)가 '브라스 밴드'와 함께 찍은 사진.

## '남수단의 슈바이처' 고 이태석 신부

# 그는 떠났어도 '고귀한 봉사'는 이어진다

영화 〈울지마 톤즈〉로 널리 알려진 고(故) 이태석 신부가 선종한 지 벌써 1년반이 흘렀지만 그의 향기는 곳곳에 남아 있다. 대한민국의 한 공무원은 그로 인해 삶이 바뀌었다. 남수단 톤즈마을의 청소년 1천5백명도 그가 세운 학교에서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

'이태석과 함께(WithLeeTaeSuk)'. 인터넷 포털 다음에 있는 수단어린이장학회의 카페 주소다. 수단어린이장학회는 아프리카 남수단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하고 책걸상과 의약품 등을 기부하는 비영리 법인이다. 카페회원 수만 2만여 명에 달한다. 수단어린이장학회 카페를 이끄는 카페지기는 이재현(51)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국장)이다.

이재현 정책관이 수단어린이장학회를 이끌게 된 것은 이태석 신부와의 인연 때문이다. 이 정책관이 이태석 신부를 처음 만난 것은 지난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가 당시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국 요원으로 가족과 함께 아프리카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서 생활하면서부터다. 이 정책관은 당시 나이로비의 가톨릭 한인회장을 맡고 있었다.

이 정책관은 마침 나이로비로 물건을 사러 온 이태석 신부를 알게 됐다. 두 사람은 어릴 적 가난하게 자란 환경은 물론 연배도 비슷했다. 기타와 악기에 관심이 많은 것도 똑같았다. 이후 둘은 아프리카땅에서 우정을 나누는 '지음(知音)'이 됐다. 이 정책관은 내전에 시달리던 남수단 아이들의 참상을 이태석 신부로부터 전해듣는다.

### 내전에 휩싸인 아이들에게 총 대신 악기 쥐여줘

이 정책관은 이태석 신부의 손에 이끌려 2003년 2월 톤즈마을을 찾는다. "하서방(하나님) 백이 있으니 같이 가자"는 이 신부의 보챔 때문이었다. 나이로비에서 톤즈까지는 비행기로 4시간 이동해서 다시 육로로 5시간을 가야 했다. 톤즈에 도착한 후 그의 인생은 1백80도 바뀐다. 결국 그는 지난 2003년 6월 귀국해 '수단어린이장학회'란


조선DB

인터넷 카페를 연다.

이태석 신부와의 인연을 바탕으로 지난 2005년에 쓴 〈아프리카의 햇살은 아직도 슬프다〉란 책에서 이재현 정책관은 "여태껏 예수님이 보이신 '빵의 기적'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웠지만, 이곳(톤즈)에서 바로 이해했다"며 "한국의 수많은 사제 중 한 분이 가난한 이곳에서 5천명을 먹이고 있었다"고 회고했다.

한 공무원의 인생을 바꾼 이태석 신부는 지난 7월 15일 국민추천포상 국민훈장 무궁화장(1등급)을 받았다. '수단의 슈바이처'로 불리는 이태석 신부는 지난해 9월 국내에 개봉돼 상당한 반향을 일으킨 다큐멘터리 영화 〈울지마 톤즈〉의 실제 모델로 널리 알려졌다.

### 선종 후 장학회 회원 8천여 명으로 늘어

부산서 태어나 인제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의 길을 걷던 이태석 신부는 지난 2001년 사제 서품을 받고 가톨릭 신부가 됐다. 어릴 적 동네 성당에서 한센인을 돕는 다미앵 신부의 일대기 영화를 본 것이 계기가 됐다. 이후 그는 내전과 기아, 질병에 시달리던 수단으로 자원봉사를 떠났다. 살레시오 수도회 소속의 신부 겸 의사로 원주민들과 함께 손수 병원을 지었다. 하루 평균 3백명의 환자를 밤낮으로 돌봤다.

자신의 병명조차 모른 채 죽어가는 한센병 환자들에게 유일한 친구로서 신발을 만들어줬다. 급할 때는 장갑도 끼지 않은 채로 치료에 매진했다. 또 톤즈마을에 초·중·고 12년 과정의 학교를 세웠다. 배우지 못해 가난이 대물림되던 톤즈마을의 청소년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태석 신부의 꿈이었다.

남수단 최초로 35인조 '브라스 밴드'를 창단한 것도 이태석 신부다. 소년병으로 징집되던 아이들에게 총과 수류탄 대신 악기를 들게 한 것이다. 남수단은 지난 7월 9일 독립 전까지 남과 북으로 나뉘어 내전을 치렀다. 총탄이 날아다니는 와중에 이태석 신부가 아이들에게 총 대신 악기를 쥐여주자 이는 수단 전역에 신선한 충격을 불러 일으켰다.

이태석 신부는 지난해 1월 대장암으로 투병하던 중 4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자신의 건강을 팽개친 채 봉사활동에만 전념한 것이 몸을 상하게 한 것이다.

지난해 1월 이태석 신부가 선종한 지 벌써 1년반이 흘렀다. 하지만 이태석 신부의 영향은 각계각층에 퍼지고 있다. 후원금을 내는 수단어린이장학회의 회원 수만 8천여 명에 달한다. 5천~2만원까지의 소액기부자가 많다. 장학회는 이 돈으로 지난해 10월 톤즈 고등학교 설립자금을 지원하고, 11월에는 의약품과 악기를 담은 컨테이너를 톤즈마을로 보냈다. 수단어린이장학회에서 보내준 지원금과 물품의 혜택을 누리는 톤즈의 청소년들은 1천5백명에 달한다.

### 톤즈마을 주민들 "이 신부님이 그리워요"

장학회의 후원으로 지난해 12월에는 톤즈 돈보스코 고등학교를 1기로 졸업한 산티노 뎅(26) 씨를 비롯해 토마스 타반(26), 존 마옌(24)씨 등이 한국으로 유학을 왔다. 세 명의 톤즈 출신 청년들은 지난 1월에는 이태석 신부의 선종 1주기를 맞이해 열린 '슈쿠란 바바-희망으로 가는 길'이란 추모음악회에 참석해 '사랑해 당신을'이란 노래를 직접 불렀다.

'슈쿠란 바바'는 톤즈마을 언어로 '하나님 감사합니다'란 뜻이다. 당초 후원금 모집차원에서 개최한 음악회였지만 이제 이태석 신부의 삶을 되새기는 추모음악회로 변했다. 산티노 뎅 씨는 "지금은 이태석 신부님이 안 계셔도 우리와 톤즈에 계신 분들은 정말 이태석 신부가 그립습니다"고 말했다.

수단어린이장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재현 환경부 정책관은 "톤즈마을이 남수단으로 독립을 했어도 40여 개에 달하는 종족 간 갈등으로 상황이 좋은 편이 아니다"라며 "이태석 신부의 후임으로 우경민 신부가 톤즈에서 활동 중인데, 향후 남수단의 수도인 주바와 마리디 등으로 활동범위를 더 넓혀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G

글·이동훈 기자

장애인 돕는 1급 장애인 강경환 부성염전 대표

# 수익 1할은 이웃과… 세상의 소금이 된 남자

강경환 부성염전 대표는 양손이 없는 1급 지체장애인이면서도 열정적인 이웃봉사 일꾼이다. 염전 수익금의 10퍼센트를 이웃돕기에 쓰고, 자선단체를 꾸려 운영하고 있다. 장애가 있지만 검게 그을린 얼굴은 밝았다. 인터뷰 도중 가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더 많은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소금이 될 수 있겠습니까'라고 묻는 표정이었다.


변형주 기자

강경환 부성염전 대표는 자신이 도움을 받아야 할 1급 지체장애인임에도 이웃돕기에 남다른 열정을 쏟고 있다. 사진은 소금창고에서 작업하는 모습.

"염전으로 갑시다. 거기가 조용하고 얘기하기 좋아요. 먼저 갈 테니 따라오십시오."

지난 7월 15일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은 강경환 부성염전 대표는 밝은 표정으로 기자를 맞았다. 두 팔은 손을 잃었지만 능숙하게 핸들을 조종했다. 급할 것 없다는 느낌의 여유로운 운전솜씨였다. 그는 1급 지체장애인이지만 자신이 어렵게 번 돈으로 이웃돕기를 활발히 실천해 왔다. 이번 국민훈장 동백장 수훈은 그의 선행을 눈여겨본 지인들의 추천으로 이뤄졌다.

"여기가 염전인데, 보다시피 비가 와서 지금은 비어 있어요. 얼마 전까지 허리디스크로 한 20일 입원을 해서 날이 좋았어도 일을 할 수 없었죠. 훈장 받을 때도 통증 때문에 겨우겨우 갔어요. 지금은 그래도 조금 수월해졌네요."

염전 일은 건강한 사람에게도 벅찬 고역이다. 이런 일을 양손이 없는 1급 지체장애인이 하고 있다니…. 강 대표는 갖은 고생 끝에 겨우 몸에 익혔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남들보다 오래 일해야 했다. 남들이 다섯 번 삽질하는 동안 겨우 한 번을 하고, 대패는 마음먹은 대로 가지 않으니 어쩔 도리가 없었다. 염전 일을 시작해 6~7년 동안은 하루 한두 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했다. 그래야 먹고살 수 있었다.

## 초등학교 6학년 때 지뢰 갖고 놀다 양손 잃어

"내가 하고 싶어 시작한 일이 아닙니다. 제 사정을 딱하게 본 지인이 먼저 권했어요. 처음엔 부친의 농사 일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친이 돌아가시니 막막해지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부친의 지인이 염전을 빌려줄 테니 해보겠느냐고 해요. 그러겠다고 바로 답했죠. 당시 염전은 큰 소득원이었으니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해보니 너무 힘들었어요. 후회도 많이 했죠."

강 대표의 초년은 그의 마음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우연한 사고와 만남이 그의 삶을 이끌었다. 먼저 장애가 그랬다. 강 대표

가 손을 잃은 것은 초등학교 6학년 때의 일이다. 바닷가에 떠내려 온 지뢰를 무심코 가지고 놀다가 생긴 일이다. 술에 절어 하루하루를 보냈고 몇 차례나 목숨을 버리려고 했다. 하지만 이 역시 뜻대로 되지 않았다.

1980년 2월 18일, 강 대표는 우연히 〈그루터기〉라는 잡지에 실린 한 장애인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된다. 간호사로 일하던 중 감전사고를 당해 두 팔과 다리 하나를 잃었지만 용기를 잃지 않고 꿋꿋이 살아가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신앙에서 힘을 얻고 있다는 말이 무엇보다 가슴을 울렸다.

"'나도 믿어보자', 그런 맘이 불쑥 듭디다. 전에도 교회는 몇 번 나갔었죠. 하도 술 먹고 망나니짓을 하고 다니니까 형님이 억지로 끌고 갔는데, 그런다고 믿음이 생깁니까. 하지만 잡지를 본 후엔 그냥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 좌절 후 찾은 새 삶이 고마워 소금 나누기 시작

교회를 다니며 강 대표는 달라졌다. 술을 끊었고 동네에 교회를 세우는 데 주축이 되기도 했다. 근처도 가지 않던 밭에 가 농사를 배우고 글씨쓰기도 연습했다. 그의 변화에 마을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여전히 살림살이는 넉넉하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풍요로워졌다. 힘든 염전 일을 선뜻 택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마음의 변화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염전 일이 몸에 익어가던 1996년 무렵 그는 하나의 계획을 세운다.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솟아오른 것이다. 자신이 받은 것을 되돌려주고 싶었다. 좌절 속에서 살다가 용기를 얻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에 감사를 표하고 싶었다.

"서산시지체장애인협회 대산읍분회장과 함께 어려운 가정을 돌아보는데 눈물이 납디다. 저들을 품고 싶다는 마음이 절로 나더라고요. 어떻게 도와줄까 고민하다가 '그래 소금을 주자' 결심을 하고 소금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나눠주려니 운전을 해야겠기에 면허도 땄지요."

강 대표의 나눔의 길은 조금씩 넓어졌다. 장애인 가정에 소금을 나눠주는 것에서 시작해 염전에서 나온 수익금의 1할을 떼어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들을 도왔다. 살림살이가 조금 나아지자 기초생활수급자 신분을 스스로 포기했다. 관계자들이 만류하자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한푼이라도 더 나눠주라고 강짜를 부리듯이 고집을 세워 기어이 정부보조금을 반납했다.

2008년에는 스스로 자선단체인 '사랑의 밀알회'를 설립했다. 혼자 힘으로 이웃을 돕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주위의 뜻을


조선DB

강경환 대표는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용기를 잃지 않기를 바란다. 사진은 염전의 대패질 모습.

모으기로 결심한 것이다. 뜻이 있는 지인들은 순순히 강 대표에게 후원금을 맡겼다. 그동안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모습을 지켜본 마당이니 그를 의심할 까닭이 없었다.

### 자선단체도 설립… 장애인공동체 만드는 게 꿈

"저는 돈을 쌓아두지 않습니다. 그해 들어온 후원금은 그해에 다 사용합니다. 돈이 쌓이면 욕심이 생기고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한 해 1천만원가량의 후원금이 들어오는데 3백~4백 가정에 생활용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 대표는 주위만이 아니라 먼 곳의 사람들에게도 용기를 주고 있다. 그의 사연이 방송과 언론에 소개되면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그의 삶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다. 삶의 희망을 얻었다는 암환자, 사업 실패로 좌절하다 용기를 얻었다는 가장, 돕고 싶은 마음에 태평양을 건너온 독지가 등이 전화로 혹은 직접 그를 찾고 있다.

"장애인들을 위한 공동체를 만드는 게 꿈입니다. 한 30억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매일 60만명의 후원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분들이 한명당 5천원만 기부를 해도 30억원이 되거든요. 지금 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 이 꿈도 이뤄지는 날이 오리라 생각합니다." G

글 · 변형주 기자

사랑의 밀알회 후원계좌 : 수협 355-62-103149 · 예금주 강경환

## 보따리 장사로 모은 전 재산 15억 내놓은 길분예 할머니

# "난 못 배웠지만 훌륭한 인재 길러줘요"

심리학에서는 잘못된 사례를 통해 배우는 '반면교사(反面教師)'보다 올바른 사례를 많이 보고 경험하는 것이 더 좋은 교육이라고 말한다. 자신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은 우리 사회의 나눔문화 정착을 위한 '정면교사(正面教師)'다. 길분예 할머니가 바로 그런 경우다.

대전시 서구 정림동에 사는 길분예(92) 할머니는 2층짜리 상가주택 2층의 좁은 원룸에서 혼자 산다. 자신이 소유한 상가주택이긴 하지만 길 할머니가 사는 공간은 방 하나, 주방 겸 거실 하나, 화장실 하나로 이뤄진 43평방미터(약 13평)의 좁은 공간이다. 한겨울에도 보일러 한 번 안 틀고, 여름에는 선풍기 하나로 지낸다.

아침식사는 인근 복지관에서 배달해 주는 도시락으로, 점심·저녁은 신김치 하나 놓고 때운다. 매일매일 여느 독거노인과 다를 바 없이 삶이 무료해서 고되지만 요즘은 자랑거리가 생겼다.

### 평생 '짠순이'로 살아도 어려운 이웃엔 도움

"나 청와대 가서 대통령한테 상 받은 거 알아요?"

지난 7월 15일 길 할머니는 수십 년 만에 서울 나들이를 했다.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추천포상 유공자 훈포장 수여 및 격려를 겸한 이명박 대통령과의 오찬 자리였다.

길 할머니는 앞서 지난 6월 보따리 장사와 폐지수집 등으로 평생 모은 돈 15억2천만원(부동산 포함)을 전액 한밭대학교에 기부한 공로로 국민추천포상자(국민훈장)에 선정됐다. 돈이 없어 대학에 붙고도 등록을 못하는 아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달라는 뜻을 담은 기부였다.


지팡이를 짚고 길을 나서는 길 할머니. 이웃들이 있어 혼자지만 혼자가 아니다.

"어휴 말도 못 해요. 이도 안 들어갈 양반이에요. 그분은."

길 할머니 소유의 상가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미숙(45)씨는 길 할머니에 대해 혀를 내둘렀다. 길 할머니 상가 임차인들 사이에서 할머니는 지독한 구두쇠로 통한다.

한번은 길 할머니와 상가 임차인들 사이에 수도요금 문제로 시끄러워진 적이 있었다. 1년 내내 거의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 길 할머니는 상수도 기본요금을 '펑펑 물 많이 쓰는' 상가의 음식점 주인들이 내야 한다고 생각했고, 임차인들은 길 할머니가 아끼려던 요금이 고작 한 달에 8백90원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너무하다"고들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푼돈에 벌벌 떠는 길 할머니도 정작 어려운 처지의 이웃에게는 도움을 아끼지 않았다.

최근 길 할머니의 상가주택에 이사 온 세입자 노정석(75)씨는 "전에 살던 곳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 싼 월세로 집을 내주셨다. 또 우리 가족 중에 당뇨로 앞을 못 보는 식구가 있는데, 할머니가 김치찌개를 끓여다 주신다"며 고마워했다.

또 다른 상가 임차인은 "길 할머니의 상가건물은 낡았어도 목 좋은 자리에 있는데다 주변 시세보다 임대료가 저렴해 가능하면 오래 이 상가에 있고 싶다"고 말했다.

지나치다 싶어 보일 수도 있는 할머니의 '짠순이' 기질은 할머니의 굴곡진 삶에서 비롯됐다.

### 큰돈 거저 얻어 잘못된 사람들 보고 기부 결심

충남 금산군 의촌리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난 길 할머니는 일곱 살 무렵부터 맨손으로 나물을 캐다 팔아 집안 살림을 도와야 했다. 열아홉 살에 시집을 간 할머니는 친정보다 더 없이 사는 시댁살림에다 노름에 빠진 남편 때문에 2년 뒤 갓 백일 된 아들을 업고 집을 나와야 했다. 이후 아들이 일곱 살 되던 해 시댁에서 찾아와 데려갔


어렵게 홀로 살아온 세월을 탓하는 대신 평생 모은 재산을 기부해 보람을 얻는 것으로 삶의 빈자리를 채운 길예분 할머니. 부지런하고 착하게 살면 잘산다는 평범하지만 가볍지 않은 교훈을 들려주었다.

고, 그 후 모든 일을 혼자 해결하며 살아야 했다.

지금은 기력이 떨어져 폐지수집을 잘 못 하지만, 젊은 시절 할머니는 새벽 네 시 반이면 일어나 직접 키운 미나리 한 보따리를 이고 두 시간을 걸어 시장에 내다 팔아 돈을 모았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조금씩 키운 살림이 이렇게 불어난 것은 할머니 말을 빌리면 "먹을 줄 모르고 입을 줄 모르고 벌기만 했기 때문"이었다.

길 할머니는 현재 혼자 지내고 있지만, 가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성인이 되어 왕래하게 된 아들 박모(73)씨도 있고, 손자(46), 증손자도 있지만 이들 모두 2~3년 전 발길을 끊었다고 했다.

길 할머니는 이번 기부도 "가족 모르게 했다"고 말했다. 혹시 가족이 서운해하지는 않겠느냐는 질문에 길 할머니는 "줄 만큼 줬다"고 답했다.

길 할머니는 자신 몰래 부동산(현 시가 21억원 상당)을 빼돌린 아들 박씨가 올 때마다 크게 화를 냈고, 아들 박씨는 재산을 다 물려주지 않는 어머니를 원망했다고 한다. 유학까지 보낸 손자는 1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받은 뒤에는 찾아오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도 길 할머니가 유산을 대학에 기부하기로 한 건 자식들이 미워서가 아니다. 주변 사람들이 대가 없이 큰돈을 얻은 뒤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많이 봐왔기 때문이다.

"요즘 대학교에 붙고도 월사금(등록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다니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대학교가 지금도 부자지만 더 부자가 되면 어려운 학생들에게 돈이 더 가겠지 싶어서 기부를 하기로 했지요."

이날 길 할머니는 세금을 내러 은행에 가야 한다고 했다. 굽은 허리 탓에 키가 초등학교 3학년생만 한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집을 나섰다.

**"공돈은 액운… 부지런하고 착하게 살면 돈 붙어"**

"구십이 넘도록 살 줄은 생각도 못 했어요. 예순 살에 위암수술을 받았는데, 그때 병원 원장님이 석 달 더 살 수 있다고 했어요."

길 할머니는 "마음씨를 착하게 쓰면 명도 길어지나 보다"고 했다. "누가 밥해 주는 사람도 없고 해서 내 손으로 밥해 먹어 가면서 평생을 혼자 살았어요. 남같이 잘 먹기를 했나 잘 입기를 했나…. 이제 깨달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부지런하고 마음씨 착하게 쓰면 못 살 사람 없어요." G

글과 사진·남창희 객원기자

서울 동자동 쪽방촌 방문간호사 유옥진씨

# “하루 15가구꼴 방문… 이젠 다정한 이웃”

유옥진씨는 서울 용산 쪽방촌에서 일하는 방문간호사다. 유씨는 용산구 동자동 8백80여 가구 쪽방촌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그가 나서서 무료치료를 받게 한 것이 모두 7백94건이다. 이제 그는 ‘전국구 쪽방촌’으로 불리는 동자동 쪽방촌의 ‘큰언니’가 됐다. 그는 “아직도 쪽방촌 주민을 돌보기에는 역부족”이라며 겸연쩍어 했다.




이경민 기자

유옥진씨는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8백80가구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 유씨는 “쪽방촌 주민 65퍼센트가 고혈압과 당뇨병을 앓고 있어 치료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유옥진(58)씨는 서울 용산구 쪽방상담센터에서 일하는 기간제 간호사다. 지난 2009년부터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을 돌보고 있다. 남산 자락의 동자동 쪽방촌 골목을 누비며 주민들의 건강을 챙기는 것이 유씨의 일이다. 에이즈나 결핵환자도 많이 살아 간호사들도 기피하는 쪽방촌이지만 유씨는 쪽방촌의 ‘큰언니’ 역할을 묵묵히 해 내고 있다.

유씨는 국민추천포상자로 선정돼 지난 7월 15일 청와대에서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지난 7월 26일 서울역 인근 용산구 쪽방상담센터에서 유씨와 만났다. 그의 손목엔 포상으로 받은 시계가 걸려 있었다. 유씨는 인터뷰 전 “자신보다 훌륭한 사람이 더 많다”고 몇 번이나 손사래를 쳤으나 기자의 설득에 입을 열었다.

경남 마산 출신인 유씨는 마산보건대를 졸업하고 부산에서 간호사로 일했다. 유씨가 보건소의 기간제 방문간호사로 일한 것은 2007년부터다. 마침 남편이 퇴직한 터라 유씨는 과거 간호사로 일한 경력을 되살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렇게 관악과 영등포 보건소를 거쳐 2009년 용산보건소로 왔다.

### 8백80여 가구 혼자 돌봐… 7백94건 치료 연결

동자동 쪽방촌을 돌며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살피는 것이 유씨의 일이다. 서울에 수백 가구의 대규모 쪽방촌이 있는 곳은 용산을 비롯해 영등포, 남대문, 종로, 동대문 등 5곳. 그중 용산구 동자동은 ‘전국구 쪽방촌’으로 통한다. 서울역과 가까워 전국 각지의 빈민들이 몰려들기 때문이다. 겨울철에는 노숙자들도 추위를 피해 이곳 쪽방촌으로 들어온다.

동자동 쪽방촌에 등록된 가구는 모두 8백80여 가구. 이 중 낮에 일을 나가는 주민들을 제외하고 유씨가 관리하는 주민은 5백여 명이다. 쪽방촌 주민의 90퍼센트는 남성으로 연령대는 40~60대라고 한다. 결핵을 앓고 있는 환자만 30여 명으로, 에이즈 환자도 더러 있다. 하지만 이들 쪽방촌 주민의 건강을 돌보는 방문간호사는 유

씨가 유일하다.

"매일 오전 9시30분부터 12시까지 15집 정도를 방문합니다. 혼자서요. 처음 5~6개월 정도는 너무 무서웠어요. 돌발행동이 위험하거든요. 저도 간호사이기 이전에 여자잖아요. 가끔 술에 만취해 '방에 좀 있다 가라'고도 하고, '칼로 목을 딴다'며 겁을 주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겁이 날 법도 하지만 유씨는 묵묵히 쪽방촌 주민들과 얼굴을 익혀 갔다. 유씨를 걱정하는 가족들에게는 "어려운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을 돕는다"고 설득했다. 매일매일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얘기를 하니 남편과 자식들도 유씨를 이해했다고 한다. 물론 남편이 퇴직한 상황에서 기간제 간호사를 하며 받는 1백70여만원의 월급도 가계에 적지 않은 보탬이 됐다.

## 과음·흡연으로 주민 대다수가 고혈압·당뇨

"쪽방촌 주민들은 건강상태가 극히 불량하다"는 것이 유씨의 설명이다. 고혈압과 당뇨 환자가 전체 주민의 65퍼센트다. "밥을 해 먹을 상황도 안되고 불규칙적으로 무료급식을 이용하다 보니 식이조절이 안된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또 그는 "과음과 흡연, 짠 식단으로 병을 키우고, 이로 인한 당뇨 합병증으로 발가락이 썩어 들어가는 사람도 많다"고 했다.

특히 여름철 폭염은 쪽방촌 주민은 물론 그에게도 고역이다. 겨울보다는 덜하다지만 지내기가 힘들다. 지난해 여름에는 60대 중국 국적의 조선족 남성이 쪽방촌에서 폭염으로 죽었다. 유씨는 "공복에 술을 마시고 자면 수분과 체력이 고갈돼 죽는다"고 말했다. 기자와 만난 7월 26일 유씨는 폭염을 대비해 각 가정에 나눠줄 생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치료를 요하는 사람들을 병원과 연결시켜 주는 것도 그의 업무다. 주민센터의 긴급의료비를 지원받게 하고, 무료수술을 하는 병원과 환자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다. 지금까지 연결해 준 것만 7백94건이다. 유씨는 "2009년 오른쪽 어깨에 아기머리 2개만 한 혹이 달린 연골주위조직암 환자를 병원과 연결시켜 무료로 수술받게 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씨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걱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정부로부터 일정 부분 의료비를 지원받는다. 반면 수급자가 아니면서 장애를 갖고 있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들은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길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유씨는 "이들은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이라며 "이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DB

유옥진씨가 서울 동자동 쪽방촌에 사는 최용철씨 부부를 찾아 최씨의 손을 잡고 있다. 유씨는 말기암 환자인 최씨의 재활을 돕고 있다.

그래도 2007년부터 방문간호사제를 실시한 이후 상황이 많이 개선됐다고 한다. 유씨는 "'고독사(孤獨死)'란 말이 많이 줄어들지 않았냐"라고 반문했다. 그래도 이들을 돌보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다. 전국에 있는 기간제 방문간호사는 모두 2천7백여 명. 서울의 경우 보건소당 10명 정도의 방문간호사가 있는데 쪽방촌을 담당하는 인원은 1~2명이 고작이다.

## "쪽방촌 전담 간호사 1~2명… 턱없이 부족"

게다가 유씨와 같은 기간제 간호사는 최일선에서 일하지만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대개 계약직으로 채용돼 2년이 채 안돼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때문에 기존의 보건소가 아닌 다른 보건소와 새로 계약을 맺는데 이때 쪽방촌 주민들의 건강관리에 공백이 생긴다고 한다.

"다른 지역에서 쪽방촌에 오면 처음 온 간호사의 경우 적응하는 데만 5~6개월이 걸려요. 환자들의 이름과 얼굴을 익힐 만하면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 문제가 벌어지는 셈이죠." 유씨는 "쪽방촌 주민들은 낯을 많이 가리고 극도로 경계감을 나타낸다"며 "관리하는 방문간호사들이 너무 빈번히 바뀌는 것도 문제"라고 걱정했다.

"쪽방촌 환자들을 돌볼 때마다 '내가 이 사람들에 비해 가진 것이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나보다 어린 사람들이 일은 안 하고 놀고 있을 때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죠. 하지만 힘들다고 생각하면 이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일이 아닌 진짜 봉사를 꼭 해 보고 싶습니다." G

글·이동훈 기자

## 20여 년간 50억원 기부한 배정철 일식집 사장
# "나누다 보니 결국 내게 다 돌아옵디다"

가난을 딛고 자수성가한 배정철(48) 일식집 '어도' 사장은 20여 년 전부터 나눔의 삶을 실천해 왔다. 그동안 그가 동네 노인정과 고향 노인들을 위한 식사대접, 장학금, 장애인시설·요양원·병원 돕기, 선천성 얼굴 기형 어린이 수술비 지원 등에 기부한 돈은 50여억 원에 달한다. 그는 자신의 수훈이 기부를 어렵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위한 용기를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다섯 살 때 돌아가셨다. 가난한 홀어머니는 여섯 남매를 키워야 했다. 고향(전남 장성)에서는 먹고살기가 어려워 초등학교 때 온 가족이 서울로 올라왔다. 도봉동 판잣집에서 살면서 초등학교를 겨우 나온 소년은 중학교 진학은 꿈도 꾸지 못했다.

열여섯 살 때 소년은 삼촌의 소개로 동네 일식집에 취직했다. 주방보조 자리였다. '음식점에서 일하게 됐으니 배는 곯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연탄 1백50장을 하루에 두 번씩 갈고, 밤늦게까지 온갖 허드렛일을 했다. 월급 2만5천원을 받던 시절에 매달 2만4천원씩 적금을 부었다. 사장이나 손님들이 쥐여주는 돈도 꼬박꼬박 적금했다.

주방 일을 하게 되면서부터는 언젠가 독립하게 될 날을 염두에 두고 고객관리를 시작했다. 식당에 오는 손님들의 신상명세를 작성해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에 정성껏 만든 음식을 직접 배달했다. 그렇게 5천여 명을 관리했다. 스물다섯 무렵 그는 일식업계에서 알아주는 주방장이 됐다.

**열여섯에 주방보조… 서른 살 때 일식집 인수**

서른 살이 되던 1993년, 그에게 기회가 왔다. 손님이 없어 고전하던 한 일식집 사장이 그를 주방장으로 스카우트했다가 아예 가게를 넘기겠다고 제의했다.




조선DB

5월 3일 서울 연건동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초밥바자회에서 초밥을 만드는 배정철 사장. 초밥바자회 수익금은 전액 병원에 기부한다.

"제가 관리하던 5천여명의 고객들에게 음식점을 냈다고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문을 연 첫 달에 그 중 절반가량이 다녀갔을 겁니다. 6개월 만에 보증금 1억원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꾸준한 사회봉사활동을 인정받아 지난 7월 15일 국민포장을 받은 배정철(48) '어도' 사장이다.

배정철 사장이 '나누는 삶'을 살게 된 것은 어머니의 영향이 컸다. "어려서부터 어머니께서 어려운 살림 가운데서도 이웃에 크고 작은 도움을 주는 것을 보면서 '작은 것이라도 남에게 베풀면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은연중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조선DB

배정철 사장은 지난 3월 11일 저소득층 환자 지원금 1억원을 서울대병원에 기부했다.

### 작은 것도 이웃과 나누는 어머니의 영향 받아

주방장 생활을 할 때부터 배 사장은 손님 한 사람당 1천원씩 기부한다는 생각으로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첫해에 3천여만 원이 모였다. 이 돈을 단골손님인 김석화 서울의대 교수의 소개로 함춘후원회에 기부했다. 함춘후원회는 선천성 얼굴 기형아들의 수술비를 후원해 주는 단체다. 지금까지 함춘후원회에 기부한 돈은 10억여 원, 그로 인해 혜택을 본 환자는 3백85명에 달한다.

2007년부터는 매년 두 차례 서울대 연건동병원과 분당병원에서 초밥바자회를 열고 있다. 이렇게 해서 모이는 2천여만 원은 전액 병원에 기부한다. 작년부터는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도 초밥바자회를 열기 시작했다. 이 외에 가톨릭의대·순천향의대에도 매년 2천만원을 기부하고 있다.

2008년부터는 고향인 전남 장성의 장성고·삼계고, 친구가 교사로 있는 전남 순천 순천고, 어도 인근에 있는 서울 영동고에 장학금을 기부하고 있다. 이렇게 나가는 돈이 매년 6천만원.

그 밖에 장애인시설·요양원 등에 매주 쌀과 생선을 보내고, 논현동·신사동 일대 노인들에게 매달 한 번씩 무료로 음식을 대접한다. 고향 마을의 노인들에게도 매년 한차례씩 음식 대접을 한다.

이런 식으로 그동안 기부한 돈이 50여억 원이 넘는다. 더 놀라운 것은 배 사장이 '어도'에서 벌어들이는 돈을 모두 기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가족은 배 사장 소유의 빌딩에서 나오는 임대료 수입으로 생활한다.

배 사장은 2009년부터는 매년 2천만원의 기금을 조성해 전·현직 직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어느 날 화장실에 앉아 있다가, 직원들이 '우리한테나 좀 잘하지'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장이 직원들 복지는 뒤로한 채 남만 돕는다는 것은 안 될 일'이라는 생각에 직원 자녀를 위한 장학금을 조성하게 됐습니다."

배정철 사장은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살다 보니 다 내게 돌아오더라"고 말했다. "'어도'를 연 지 얼마 안 됐을 때 동네 건달들이 돈푼이나 뜯어보려고 몰려와 소란을 피운 적이 있어요. 그때 식사대접을 받고 있던 노인정 어르신들이 그들을 호되게 꾸짖어 쫓아 보내시더군요. 이 사실이 구청·경찰서 등에 알려지면서 '어도'는 '특별관리대상'이 됐습니다.

과거 일식집이 한창 호황이던 때에 벌이가 커지는 만큼 씀씀이도 커졌다가 1997년 IMF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 등을 겪으면서 뒷감당을 못 하고 무너진 사람을 여럿 보았어요. 하지만 기부를 하느라 씀씀이를 키우지 않은 덕분에 경제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눔은 결국 남을 위한 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 "기부는 마음만 먹으면 보통 사람도 할 수 있어"

나눔은 배 사장에게 자신을 아껴주는 고객들과의 인연을 이어가는 또 다른 방법이기도 하다.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많은 분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 수가 많아지면서 예전처럼 일일이 인사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분들께 제가 이 사회를 위해 무엇인가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야말로 그분들에 대한 보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국민포장을 받은 데 대해 배정철 사장은 "안 보이는 데서 저보다 훌륭한 일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과분한 상을 받게 되어 그분들께 죄송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나눔에는 크고 작고가 없지만, 기부라고 하면 왠지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인생을 정리할 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기부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의 수상이 '기부는 보통 사람들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G

글·배진영 기자




한준호 기자

10년 동안 자비를 털어 2만여 명의 시력을 검사해 주고 무료로 안경을 맞춰 선물해 온 박종월·안효숙 부부. 박씨는 "든든한 후원자가 돼 주는 처남(가운데·안원주씨)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 10년째 '찾아가는 안경맞춤 봉사' 박종월·안효숙 부부

# "강원도… 소록도… '안경버스' 누빕니다"

중년의 부부가 25인승 버스를 끌고 전국 방방곡곡을 달린다. 차가 멈춰 서는 곳에는 어김없이 눈이 편치 않은 노인들이 있다. 버스에 올랐다 내려오는 노인들의 얼굴엔 웃음꽃이 핀다. 박종월·안효숙 부부는 10년간 2만여 명에게 안경과 함께 희망을 선물해 온 나눔과 봉사 천사다.

"심사에 참여하셨던 분이 저희 부부가 상 받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스갯소리로 '한 사람만 줬으면 부부싸움 날 뻔했다'고 하셨어요."

국민포장 사상 최초의 부부 수상자인 박종월(62) 안효숙(51)씨 부부는 10여 년간 '찾아가는 안경맞춤 봉사'(이하 안경봉사)로 눈이 불편하거나 시력이 좋지 않은 2만여 명의 노인에게 '광명을 찾아준' 주인공이다.

부부는 한 달에 네다섯 번, 개조한 25인승 차량을 이용해 전국을 돌며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노인, 불우청소년, 재소자 등의 시력을 검사해 주고 그에 맞는 안경을 무료로 맞춰 주는 봉사를 해 오고 있다. 부부가 봉사를 위해 움직인 거리만도 벌써 지구 세 바퀴를 돌 정도다.

"'안경봉사'는 우리가 아니어도 그 누군가는 꼭 했어야 할 일이에요. 내가 가진 달란트를 누군가와 나눌 수 있는 것은 축복이고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상소감을 묻자 박종월씨는 이렇게 말했다. 1999년 서울 구의동 강변 테크노마트에 안경점을 개업한 부부는 늦은 나이에 대입 검정고시에 나란히 합격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후 2000년 당당히 김천대 안경광학과에 입학했다.

부부는 학과 강의를 통해 '약시나 사시 등은 일곱 살 이전에만 발견해도 쉽게 치료가 가능해 평생 건강한 눈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취학 전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무료 시력검사 봉사를 하자'고 약속했다.

**'이동식 시력검사' 25인승 버스로 어디든 달려가**

하지만 막상 봉사를 다니다 보니 '안경봉사'는 어려운 노인들에게 더욱 절실한 일임을 깨달았다. 약시나 사시 어린이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인들은 대부분이 시력을 잃어 가면서도 교정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 신자인 부부는 2002년 본격적인 '안경봉사'를 위해 25인승 버스를 시력검사 및 안경제작 기능을 갖춘 '이동식 시력검사 버스'로 개조하고 전국 산간 오지 마을을 찾아가 안경맞춤 봉사활동을 펼쳤다. 강원도에서 제주도까지 그야말로 '전국 방방곡곡 찾아가는 봉사'였다.

아무리 남을 돕는 봉사라고 해도 시작 당시에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있었다. 시력검사에 안경 무료 제작까지 해 주다 보니 '영업방해'를 이유로 지역 안경점의 반발이 있었다. 하지만 박씨는 "'안경봉사'가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이후에는 오히려 지역 안경협회가 돕겠다고 나서기도 했다"고 전했다.


조선DB

'찾아가는 안경원'으로 개조한 25인승 버스. 부부는 자택을 '희망나눔센터'로 만들었다.

부부의 '안경봉사'는 단체나 지역 교회에서 신청을 받아 진행하고 있다. 대개 30~40명으로 한정한다. 인원을 한정하는 이유는 "30~40명이 하루에 시력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적정인원이기도 하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봉사를 하고 싶기 때문"이라는 게 박씨의 설명이다. 10년 동안 꾸준히 진행해 온 봉사다 보니 후일담도 많다.

"지난달 소록도에 갔을 때 한 늙은 모자를 만났어요. 아들은 60세, 노모는 86세였죠. 노모가 한센병으로 소록도에 들어온 지 60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얼굴도 다 녹아내린 노모의 시력을 측정하고 안경을 맞춰서 씌워 주니 엉엉 우시더군요. '잘 보인다'면서. 우리 부부가 봉사를 멈출 수 없는 이유와 그곳에 간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됐습니다."

부부는 안경봉사가 있는 날이면 새벽 4시쯤에 일어나 짐을 챙긴다. '봉사이기 때문에 약속시간을 더욱 정확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이 부부의 철칙이다.

**한 달에 네다섯 번 봉사, 후원 없이 자비로 진행**

때로는 안개 낀 지리산을 지나기도 하고, 악천후가 이어지는 고속도로를 달리기도 했지만 약속을 못 지킨 적은 10년 동안 딱 한 번 있었다. 그것도 아내 안씨의 축농증 수술 후유증으로 지혈이 안돼 벌어진, 어쩔 수 없는 경우였다. 이 때문에 미뤄진 봉사는 이튿날 바로 진행했다.

부부는 2006년에 아예 서울 집을 정리하고 전국 각지로 봉사활동 다니기가 용이한 지역인 경기도 이천으로 이사했다. 이후 2009년엔 이천 자택에 '희망나눔센터'를 세우고 아예 봉사를 본업으로 하고 있다.

한 달에 네다섯 번 봉사를 다니고 주중에는 안경제작 후 택배까지 보내다 보니 사실 부부가 안경점을 직접 운영하는 것이 어려워 현재는 처남이 운영을 도맡아 하고 있다. 부부는 "유일한 스폰서가 있다면 처남일 것"이라며 웃는다. 10년 동안 후원도 받지 않았다.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고집스럽게 후원을 고사하는 이유에 대해 박씨는 "좋은 의미라 하더라도 후원이라는 것 역시 받다 보면 실수할 수 있다"면서 "하나님이 이 봉사가 계속되길 바라신다면 여건을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부부는 앞으로 북한이나 어려운 나라로도 '안경봉사'를 떠나 볼 작정이다. "언제까지 봉사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부부는 "운전을 하고 돌아다닐 수 있는 70세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느냐"며 환하게 웃었다. G

글·박근희 기자

## 인천 노숙자 무료 급식소 '민들레국수집' 서영남 대표

# "잘 먹었다고 말해 주면 그게 밥값이죠"

인천에 사는 서영남씨는 '민들레국수집'이란 무료급식소를 운영한다. 서영남 대표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무료급식소인 민들레국수집을 운영하며 노숙자와 끼니를 잇기 힘든 사람들에게 9년째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서 대표는 "우리집을 찾는 손님들은 모두 VIP"라고 말했다.



천주교 수사 출신인 서영남 '민들레국수집' 대표는 "좀 더 의미있는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 정든 수도원을 떠났다"고 말했다.

"음식을 남기지 않고 맛있게 드시면 나이, 신분, 종교 차별없이 누구든지 하루에도 대여섯 번씩 오셔서 드실 수 있습니다. 밥을 드시고 나가실 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란 한마디가 저희 가게의 밥값이죠."

지난 7월 26일 인천 동구 화수동 민들레국수집에서 만난 서영남(57) 대표는 계란말이를 부치며 기자를 맞이했다. 서 대표는 지난 2003년 4월 인천에서 무료급식소인 민들레국수집을 열었다. 개업 후 그는 지금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노숙자와 잘 곳이 없는 사람, 끼니를 잇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무료로 음식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7월 15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은 서 대표는 "사실은 상을 받지 않으려고 했는데 교도소에 있는 친구들에게 탄원서를 써 줄 때 국민훈장이 도움이 된다 해서 상을 받기로 마음을 바꿨다"고 수줍은 듯 말했다.

### 교도소 찾는 목·금요일 빼곤 매일 문 열어

민들레국수집을 찾는 사람들은 대개 노숙자나 인근 쪽방촌 주민들이다. 무료식당의 손님이지만 서 대표와 그의 부인 강베로니카(53)씨는 이들을 'VIP'로 부른다. 소외되거나 무시당하는 느낌을 주지 않기 위해서다.

"스물두 살이 되던 해 천주교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수사생활을 하다 만 25년이 되던 2000년 11월 가방 하나 달랑 들고 수도원을 나왔죠." 그는 "좀 더 의미 있는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서 오랜 시간 정들었던 수도원을 떠났다"고 말했다. 그래서 민들레국수집을 찾는 단골손님들은 그를 '서 수사님'이라고 부른다.

수도원을 나온 그가 제일 처음 찾은 곳은 경북 청송에 있는 청송교도소(현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도소에 갇힌 사람과 사형수들을 돌보던 그는 2003년 우연히 동인천역 근처에서 웬 사람들이 음식을 나눠 주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됐다. 서 대표는 "그때 그 광경을 보고 '어떻게 길에서 음식을 나눠 줄 수 있을까' 하고 큰 감동을


민들레국수집 서영남 대표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손을 흔들고 있다.

받았다"고 말했다.

당시 그의 수중에는 3백만원이 전부였다. 그래서 그는 반찬으로 단무지와 김치만 준비해도 되는 국숫집을 열기로 마음을 먹었다.

"3백만원으로는 도저히 밥집을 열 수가 없었죠. 하지만 개업 후 이내 국숫집을 밥집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우리 집을 찾는 손님들한테는 국수가 맞지 않아요. 요즘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하려고 국수나 죽을 먹지만, 우리 집을 찾는 손님들은 국수나 죽은 배가 빨리 꺼지기 때문에 밥을 찾는 편이거든요."

국수 대신 밥을 제공하지만 정작 가게 이름은 '민들레밥집'으로 바꾸지 않고 '민들레국수집'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그는 "언젠가 우리 손님들도 '다이어트해야 하니 밥 말고 국수 주세요'라고 해서 국수를 대접할 수 있는 날을 기다리고 있다"며 "그래서 '민들레국수집'이란 간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영남 대표는 가게를 찾는 손님 한사람 한사람의 이름을 기억한다. 하루에 민들레국수집을 찾는 사람들은 줄잡아 3백~5백명이다. 가끔은 손님들의 이름을 부르며 "이제 술 좀 그만 먹어야 되지 않겠어"라며 건강을 챙기는 말도 잊지 않는다.

## 간판은 국수집이지만 국수 대신 밥 제공

서 대표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밥을 대접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 대접을 해 주는 것"이라며 "어릴 때 어머니가 아무리 맛있는 반찬을 해 줘도 삐치면 절대 안 먹지 않느냐"라며 말을 이었다.

"우리 사회는 밥 주면서 생색내고, 줄 세우고, 복음을 전한답시고 찬송가를 부르게 하면서 사람을 체하게 합니다. 배고픈 이들에게 눈앞에 밥을 두고 그렇게 하는 것은 가혹한 행동입니다. 우리 식당은 제가 성당을 다니니까 그 흔적은 있지만, 기도를 하라고 강요하거나 줄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민들레국수집은 정부의 지원도 받지 않는다. 예산확보를 위한 프로그램 공모도 하지 않는다. 후원회 조직이나 봉사자 조직도 없다. 대신 도움을 주고 싶은 사람이면 누구나 봉사를 할 수 있고 후원도 할 수 있다. 그는 "지금까지 쌀 떨어질 걱정을 한 적은 없다"며 "오히려 이 많은 것을 언제 다 나눠 주나 고민한다"고 웃었다.

"동네분들이 천사예요. 자신들도 어려운데 아침에 가게 앞에 반찬을 몰래 두고 가시곤 하죠. 홈페이지에 있는 계좌번호로 후원을 해 주기도 하고요." 그는 대신 "부자들이 생색내면서 주면 안 받는다"며 "동네분들과 도움을 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서 대표는 지난 2008년부터는 청소년 공부방 '민들레꿈공부방'도 시작했다. 국숫집 앞을 서성거리고 도망가기만 하던 길거리 아이들을 위해서였다. 또 지난 2009년 7월에는 천주교인천교구재단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노숙자들을 위한 문화공간인 '민들레 희망지원센터'도 설립했다.

## 노숙자들을 위한 '독후감 발표회'도 가져

"사람은 기본적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지 않고, 의식주가 충족됐을 때 변화를 꿈꿉니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들에게 문화적 활동을 지원하고 싶었죠. 이제는 저희 식당에서 밥만 먹고 가던 노숙자들이 샤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낮잠도 자고 음악, 영화, 책 등 문화활동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 대표는 지난해부터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매일 독후감 발표회를 열고 있다. 노숙자들의 문화적 활동을 지원하고 말하는 능력을 키워 주기 위해서다. 독후감 발표자에게는 권당 3천원의 독서장려금도 준다. 그는 "분위기가 마치 큰 도서관 같다"며 "하루에 독서장려금으로만 10여만원씩 나간다"고 말했다.

"옛날 거지들은 깡통만 들고 다녀도 밥을 먹을 수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서로 이겨야 하는 적으로 판단하는 사회 분위기 때문이죠. 이런 분위기가 사람들을 모두 외톨이로 만들고 있어요. 민들레국수집에 있는 사람들 역시 모두 잘살아 보려고, 성공하려고 아등바등하다가 철저한 외톨이가 된 사람들입니다."

대신 그는 민들레국수집을 찾는 손님들에게 "아등바등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말도 잊지 않는다. 밥을 먹던 노숙자들도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인다. 그는 인터뷰를 마치면서도 "어떤 사람은 남에게 손톱만큼도 손해 보지 않으려고 기를 쓰는데 그런 사람들은 거의 잘살지 못하고 죽는다"며 "외톨이는 성공하더라도 절대 행복한 사람이 아니다"고 말했다. G 글·김선영 인턴기자 / 사진·김승완 기자

# 대기업·부유층, 나눔에 더 적극 나서야

## 정부 주도의 재정만으론 부족… 우리 고유 향약의 재조명도 중요

최근 한국 사회는 치유가 힘들 정도로 사회 갈등의 병이 깊어지고 있다. 하지만 현대 산업사회에서 이 같은 사회적 갈등은 종전의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대신 시민과 기업의 자원봉사와 나눔활동이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남수단 톤즈마을에서 자원봉사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준 고(故) 이태석 신부가 그 대표적 예다. 변변한 사회적 지위를 갖지 않았으면서도 봉사와 나눔에 앞장서는 보통 사람들도 많이 있다.

국민 10명 중 9명은 우리 사회의 갈등 수위가 심각하다고 본다. 불신과 대립으로 인한 세대간, 계층간, 지역간, 종교간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국민 대다수는 향후 이 같은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빈부의 양극화, 정치권의 이전투구, 타 종교를 무시하는 행위는 갈등의 주 요인이다. 전통적 가족 기능이 쇠퇴한 현대 산업사회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사회문제는 종전의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사회문제 해결에는 사회구성원의 연대적 책임과 자발적 참여가 요구된다. 그러한 실천 방법 중 하나가 자원봉사와 같은 나눔활동이다.

### 자원봉사로 정부와 협력적 동반자 관계 형성

최근 국민추천포상 국민훈장(무궁화장)을 받은 고(故) 이태석 신부가 그 대표적 예다. 이태석 신부의 남수단 톤즈마을에서의 자원봉사가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처럼 말이다. 자원봉사와 나눔활동은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 서로의 공통된 인식과 해결을 위한 노력을 통해 시민공동체사회를 건설할 수 있게 한다.

자원봉사는 민간자원의 동원 측면에서도 현실적으로 요청된다. 노숙인과 청소년·노인 문제는 한정된 정부의 재원과 인력으로는 모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시민의 연대적 책임과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 이를 가능케 해 자원봉사를 제도화시켜 추진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을 설정할 수 있다.

첫째, 상호보완성의 원칙이다. 자원봉사활동은 먼저 정부와의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공공과 민간부문이 협력하는 가운데 자원봉사의 역할을 분담해 상호보완성을 갖게 하는 것이다. 복지수요는 급속히 증가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상호 간 유기적 협조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면 서비스의 중복과 대상자 누락이 발생할 수 있다.

둘째는 자율성의 원칙이다. 보조금과 프로그램 운영지원금 등 정부 자금이 유입됨에 따라 정부의 간여가 시작될 수 있다. 가능한 한 자원봉사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한다. 정부가 비간섭주의적 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셋째, 전문성의 원칙이다. 자원봉사는 전문가의 도움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 물론 단순한 자원봉사자도 필요하다. 하지만 자원봉사자 개개인에게 만족을 줘 지속적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넷째로 지역사회 중심의 원칙이다. 지역사회 중심의 자원봉사는 우선 지역사회의 특수성을 적절히 반영하고 지역주민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 노력해야 그 효용을 갖는다. 자원봉사가 대외 전시용이 아닌 자원봉사의 생활화를 이루어낼 때 비로소 소속감과 유대감이 강화된 지역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 지역 내 다수 시민의 참여를 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 미국에서는 봉사 활성화하는 기업 선호도 높아

최근에는 자원봉사활동에서 기업의 이른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역할도 강조된다. 기업이 본연의 임무인 이윤추구 외에 윤리·도덕적으로 지역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하는 데 참여하는 것이 사회적 책임이라 보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에서 1백56개 기업체를 조사한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이 조사에 따르면 자원봉사가 활성화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직원의 사기가 3배 이상 높다고 한다. 구직자들 역시 기업 평판과 사회적 책임감이 높은 기업에서 일하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국내 기업 대부분은 체계적 자원봉사에 대한 내외부적 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이에 미국촛불재단에서 제시한 'ACT 원리'를 기업에 적용해 볼 만하다. ACT의 첫번째는 '인식(Acknowledge)' 단계다. 기업의 모든 임직원이 자원봉사 같은 나



조선DB

대한적십자사 부녀봉사원과 삼성전기 자원봉사자들이 지난 7월 19일 부산 부산진역 광장에서 노숙인에게 나눠줄 삼계탕을 준비하고 있다.

눔활동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참여하려는 의지를 갖는 단계다.

두번째는 '실행(Commitment)' 단계로, 기업의 모든 임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지원하라는 뜻이다. 이는 사내에서도 자원봉사를 다른 핵심사업과 같이 중요하게 취급하고, 많은 임직원이 참여하도록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끝으로는 '목표(Target)'를 세우는 단계다. 기업 자원봉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끌어가야 하는지를 생각도록 하는 것이다. 주로 지역사회의 심각한 문제와 연결해 활동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 온정적 인간관계의 모성적 사회 전통 살려야

정부로부터 국민추천포상을 받은 24명은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이웃이다. 양손이 없는 장애를 안고서도 열심히 번 돈을 아낌없이 다른 장애인을 돕는 데 쓰는가 하면, 본인은 허름한 집에 살면서도 평생 모은 돈을 사회에 기부했다. 우리 사회의 많은 지도층 인사들이 봉사와 나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태석 신부 등 평범한 그들처럼 아무 조건 없이 이웃을 위해 발벗고 나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들이 더 많이 생겨야 한다.

최근 신빈곤층이 발생하고, 사회가 급속히 늙어감에 따라 복지 수요도 더욱 확대되고 있다. 복지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한 지 오래다. 정부만이 주체가 되어서는 사회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다. 오히려 지역사회 중심의 협력적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에 그 가능성을 두어야 한다.

정부 주도의 행정적 접근보다 모든 사회 구성원이 참여하는 자원봉사와 나눔문화 만들기는 이런 보편적 복지의 필수 전제조건이다.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향약, 계, 두레 같은 온정적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모성적 사회였다. 많은 시민이 자원봉사활동에 동참하면 우리 사회는 더욱 밝고 풍요로운 사회가 될 것이다. G



글 · 김통원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일본 한류의 '뉴 아이콘'… 큰 별이 떴다

## 드라마·노래 연타석 홈런 … 욘사마와 달리 젊은층도 열광

장근석이 일본을 뒤흔들고 있다. 각종 잡지는 장근석의 얼굴을 표지로 내세우고 있고, 유명 레코드점에선 카라·소녀시대 등과 함께 K팝 코너를 도배하고 있다. 한류 상점에서 장근석의 웃는 모습이 담긴 머그컵·쿠션 등을 구매하려면 줄을 서서 계산해야 할 정도다.

2011년 7월 말, 도쿄 시부야에 위치한 타워레코드는 1층 중앙 뿐만 아니라 5층 절반을 케이팝에 관한 음반·서적·잡지 등에 할애했다. 국내 걸그룹 뿐만 아니라 샤이니, 2PM 등이 좋은 자리를 차지한 가운데 장근석 역시 최근 발매한 '렛 미 크라이(Let me cry)'로 한편을 장식했다. 이 싱글은 지난 4월 발매와 동시에 오리콘 데일리차트 1위를 차지하며 남성 솔로 부문의 30년 기록을 갈아치운 곡이기도 하다.

### 일본 팬들 화제의 중심… 배용준급으로 떠올라

한류잡지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장근석에 관한 내용만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4층의 OST 전문코너에는 입구부터 장근석이 손님을 맞는다. 드라마 〈미남이시네요〉의 대형 포스터와 함께 극중에서 사용했던 기타, 장신구들이 맨 앞에 전시돼 있다.

한류의 심장인 신오쿠보 지역을 가면 그 인기는 더욱 실감할 수 있다. 길가 양쪽을 따라 생겨난 한류숍에서 장근석의 상품은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다. 평일 대낮에도 일본 여성팬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인근에서 가장 큰 규모로 운영되는 '한류백화점'의 기획지원부 이근행 과장은 "장근석 덕분에 매출이 작년에 비해 2배나 올랐다"며 "가게 문을 열기도 전부터 일본팬들이 줄을 서서 기다린다. 배용준의 전성기 때를 방불케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편의점·식당에서도 장근석을 만날 수 있다. 특히 신주쿠 인근의 한식당은 한류팬들의 정보공유를 위한 장으로 자리 잡았다. 대형 TV에는 국내 가수들의 뮤직비디오, 콘서트 실황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삼삼오오 짝을 지은 팬들은 서로의 한류 정보를 주고받았다. 대화의 중심은 역시 장근석이다. 또 이들이 먹는 음식은 뚝배기에 담긴 김치찌개, 된장찌개, 돌솥비빔밥 등이다.



장근석이 지난 6월 27일 하네다 공항을 통해 일본에 입국하자 2천여 일본 팬들이 환호하고 있다.

한식당에서 만난 도모코 요시노(42) 씨는 "장근석을 통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이제 한국 음식까지 좋아하게 됐다"며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끼리 주기적으로 모여 한류를 즐기는 게 인생의 낙"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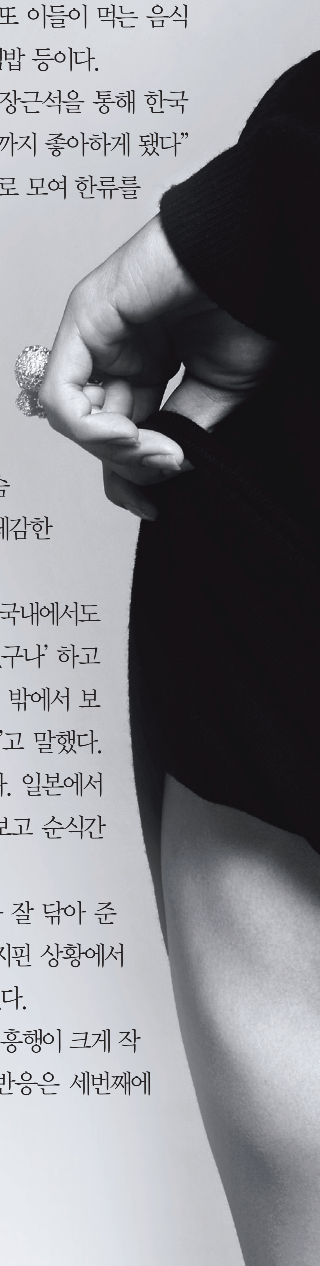
### 장근석 "선배들이 길을 잘 닦아 준 덕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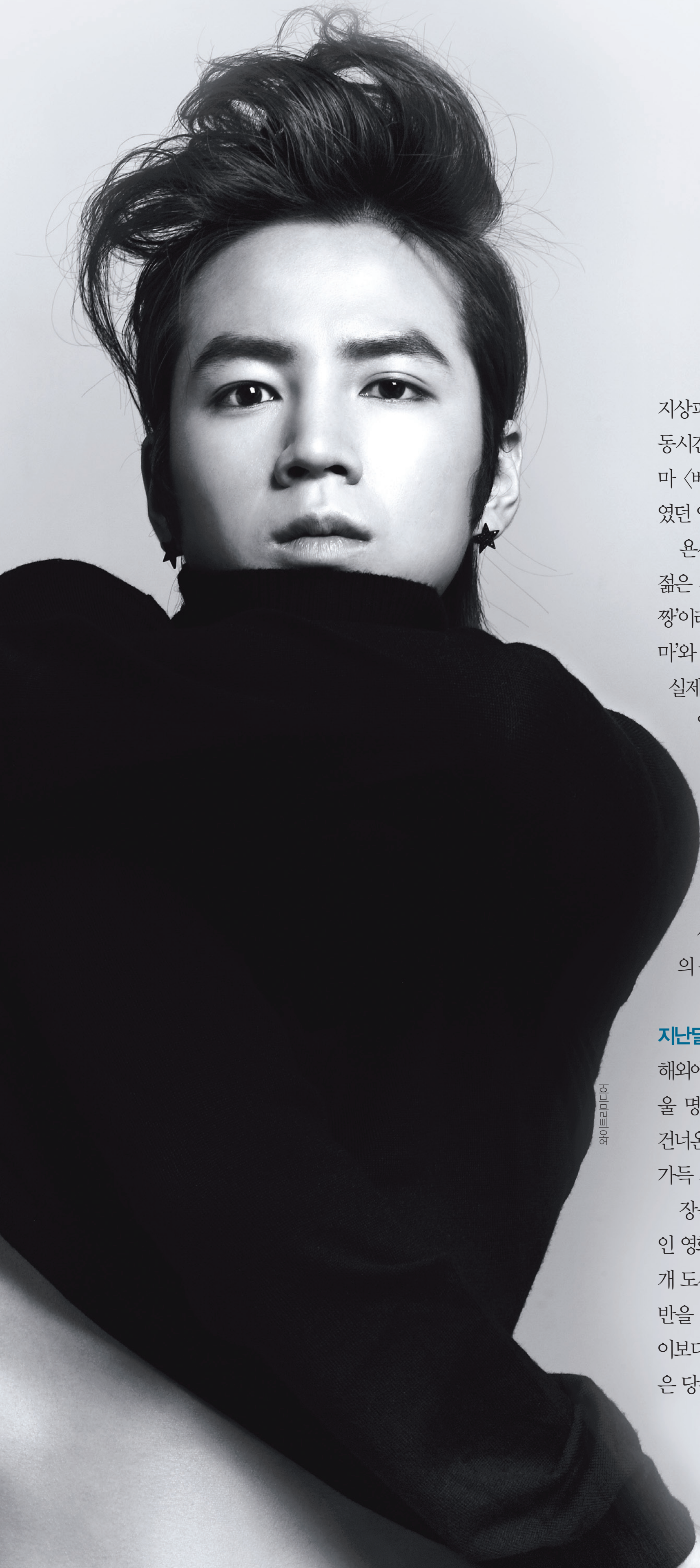
장근석은 갑자기 늘어난 한류팬들에 아직 얼떨떨한 마음이 더 크다. 드라마 〈매리는 외박중〉을 마치고 계속된 해외 팬미팅, 영화 〈너는 펫〉 촬영, 음반작업, 각종 광고 촬영 등 숨가쁘게 일정을 소화하고 있지만 현지 반응을 체감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장근석은 "최근 들어서야 일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늘어난 팬층을 알게 되면서 '내가 많이 달라졌구나' 하고 느낀다"며 "그동안 촬영 일정이 바빠서 남들이 밖에서 보고 듣은 얘기만 전달받아서 실감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젠 자신도 모를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일본에서 그저 길거리만 돌아다녀도 모든 사람이 알아보고 순식간에 일대에는 구름 인파가 몰린다.

장근석은 "배용준·이병헌 등 선배들이 길을 잘 닦아 준 덕분"이라며 "아이돌 그룹이 또 한류의 불을 지핀 상황에서 내가 후광을 받는 것일 뿐"이라고 자신을 낮췄다.

이 같은 장근석의 인기는 〈미남이시네요〉의 흥행이 크게 작용했다. 한두 차례 방영됐을 당시 밋밋했던 반응은 세번째에





와이트리미디어

지상파 TV로 편성되면서 폭넓은 연령층으로부터 인기를 모았다. 동시간대 1위를 거머쥐면서 장근석을 한류스타로 만들었다. 드라마 〈베토벤바이러스〉, 영화 〈이태원살인사건〉 등으로 차근차근 쌓였던 인지도가 '펑'하고 터지는 순간이다.

욘사마로 시작된 한류가 중년층에 한정됐다면 장근석의 열풍은 젊은 세대까지 껴안았다. 일본 젊은 팬들이 장근석을 친근하게 '근짱'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를 뒷받침해 준다. 배용준의 애칭인 '욘사마'와 다른 '친근하면서도 대중적인 스타'라는 의미를 담은 것이다. 실제로 지난 7월 5일 티아라의 도쿄 쇼케이스에 참석한 10~20대 일본팬들은 많은 한류스타의 축하 영상 중 장근석의 등장에 가장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도쿄스포츠신문〉 야마시타 야스유키(32) 기자는 장근석 신드롬에 대해 "기존의 한국 드라마 팬층과 소녀시대·카라 등을 동경하는 젊은 여성들을 흡수하면서 생겨났다"며 "앳된 외모와 달리 의젓한 말투, 자유분방한 스타일이 마음을 사로잡은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한 일본 언론은 장근석의 올해 현지 매출을 4백억원 이상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 지난달 서울 사인회선 한·중·일 팬 몰려 명동 마비

해외에서의 인기는 국내 행사에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 7월 21일 서울 명동에서 열린 팬사인회에는 국내 팬들 외에도 일본·중국에서 건너온 팬들로 북적였다. 장근석을 가까이에서 보기 위해 길거리를 가득 채운 인파 때문에 명동 일대가 마비되었다.

장근석의 하반기는 지금보다 더욱 바빠질 것 같다. 한창 촬영 중인 영화 〈너는 펫〉이 마무리되면 가을쯤 일본으로 건너간다. 일본 3개 도시에서 5회 공연으로 투어를 계획 중이다. 때를 같이해 정규 음반을 내놓고 투어 공연에서 좀 더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심산이다. 이보다 앞서 중화권에도 앨범을 발표할 예정이라서 장근석 신드롬은 당분간 아시아 전체를 뜨겁게 달굴 조짐이다. G

글 · 심재걸 (스포츠서울닷컴 연예팀 기자)




YG엔터테인먼트

2NE1은 '내가 제일 잘 나가'로 독일의 음악사이트 비바온라인클립 차트 1위에 올랐다. 스타성도 뛰어나지만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의 중장기에 걸친 치밀한 훈련 시스템도 크게 작용했다.

# 인터넷·SNS로 춤·노래 확산 '세계가 하나'

## SM-YG엔터테인먼트, 월드스타 목표로 멀티형 전문교육

K팝 한류가 해외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다. SM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등 대형기획사들의 체계적인 아이돌 가수 트레이닝 시스템 또한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 아이돌 산업은 이미 큰 성공을 거두고 있던 일본의 아이돌 산업을 벤치마킹했지만 좀 더 강력한 훈련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들의 성공 노하우를 알아본다.

지난 6월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인 SM엔터테인먼트의 파리 콘서트를 고국에서 지켜본 한국인들은 벅찬 감상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 프랑스는 물론이고 유럽 각지에서 몰려든, 언어도 피부색도 제각각인 서양인들이 우리 젊은 가수들의 춤과 노래에 눈물까지 뿌려가며 열광했기 때문이다.

한국 대중음악이 세계를 제패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었다. 전문가들은 산업화에 힘썼던 국내 대중음악계의 치밀한 전략과 한국 팬들의 특별한 열정이 만난 결과라고 분석한다.

SM엔터테인먼트는 2009년 보아를 미국에 진출시키면서 각 지역 라디오 방송사를 집중적인 홍보 대상으로 삼았다. 하지만 결과는 미미했다. 그런 SM 소속 아이돌 가수들이 이번에 새롭게 세계 각지 젊은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건, 전통적 매체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인터넷과 SNS를 통해 춤과 노래를 알리는 데 전념한 회사의 전략에 기인한다.

**"우리 가수들 유튜브·페이스북 등 통해 널리 알려"**

SM 이수만 대표 프로듀서는 최근 가진 인터뷰에서 "작년 LA에서 소속 아이돌 가수를 이끌고 콘서트를 하면서 인터넷과 SNS를 통한 입소문의 힘을 절실하게 깨달았다"며 "우리 가수들을 TV나 라디오보다는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통해 널리 알리고 있다"고 했다. SM은 아예 10여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뉴미디어팀을 통해 인터넷과 SNS 관리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JYP, YG 등 다른 대형 기획사도 마찬가지. JYP 한수정

JYP



JYP소속의 '2PM'.




문화체육관광부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회장(오른쪽)이 지난 7월 27일 한류 확산에 대한 공로로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고 있다.

홍보팀장은 "유튜브에 '리얼 2PM', '리얼 원더걸스' 등의 채널을 만들어 멤버들의 무대 뒤 혹은 일상 속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파리 공연을 앞두고 SM이 공식 오픈한 '페이스북 SM타운'은 열흘 만에 페이스북 셀러브리티에 선정되는 인기를 얻기도 했다. 지명도, 콘텐츠의 흥미도 등을 기준으로 선정되는 페이스북 셀러브리티는 마룬5, 샤키라 등 세계적 팝스타들의 주무대였다.

대형기획사들의 체계적인 아이돌 가수 트레이닝 시스템 또한 다시 주목 받고 있다. 우리나라 아이돌 산업은 이미 큰 성공을 거두고 있던 일본의 아이돌 산업을 벤치마킹했지만 좀 더 강력한 훈련 시스템을 도입했다.

일본의 경우 길거리 캐스팅을 바탕으로 6개월 안팎의 훈련 과정을 거쳐 아이돌 가수로 데뷔시키는 경우가 대부분. 하지만 한국에서는 4~5년의 연습생 생활은 기본으로 통한다. 춤과 노래는 물론 연기에 대해서까지 전문가들의 구체적인 교육이 진행된다는 얘기다.

일본의 한 연예기획사 관계자는 "일본의 아이돌 그룹은 일단 데뷔한 뒤 팬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성장하곤 한다"며 "하지만 한국의 아이돌 그룹은 데뷔 전 상당히 완벽한 수준으로 다듬어진 상태에서 팬들을 만나는 것 같다"고 했다.

SM, JYP, YG 등 대형 기획사들이 일찌감치 세계 시장을 목표로 준비해 왔다는 점도 지나칠 수 없는 부분이다. 국내 무대는 이들에게 좁기만 했던 것이다.

SM엔터테인먼트의 창업자 이수만 회장은 초등학생이던 보아를 월드스타로 키우기 위해 어린 시절부터 훈련을 시켰고 결국 일본의 톱가수로 안착시켰다. H.O.T. 또한 90년대 후반 중국에서 일찌감치 열풍을 일으키며 한류의 원조로 큰 사랑을 받았다.

**창업자들의 해외 인맥도 한몫**

JYP엔터테인먼트의 창업자 박진영은 원더걸스를 데뷔시켜 국내에 걸그룹 바람을 일으킨 뒤, 과감하게 미국 진출을 시켰다. 미국의 인기 보이 밴드 조나스 브라더스의 오프닝 공연 기회를 원더걸스에게 마련해 줌으로써 세계 대중음악의 본산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였던 것이다. 그 결과 원더걸스는 빌보드 싱글 차트 76위에 오르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박진영은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단신으로 미국 시장에 들어가 흑인음악계의 유명 프로듀서들과 교분을 쌓아 왔다.

YG엔터테인먼트는 빅뱅과 2NE1을 앞세워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은 물론, 유럽과 미국 시장 진출도 준비하고 있다. 이 회사의 창업자 양현석 또한 해외 인맥을 넓히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G

글 · 최승현 (조선일보 대중문화부 기자)




뉴시스

지난 7월 24일 상하이 세계수영선수권 남자 400미터 자유형에서 우승한 박태환이 시상대에서 금메달을 손에 쥐며 미소짓고 있다.

# 박태환 “런던올림픽선 200m서도 일낸다”

## 상하이 세계선수권서 400m 금 이어 스프린터로도 가능성 보여

1년 남짓 앞으로 다가온 2012년 런던올림픽. 한국이 낳은 ‘수영 천재’ 박태환(22·단국대)은 2011 상하이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자신의 주종목인 남자자유형 400미터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올림픽 2연패’에 파란불을 밝혔다. 자유형 200미터에서는 불과 0.04초 차이로 메달을 놓쳤지만, 스프린터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수영 중장거리 전문 박태환의 변신이 눈부시다. 자유형 200미터는 남은 1년 조금만 더 노력하면 사상 첫 올림픽 금메달도 노릴 만한 종목으로 떠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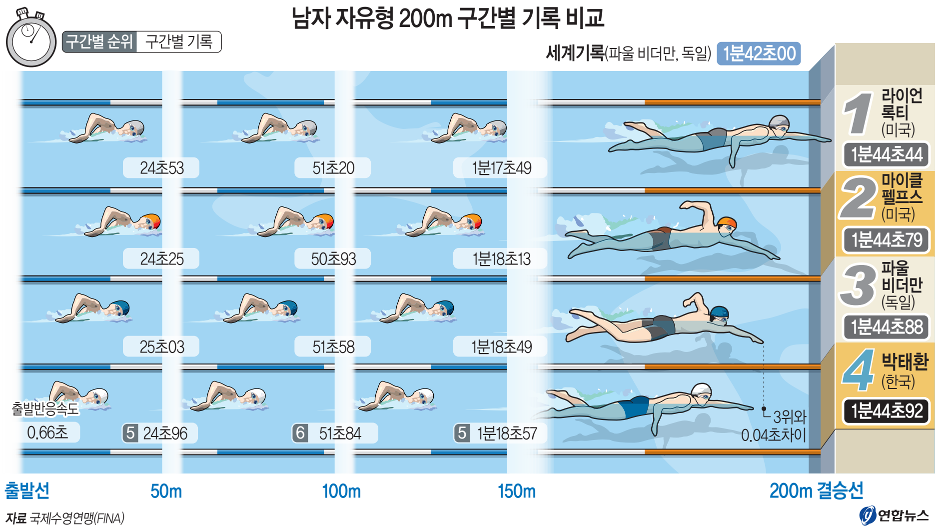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처음 출전한 자유형 100미터에서도 준결승(16강)까지 오르며 스프린터로서의 가능성까지 비쳤다. 박태환으로서는 이번 세계선수권이 런던올림픽 쾌거를 위해 자신의 단점을 재점검하고 새롭게 각오를 다지는 ‘전초전’이 됐다.

“내년 올림픽에서는 수영 인생의 꿈인 세계기록을 깨고 싶습니다.” 지난 7월 27일 남자자유형 100미터 결선 진출 실패로 400미터·200미터 등 3종목 대회 일정을 모두 마친 박태환이 밝힌 각오다. 사실 그는 400미터의 경우 “연습 때 구간별로 세계기록이 나와 이번에 세계기록을 깰 것으로 기대했다”고 아쉬워했다.

### “내년엔 세계기록으로 자유형 400미터 올림픽 2연패”

그러면서 세계기록으로 내년 이 종목 올림픽 2연패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1년 남았지만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 시간이

다. 하루하루 성실히 훈련하다 보면 자유형 400미터에서 이번 대회에서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베이징올림픽이 열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 지났다. 남은 1년도 빨리 지나갈 것이다.”




박태환은 이번 400미터에서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탁월한 천재성으로 이를 극복하며 2007 멜버른 세계선수권대회 이후 4년 만에 다시 정상의 자리에 올랐다. 물론 2008 베이징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따냈다. 남자자유형 400미터에서만큼은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한 셈이다.

우승기록은 3분42초04. 올 시즌 세계랭킹 1위 기록(3분41초48) 보유자 쑨양(20·중국)과 세계기록(3분40초07) 보유자인 파울 비더만(25·독일)을 각각 1초20, 2초10으로 따돌렸기에 더욱 값진 금메달이었다. 2009 로마 세계선수권대회 예선 12위(3분46초04)의 부진도 말끔히 씻어 냈다. 이 종목 세계선수권대회 2회 이상 우승은, 옛 소련의 블라디미르 살니코프(1978·1982년), 호주의 이언 소프(1998·2001·2003년)에 이어 역대 세번째다.

### 초반 스타트와 턴 동작 보완이 과제

400미터에서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단점이던 잠영(돌핀킥)과 턴 동작을 개선한 덕분이다. 올 2월부터 마이클 볼 전담코치 지도 아래 호주 브리즈번에서 특별훈련을 하면서 돌핀킥을 개선해 잠영 거리가 12미터 안팎까지 나오게 했다.

26일 자유형 200미터 결선에서는 6번 레인에 나선 ‘수영 황제’ 마이클 펠프스(26·미국), 세계기록(1분42초00) 보유자 파울 비더만, 라이언 록티(27·미국) 등과 어깨를 겨뤘으나 아쉽게 4위로 경기를 마쳤다. 1분44초92. 지난해 광저우아시아경기대회 때 금메달을 따내며 작성한 자신의 최고기록(1분44초80·아시아기록)에 약간 못 미쳤다.

동메달을 기록한 비더만(1분44초88)에 불과 0.04초 뒤져 아쉬움이 더했다. 록티가 1분44초44로 금메달, 펠프스(1분44초79)가 그에 0.35초 뒤져 은메달을 차지했다.

박태환은 메달을 놓친 뒤 아쉬움에 잠을 못 이뤘다고 했다. “100미터 턴 때 광저우아시아경기대회 랩타임만 나왔어도 되는데….” 자신의 약점을 잘 알고 있었다. “레이스 운영도 있지만, 40퍼센트는 턴, 60퍼센트가 스타트인 것 같아요.”

그는 400미터와는 달리, 200미터에서는 출발 신호와 함께 물속에 들어간 뒤 다시 올라올 때, 차로 치면 2단에서 3단으로 기어 가속이 오르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록티나 펠프스 등 자신보다 신장이 10센티미터 이상 큰 서양 선수들은 이미 앞서 나가 있다는 것이다. “물 밖에서 고개를 들면 록티나 펠프스 허리 부근에 제 머리가 있는 거예요. 그들 어깨까지만 제가 나와도 정말 좋은 성적 나올 것 같아요.”

박태환은 내년 런던올림픽에서 자유형 400미터에서는 ‘중국의 우상’ 쑨양, 200미터에서는 펠프스와 금메달을 다툴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쑨양은 아직 어리니까, 펠프스는 이번에 부진했지만 여전히 1인자니까”라며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들보다 더 열심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200미터에서 우승한 록티에 대해서는 “인터넷에서 동영상을 구해 볼 정도”라며 롤모델이자 넘어야 할 벽으로 꼽았다.

박태환은 이번 대회 결산 인터뷰에서 “뭐가 부족한지 깨달음을 준 대회였다. 훈련을 통해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단거리(100·200미터)에서는, 서양 선수들에 비해 10센티미터나 작은 신체적 약점(1미터83)으로 빚어지는 초반 스타트의 불리, 그리고 턴 동작의 미흡함을 과제로 꼽았다. 출발 반응속도는 0.66초 안팎으로 경쟁 상대들보다 앞선다. 그는 그것 때문에 그나마 잘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G

글·김경무 (한겨레신문 스포츠 선임기자)

개인 인공위성 발사하는 젊은 과학자 송호준씨

# “기술과 예술을 합체한 우주여행 꿈꿔요”

한국의 한 젊은이가 지난 7월 프랑스에서 인공위성 발사 계약을 끝마쳤다. 과학도와 예술가를 넘나드는 그가 만든 인공위성은 올 11월 러시아로 인계돼 내년 5월 우주로 발사된다. 이 인공위성은 인류 역사상 개인이 발사하는 첫 인공위성이다. 또 인공위성 제작과정은 많은 이의 아이디어를 모으는 오픈소스 방식으로 진행됐다.

인공위성을 우주로 쏘아 올린다? 그것도 개인이? 황당해 보이기까지 한 꿈을 가진 젊은 예술가를 만나기 위해 서울 마포구 홍익대 앞에 있는 한 카페로 향했다. 그 주인공은 과학과 예술을 접목한 분야를 개척하고 있는 송호준(33·Studio hhjjj대표)씨다.




**사상 첫 개인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송호준씨는**

**2005년** 고려대 전기전자전파공학부 졸업
**2007년** 인공위성 회사 ‘Satrec Initiative’ 근무
**2008년** KAIST(전 ICU) 공학부 대학원 수료
**현재** Studio hhjjj 운영

2005년 고려대 전기전자전파공학부를 졸업한 뒤 인공위성 회사 ‘쎄트렉아이(Satrec Initiative)’에서 일하기도 했으며, KAIST(전 ICU) 공학부 대학원을 수료한 디지털 작가다. 디지털 작가란 정보기술(IT) 장비로 음악, 예술작품을 만드는 ‘퓨전 작가’다.

평소 ‘과학은 문화다’라고 생각하던 나에게 그와의 만남은 정말 내가 듣고 싶은, 친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였다. ‘기술과 예술은 처음부터 하나’라고 말하는 그에게서 과학의 새로운 진화의 방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오픈소스 인공위성(OSSI) 프로젝트’가 조용한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게 대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여러 사람의 아이디어를 모아 개인 차원에서 인공위성을 발사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개인도 인공위성을 띄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에서 시작됐습니다.

산업혁명 시기에는 전문가와 아마추어 계층 간 격차가 굉장히 컸지만 요즘은 과거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전문가들만 가질 수 있었던 도구들을 준비할 수 있고, 온라인을 통해 유용한 지식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열정적인 아마추어가 도전할 만한 가장 상징적인 물체가 무엇일까 고민해 보니 인공위성이 딱 맞겠더군요. 우주에서 뭔가 해보자… 어린 시절 모두의 꿈이잖아요.

저는 그저 인공위성을 띄우고 싶을 뿐입니다. 견적을 내어보니 1억원 정도로 예상돼 불가능한 꿈이라고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진행 정도와 앞으로의 계획,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지난 6월 9~11일 열린 프랑스 파리 크리에이터스 프로젝트(인텔과 바이스의 예술가 지원행사)에서 OSSI를 선보인 이후 7월 21일 프랑스의 인공위성 발사 대행업체인 ‘노바나노 스페이스’의 도움을 받아 러시아우주센터와 발사계약을 마쳤습니다.

올 11월 OSSI가 러시아 우주센터로 인계되고, 내년 5월 발사됩

니다. OSSI 내부에 통신·기상·천문 관측용 장비는 들어가지 않지만,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으로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를 모스부호로 뿌릴 계획입니다. 망원경을 활용하면 지상에서도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오픈소스 방식을 택한 이유는?**

"오픈소스란 어떤 프로그램의 소스를 공개해 보다 많은 이의 아이디어를 모아 개량해 가는 방식입니다. 혼자 위성을 띄우고 즐기는 것은 재미가 없어 모두와 함께 만들어가고자 오픈소스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러한 방식 때문에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오픈소스로 모두를 위한 설명을 하고, 소통하며 진행해 나가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만나게 될 더욱 즐거운 변화에 대한 호기심이 오픈소스로 방향을 잡도록 만들었습니다."



지난 7월 프랑스 인공위성 발사대행업체 '노바나노 스페이스'와 인공위성 발사 계약을 맺은 송호준씨.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겠다고 나선 이후 대중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제가 들은 별명 중 하나가 '예술계의 허경영'입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데, 인터뷰도 하고, 다큐멘터리도 찍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개인 인공위성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저로 인해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이 참 재미있습니다.

결국은 소풍을 가는 것보다 소풍을 가기 전에 준비할 때가 가장 재미있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재미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과정 자체가 모두 본디 하나였던 기술과 예술의 새로운 진화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어떤 점에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있는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과정입니다. 우주 이야기는 언제나 지구적인 관점에서 나옵니다. 우주는 지구인의 우주이며, 지구인의 생각이 우주에 투영된 것이 바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우주입니다. 제가 시도한 OSSI는 기존의 모든 것에 대해 실험적인 질문을 던지는 첫 과정이 됩니다.

이번 시도를 통해 큰 해답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어떤 생각을 어떻게 던져볼 수 있을까, 사람들은 또 어떤 새로운 의문을 가지고 반응할까에 대한 궁금증이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G20세대에게 전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해 죽도록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몽골이 너무 좋으면 막무가내로 즐겁게 몽골을 다녀왔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나면 한국에 몽골 식당을 열어 큰 성공을 할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영재교육을 정말 많이 해왔고, 외국의 또래 아이들보다 훨씬 똑똑하고 영리합니다. 그런데 똑똑한 아이들이 부족함 없이 영재교육을 받았다면 위인들이 정말 많이 나와야 하는데, 주변을 보면 지금 위인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똑똑한 아이들에게 똑똑한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지요.

똑같은 꿈을 좇다가 다 같이 재미없는 세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추가하자면, 좋아하는 것을 찾는 것 자체도 어렵기 때문에 좋아하는 일을 끝까지 찾아다니면 좋겠습니다. 찾을 때까지 계속 찾고자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자리에 앉는 순간부터 마지막 답변까지 그의 목소리는 끊임없이 힘 있게 이어졌다.

"OSSI는 시작일 뿐입니다. 이 새로운 시작 안에 담겨 있는 것은 다음을 부르기 위한 기반입니다. 개인 인공위성이라는 그릇에 담을 수 있는 것은 앞으로도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대화하는 과정에서 변해 가고, 진화해 가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열정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G

글 · 김재혁 (연세대 천문우주학과 우주비행제어연구실 박사과정)



태평염전은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다. 광활한 소금밭과 소금창고는 증도의 대표적인 볼거리다.

## 신안 증도

# 염전 · 갯벌 · 낙조에 '흠뻑' 시간도 쉬어가는 슬로시티

슬로시티로 지정된 신안 증도. 섬에서의 하룻밤을 즐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곳이다. 끝이 보이지 않는 넓은 갯벌과 은빛 해변, 해변 뒤로는 짙은 녹음의 해송숲이 펼쳐진다. 뜨거운 햇살에 소금꽃을 피워내는 염전에서 즐거운 체험도 해볼 수 있다.









**1** 이국적인 정취가 물씬 풍기는 짱뚱어해수욕장. **2** 증도의 기름진 갯벌. 수많은 생명이 깃들어 있다.

증도는 2007년 국제슬로시티연맹으로부터 '치타슬로'(Cittaslow, 슬로시티의 국제 공식명칭) 인증을 받았다. 슬로시티는 우리말로 '느린 도시' '느리게 사는 도시'라는 뜻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전남 신안군 증도, 완도군 청산도, 장흥군 유치, 담양군 창평, 하동군 악양, 예산군 대흥 등 모두 6곳이 슬로시티로 지정돼 있다.

신안 증도는 담양, 완도군과 함께 아시아 최초로 슬로시티로 지정됐다. 느리게, 느리게 섬을 여행하다 보면 다른 이들은 발견하지 못한 증도만의 매력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증도에는 두 곳의 해수욕장이 있다. 우전해수욕장과 짱뚱어해수욕장이다. 사실 이들 해수욕장은 같은 곳이다. 올해 들어 우전해수욕장의 북쪽 한편을 짱뚱어해수욕장이라 이름붙였을 뿐이다. 엘도라도리조트가 있는 쪽을 우전해수욕장, 짱뚱어다리가 있는 쪽을 짱뚱어해수욕장이라고 부른다고 보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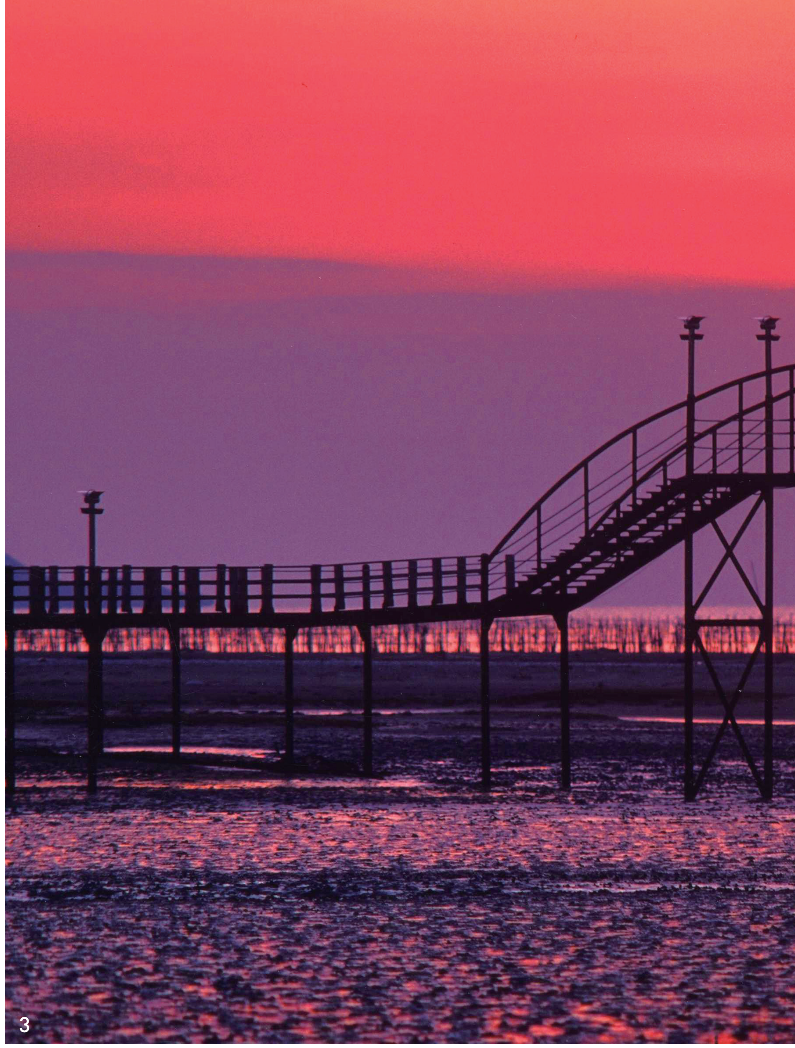
### '갯벌도립공원'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우전해수욕장의 모래는 밀가루처럼 곱고 부드럽다. 폭도 1백미터에 달하는 데다 수심도 완만해 가족과 함께 물놀이를 즐기기에 좋다. 해수욕장 뒤편 해송숲 속에 만들어진 '천년의 숲 삼림욕장'에는 50~60년생 소나무 10만여 그루가 들어서 있다.

50년 전 거센 모래바람을 막기 위해 만들었는데 90헥타르에 달하는 해송숲은 이제 증도의 또 다른 명물로 자리 잡았다. 해송숲은





**1** 소금박물관. 다양한 소금 관련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2** 증도의 소금을 만드는 것은 햇볕과 염부들의 땀이다. **3** 증도의 명소인 길이 4백70미터의 '짱뚱어다리'. 짱뚱어다리는 마치 펄 위에서 팔딱팔딱 뛰는 짱뚱어를 닮았다 해서 지어진 이름이다.

숲의 모양새가 한반도 지형을 닮았다고 해 '한반도 해송숲'으로도 불린다.

한반도 모양을 선명하게 보려면 증도에서 가장 높은 상정봉에 오르면 된다. 면사무소 옆으로 난 등산로를 따라 약 20분 오르면 정상이다.

짱뚱어해수욕장은 짱뚱어다리, 읍내와도 가까워 편의성이 높다. 짱뚱어해수욕장에는 짚 파라솔과 선베드가 줄지어 서 있는데 동남아의 유명 휴양지에 온듯한 기분을 들게 한다. 증도는 섬 어디서 걸음을 멈춰도, 어느 곳을 둘러봐도 눈과 귀가 즐겁지만 그 가운데서도 빼놓지 않고 챙겨 봐야 할 곳들이 있다.

가장 첫번째로 봐야 할 곳이 갯벌이다. 짱뚱어해수욕장 앞으로 드넓은 갯벌인 '갯벌도립공원'이 펼쳐진다.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승인된 곳으로 4백22만4천제곱미터(1백28만 평)의 광활한 면적을 자랑한다.

갯벌도립공원의 명물은 짱뚱어다리. 드넓은 갯벌 위에 세워진 4백70미터 길이의 다리로 철제 구조에 나무널판을 댄 모양새가 예쁘다. 다리 아래에 짱뚱어가 많이 살고 있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썰물 때는 다리 아래로 농게와 칠게, 갯지렁이, 짱뚱어 등 갯벌생물을 관찰할 수 있는데 다리 중간쯤에는 갯벌로 내려가는 계단도 설치되어 있다. 바닷물이 들어올 때는 바다 위를 걷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다리를 배경으로 바라보는 일몰도 아름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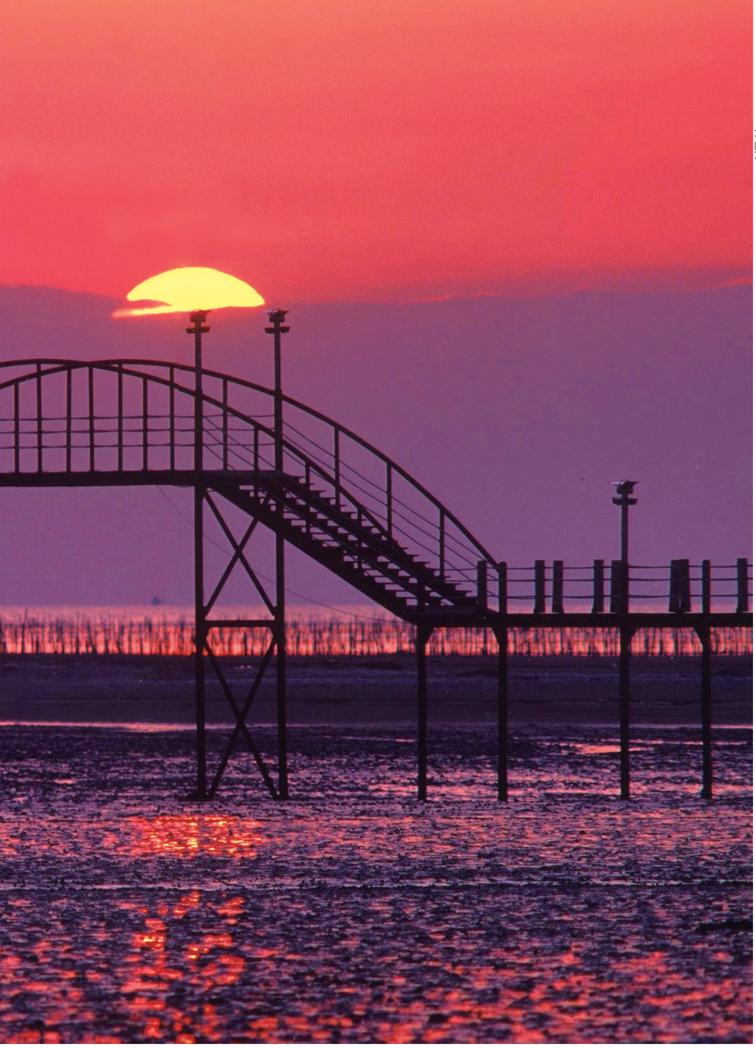
증도의 또 다른 명소는 태평염전이다. 우리나라 단일염전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4.6제곱킬로미터, 1백40만 평이나 된다. 연간 1만6천 톤의 소금이 이곳에서 만들어진다.

### 근대문화유산에 지정된 소금밭과 소금박물관

태평염전은 그 자체가 근대문화유산(등록문화재 제360호)으로 지정돼 있다. 광활한 소금밭과 이를 가르며 길게 서 있는 소금창고는 증도의 대표적인 볼거리다. 염전 전체를 조망하려면 염전 입구 야산에 마련된 소금밭 전망대에 오르면 된다. 소금밭 전체는 물론 멀리 증도대교까지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염전 주변에는 다양한 체험시설이 많다. 가장 먼저 가볼 곳은 입구에 있는 소금박물관. 박물관 안에는 소금의 역사와 제도, 소금으로 만든 짱뚱어 등의 조형물, 소금 생산 도구와 결정지(토판, 장판, 타일판)를 재현해 놓았다.

박물관 벽에는 소금장수로 위장해 살다가 고구려 15대 미천왕


이돈상



**여·행·정·보**

**가는 길** 서해안고속도로와 광주~무안 고속도로를 이용한다. 북무안IC로 나와 국도 24호선 타고 무안 해제, 지도 방향으로 가면 증도에 닿는다.

**잠잘 곳** 우전해수욕장 언덕에 **엘도라도 리조트**(061-260-3300, www.eldoradoresort.co.kr)가 있다. 유럽의 근사한 리조트를 쏙 빼닮았다. 모든 객실이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오션뷰(바다전망)로 이뤄진 것이 특징. 해수찜, 노천탕, 전통 불한증막, 한식당, 해양레포츠시설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바다를 가르며 섬 사이를 누비는 다도해 요트 크루저, 제트스키, 바나나보트, 바다낚시 등 다양한 해양레포츠도 즐길 수 있다. 읍내에 **현대장**(061-271-7528) 등 모텔과 **에벤에셀민박**(061-261-5569), **장고민박**(010-9394-4100) 등이 있다.

**먹을 곳** 짱뚱어가 맛있을 철이다. 짱뚱어탕이 부담 없이 먹기 좋다. 면사무소 인근 **고향식당**(061-271-7533), 해저유물기념비 가는 길의 **갯풍식당**(061-271-0248) 등이 있다. 민어도 제철. **보물섬식당**(061-271-0631) 등에서 맛볼 수 있다. 염전 앞에 있는 **솔트레스토랑**(061-261-2211)에서는 함초요리를 맛볼 수 있다.

**관광 문의** **신안군청 문화관광과** 061-240-8357, **소금박물관** 061-275-0829, **신안증도 슬로시티 위원회** 061-240-8884

이 된 을불의 이야기, 팔만대장경 경판의 습기를 빨아들이고 해충을 막기 위해 해인사 장경각 지반에 소금을 묻었던 이야기, 신기전 제조와 매염제로도 쓰였다는 이야기 등을 적어 놓았다.

박물관 건물은 초창기 실제 사용했던 석조 소금창고였다고 한다. 요즘은 대부분 목조창고인 데 반해 돌로 지은 모양새가 이색적이다. 1980년대 후반 목조 소금창고들이 생겨나면서 자재 창고로 쓰이다 2007년 소금박물관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소금박물관 역시 근대문화유산(등록문화재 제361호)이다.

염전 안에는 염전체험장과 염생식물원도 있다. 염전체험장에선 3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하루 두 차례(오전 11시, 오후 3시) 염전 체험을 할 수 있다. 방문 3일 전에 홈페이지(www.saltmuseum.org)나 전화(061-275-0829)로 예약하면 된다. 총 2~3시간 소요되며 체험료는 어른 7천원, 청소년과 어린이는 6천원이다.

염생식물원 역시 방문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2백20미터의 목조 관찰덱을 따라 자연 갯벌에 자생하는 갖가지 염생식물 군락지를 관찰할 수 있다. 함초(퉁퉁마디), 나문재, 칠면초, 해홍나물 군락과 함께 오염된 습지에서는 자랄 수 없는 띠(피비)가 물결치는 것도 볼 수 있다. 염생식물(鹽生植物)은 소금기가 많은 땅에서 자라는 식물을 총칭한다.

증도는 1976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증도 앞바다에서 중국 송·원나라 시대 유물이 무더기로 발견된 것. 도자기와 동전 등 모두 2만3천여 점의 유물을 건져올렸다.

### 드라마 〈고맙습니다〉 촬영지 화도와 노두길로 연결

증도 북서쪽 방축리 가는 해안일주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이를 알리는 기념비를 만나볼 수 있다. 기념비가 있는 일대는 증도에서 일몰이 아름다운 곳으로도 꼽힌다. 호롱섬, 도덕도, 대단도 등 크고 작은 섬들이 어우러진 낙조가 운치 있다. 기암절벽을 따라 펼쳐진 도로는 드라이브 코스로 손색이 없다.

화도도 가볼 만하다. 장혁과 공효진이 출연했던 드라마 〈고맙습니다〉 촬영지로 입소문 나면서 유명해졌다. 증도와 화도는 노두길로 연결돼 있는데 노두는 갯벌 위에 돌을 놓아 건너다니던 징검다리다. 물이 차면 사라지고 물이 빠지면 모습을 드러낸다. 섬은 작아서 승용차로 30분이면 넉끈히 돌아볼 수 있다. 자전거를 타고 여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길이 평탄해 그다지 힘들지 않다. G

글과 사진 · 최갑수 (시인 · 여행작가)

# 말뚝처럼 우두커니 서서 튼튼한 하체 만들기

하체가 부실하면 인생의 활력을 잃게 된다. 하루 종일 우리 몸을 떠받치고 열심히 일하는 신체기관인 다리를 소홀히 하면 몸 전체의 건강을 잃게 된다. 다리가 불편해 운동을 적게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질병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다. 따라서 건강생활을 유지하고 싶다면 하체의 건강을 먼저 유지해야 한다.

또 다양한 스포츠의 기본이 튼튼한 하체이기도 하다. 모든 운동의 기초가 달리기이듯 강한 다리는 스포츠와 레저활동을 즐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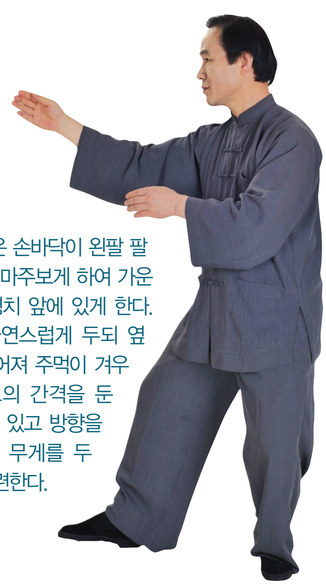
태극권의 기본 움직임이 하체를 산같이 단단하게 하고, 상체를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임은 여러 차례 강조한 바와 같다. 매일 몇 분씩만이라도 사무실이나 거실에서 간단한 동작 몇 가지를 따라해 보자. 하루가 다르게 강해지는 하체를 경험할 것이다. 또 남성의 경우, 정력이 강화되어 일상도 활력과 자신감이 넘치게 바뀔 수 있다. G

## 말뚝처럼 서서 다리와 마음을 튼튼히

**말뚝처럼 우두커니 서 있는 동작을 통해 하체를 단련하고 마음을 수련한다. 단순하지만 엄청나게 큰 효과를 갖고 있어, 2분을 기본으로 수련하고 나면 다리가 뻐근해져 걷기 힘들 정도가 된다. 발을 굽히고 그 굽힌 발에 체중을 온전히 싣는 것이 중요하다.**



1 오른발은 발끝을 오른쪽을 향하도록 딛고 무릎을 구부린다. 왼발은 발끝이 똑바로 앞을 향하도록 한다. 왼손은 손목이 어깨높이가 되도록 하고, 손바닥은 오른쪽을 향한다.



2 오른손은 손바닥이 왼팔 팔꿈치 아래를 마주보게 하여 가운데 손끝이 명치 앞에 있게 한다. 팔꿈치는 자연스럽게 두되 옆구리에서 떨어져 주먹이 겨우 드나들 정도의 간격을 둔다. 2분간 서 있고 방향을 바꿔 왼발에 무게를 두고 2분간 수련한다.

## 다리의 큰 관절 3곳을 모두 시원하게

**달리기를 할 때, 격한 운동을 하고 났을 때, 흔히 학교에서 다리를 풀어 주며 하던 동작들을 연상하면 된다. 무릎 관절을 중심으로 하되, 고관절과 발목관절도 시원하게 풀어 주는 효과가 있는 동작들을 따라해 보자. 모든 운동의 정리운동으로 효과가 있고, 부상 방지 또한 가능하다.**



1 무릎을 굽히고 양 손바닥을 무릎에 댄 뒤, 양 무릎을 왼쪽으로 원을 그리면서 세 번 돌리고 다시 오른쪽으로 세 번 돌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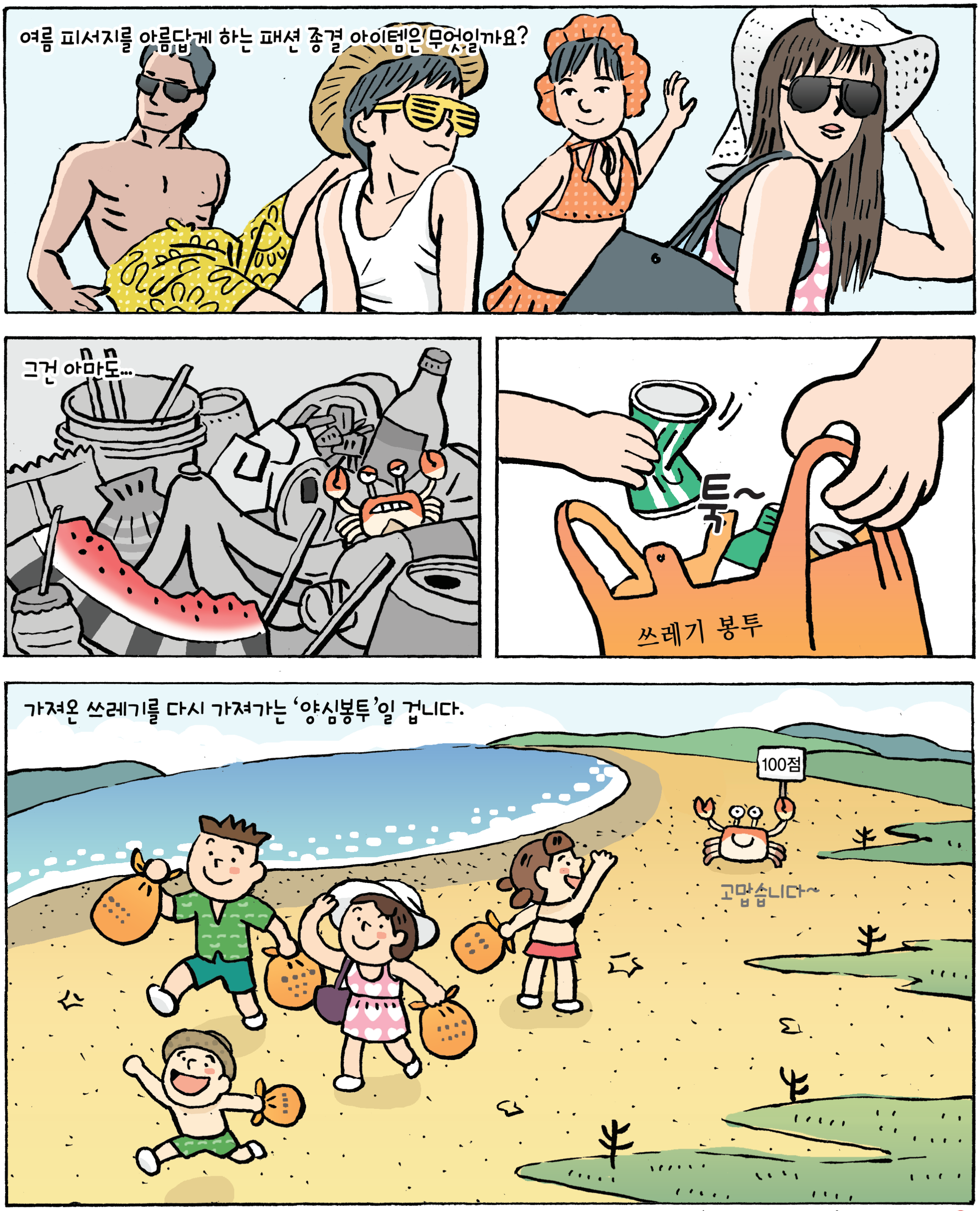
2 앞의 동작에 이어 양 무릎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벌리며 세 번 돌리고 다시 안쪽으로 모으듯이 세 번 돌린다. 동작을 모두 끝내면 양 손바닥으로 밑에서부터 위로 종아리 무릎 대퇴부 등의 부위를 가볍게 두드려 주며 일어선다.



**자료 및 사진** 〈30분 태극권〉 동아E&D

# 피서지 패션 종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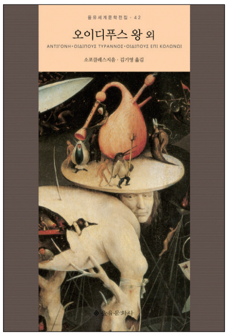
구성 | 권우영
그림 | 안종만




당신의 작은 실천이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 〈오이디푸스왕 외〉

# ‘운명’ 속에 빛나는 그리스 합리주의




소포클레스 지음
을유문화사 펴냄·1만2천원

소포클레스의 비극이 새로 번역되어 을유문화사에서 나왔다. 대학시절 읽고 상당히 충격 받고 깊이 고민했던 추억이 떠올라 진지하게 다시 읽어 보았다.

이번에 나온 김기영의 번역본에는 세 편의 비극이 실렸다. 제목은 〈오이디푸스왕 외〉로 되어 있는데, 〈안티고네〉 〈오이디푸스왕〉 〈콜로노스의 오이디푸스〉 순으로 실렸다. 발표 순으로 편집한 모양인데, 각기 독립된 작품이면서도 연관성이 있는지라, 〈오이디푸스왕〉을 먼저 읽고 〈안티고네〉를 맨 마지막에 읽어야 이해가 잘된다.

〈오이디푸스왕〉의 내용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 아이가 아비를 죽이고 어미를 취할 거라는 끔찍한 신탁(神託)이 있었다. 지독한 운명의 덫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이 있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고 말할 수 있으리라. 그런데 결과는? 신(神)의 뜻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는 없다.

이 점에 방점을 두고 이 작품을 읽으면 인간의 비극성이 도드라진다. 우리에게는 운명이 있고, 이에 대적해 보아야 소용없다는 말만큼이나 비극적인 게 어디 있겠는가. 분명히 그런 면도 있을 터다. 그러나 오이디푸스의 말과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오이디푸스는 자신의 출생에 얽힌 비밀과 성장과정에 대해 집요하게 객관적 진실을 추구한다. 극(劇)의 여러 곳에서 그런 오이디푸스를 제지하는 장면이 나온다. 어머니이자 아내인 이오카스테가 그러했고, 어린 그를 죽이는 대신 살렸던 목자가 그랬다. 그것이 설혹 자신을 파멸시키더라도 진실을 알아내겠다는 정신은 위대하다.

옮긴이가 이를 일러 “그리스 합리주의 정신을 구현한다”고 평가한 이유이기도 하다. 더욱이 오이디푸스는 모든 것이 까발려지자 “고의로 한 일이 아니니 죄 없다” 하지 않고,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책임을 지기 위해 두 눈을 찔러 멀게 한다. 번역자의 지적대로 이 때 비로소 오이디푸스는 “가혹한 운명의 희생자에서 벗어나,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위대한 영웅”이 된다.

〈안티고네〉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안티고네〉는 왕위 계승의 기회를 놓친 폴뤼네이케스가 연합군을 데리고 테바이를 침공했다 실패한 내용을 배경으로 한다. 이 전투에서 형에 맞선 에테오클레스도 전사한다. 오이디푸스를 이어 왕위에 오른 크레온은 에테오클레스의 장례는 치러 주면서도 반역자인 폴뤼네이케스의 매장을 금하는 포고령을 내린다.

두 사람의 누이인 안티고네가 왕의 명령을 어기고 큰오라버니를 땅에 묻으려다가 적발된다. 기실 크레온은 안티고네의 외삼촌이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될 사이였다. 그럼에도 자신의 명령을 어긴 안티고네에게 형벌을 가한다. 이 비극은 그러니까 혈족의 관습과 국가의 법이 충돌하는 장면을 드라마틱하게 그려 내고 있는 셈이다.

**〈오이디푸스왕〉은 맨 처음, 〈안티고네〉는 마지막에 읽어야**

흥미로운 것은 코러스들이 부르는 노래에 “고집 센 자기 성깔이 그대를 파멸시켰구나”라는 구절이 있다는 점이다. 당연히 안티고네에게 하는 말이다. 〈오이디푸스 왕〉에서는 “무릇 적절함을 지키는 게 훌륭한 일이오”라는 구절이 나온다.

안티고네의 저항은 크레온 집안의 몰락을 가져온다. 그러니 오직 안티고네가 잘못했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럼에도 그리스 비극은 우리에게 중용의 가치를 역설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도록 이끈다. 어디에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잡아 가는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던가. 이런 의미로 〈안티고네〉를 읽는 것도 괜찮을 듯싶다.

〈콜로노스의 오이디푸스〉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내용이 나온다. 아테나이가 이방인인 오이디푸스의 망명을 받아들여 주는 대목이 그것이다. 쉽지 않은 일이다. 이방인인 데다 저주받은 사람 아니던가. 그럼에도 다양성과 이질성을 존중하는 관용의 도시 아테나이는 그를 받아들였다.

그 대가로 아테나이는 복을 받는다. 오이디푸스가 아테나이를 이롭게 할 비밀을 테세우스에게 일러주고 신의 부름을 받기 때문이다. 다문화사회로 가는 우리에게 이 일화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이래서 고전은 늘 새로, 다시 읽어 보아야 하는 것이다. G

글·이권우 (도서평론가)

# 이참에 잠깐만…

글과 그림 · 최영순




암을 절망이나 고통으로 받아들였다면 절대 이겨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왔으니 "이쯤 해서 네 몸과 가족을 한 번 돌보렴" 하고 암이 내게 선물을 줬다고 생각하자 병은 물론 삶 전체가 건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암이 고맙습니다.

– 홍헌표 조선일보 기자의 신문 연재 에세이 중에서




**공연** **창과 칼의 노래** 노원문화예술회관 전통창작무예극 〈창과 칼의 노래〉는 조선조 정조대왕 때 왕명에 의해 편찬된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에 전해 내려오는 전통무예 '십팔기(十八技)'를 바탕으로 한 우리 춤, 우리 음악이 한데 어우러지는 한국 최초의 전통 무예극이다. 등패, 쌍검, 월도, 본국검, 예도, 편곤, 당파, 기창, 쌍수도, 곤봉 등 18가지의 병장기와 화려한 오방색 대 깃발 등으로 조선 무사들의 역동적인 몸짓을 표현한다. 한민족의 무혼(武魂)을 느껴볼 수 있는 공연이다.

**일시** 8월 9~10일 **장소** 노원문화예술회관 대극장 **관람료** 1만원 **문의** 02-951-3355



**축제** **제16회 부산바다축제** 해운대 해수욕장 등 6개 해수욕장 및 요트 경기장에서 개최되는 부산바다축제는 부산국제영화제, 불꽃축제와 함께 부산을 대표하는 3대 축제 중 하나다. 축제에는 개막행사, 국제행사, 공연행사, 체험행사, 해양스포츠행사 등 6종 41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개막행사로는 2PM, 백지영, JK김동욱 등 인기가수 축하공연과 상해시 기예단 공연, 축하불꽃쇼 등이 펼쳐진다. '최정원과 함께하는 뮤지컬 갈라콘서트'와 같은 문화콘텐츠와 '슈퍼모델 비치웨어 패션쇼' 등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한다.

**일시** 8월 9일까지 **장소** 해운대해수욕장 등 6개 해수욕장, 요트경기장 **문의** 051-888-3395



**예술제** **서울프린지페스티벌** 독립예술축제 서울 프린지 페스티벌은 홍대 앞 인디문화를 응원하고 홍대 앞에서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소개한다. 2백50여 개인 및 단체 예술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연극, 음악, 무용, 퍼포먼스, 마임, 다원 예술, 미술, 복합장르와 같은 작품들을 선보인다. 소극장과 라이브 클럽, 갤러리, 카페, 복합문화공간 등도 마련한다. 77팀의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야외거리예술제는 홍대 앞 '걷고 싶은 거리'를 중심으로 펼쳐진다.

**일시** 8월 11~27일 **장소** 서울 홍대 앞 창작공간 **문의** 02-325-8150


한국공연예술센터

마로니에여름축제 2주간 다양한 형태의 공연을 만나볼 수 있다.

# 대학로는 야외축제 중 힙합 등 35편 공연 펼쳐

## '마로니에여름축제'

한국공연예술센터는 오는 8월 14일까지 대학로 예술극장 대·소극장과 마로니에공원, 낙산공원 등 대학로 일대 야외공간을 다채롭게 꾸며 '2011 마로니에여름축제'를 개최한다.

마로니에여름축제는 연극, 무용을 넘어 다양한 형태의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다 장르, 융합 공연예술축제'이다. 2주간의 축제 기간 동안 관객들은 힙합댄스, VJing/DJing 블록파티, 인디밴드와 재즈밴드 콘서트, 야외 영화를 비롯해 플라멩코, 탭댄스, 국악뮤지컬 등 총 35편(극장공연 18편, 야외공연 16편, 영화 1편)의 다양한 공연들을 만나볼 수 있다.

인디밴드 '라이너스의 담요'의 공연과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오디오앤인터랙티브 미디어 랩'에서 제작한 'ADC Project 〈Don't Imagine〉', 월드뮤직앙상블 'We Project 〈Dream Passion Love〉' 등이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야외무대에서는 보다 대중적인 프로그램들을 선보인다. 비보이 댄스팀들이 경쟁을 벌이고, DJ들이 도심형 야외 밤샘 블록파티(Block Party)의 난장을 마련한다. 8월 12일과 13일 양일에는 낙산공원 야외무대에서 여름밤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영화 〈특별시 사람들〉을 무료 상영한다. G

**일시** 8월 14일까지 **장소** 마로니에공원·낙산공원 야외무대,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소극장 **관람료** 2만원 **문의** 02-3668-0055

# 여름밤 잔디밭에 누워 신작 영화를 즐긴다

## '태백 쿨시네마 페스티벌'

태백 쿨시네마 페스티벌은 워터페스티벌이 곁들여진 이색 여름밤 축제다. 이번 축제는 태백 오투리조트 스키하우스 앞, 태백시 중앙로, 태백시 소도동에 위치한 청소년 수련관에서 야외영화상영, 워터페스티벌, 산콕영화학교, 문화공연, 홍보전시존, 체험존 등이 진행된다.

주요 행사인 야외영화상영은 밤 하늘 아래 푸른 잔디밭에서 피크닉하는 기분으로 영화 감상을 즐길 수 있다. 류승범·가수 윤하 주연의 〈수상한 고객들〉을 비롯해 지난 6월 개봉과 동시에 인기를 모았던 〈엑스맨 : 퍼스트 클래스〉, 스릴러 〈모비딕〉, 엄정화·김해숙·유해진이 열연한 〈마마〉가 상영된다.

쿨시네마 페스티벌 중 하나인 태백워터페스티벌은 일정그룹 사전 신청을 받아 단체별 물총싸움대회도 연다. 태백 중앙로의 차량을 통제하고, 진행요원이 배치된 상태에서 진행한다. 팀 대항 물총싸움대회를 마친 후엔 즉석 참여한 일반 참가자까지 어울려 참가자 전원이 물놀이 '난장'을 벌인다.

전시홍보관에서는 태백 고생대자연사박물관 홍보물 전시 및 탁본, 화석만들기 체험이 기다린다. 특수분장, 영화의상 체험, 스마트TV 영화 체험, 영화주인공포토존 버튼 만들기 등은 시네마 체험존에서 즐길 수 있다. G

글 · 김선영 인턴기자

**일시** 8월 7일까지 **장소** 오투리조트 스키하우스, 태백시 중앙로, 태백청소년수련관 **입장료** 3시 전 입장 무료, 3시 이후 성인 2천원 소인 1천원 **문의** 033-550-2085


태백 쿨시네마 페스티벌

태백 쿨시네마 페스티벌의 하이라이트는 야외영화상영이다. 올해는 오투리조트에서 펼쳐진다.

## 공연소식

| 공연 | 장소 | 날짜 | 문의 |
|---|---|---|---|
| **뮤지컬** | | | |
| 늑대의 유혹 | 코엑스아티움 현대아트홀 | 10월 30일까지 | 02-738-8289 |
| 잭더리퍼 | 충무아트홀 대극장 | 8월 14일까지 | 02-764-7858~9 |
| 코요테 어글리 | 한전아트센터 | 8월 15일까지 | 1577-1876 |
| 구름빵 | 유니버설아트센터 | 8월 26일까지 | 02-762-0810 |
| **연극** | | | |
| 웃음의 대학 | 동숭아트센터 소극장 | 8월 21일까지 | 02-766-6007 |
| 코믹극 뉴보잉보잉 | 윤당아트홀 | 8월 31일까지 | 02-741-5978 |
| 청춘, 18대1 | 신촌 The STAGE | 8월 28일까지 | 02-744-4011 |
|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 까망소극장 | 8월 28일까지 | 02-3672-8868 |
| **콘서트** | | | |
| 전유성의 폭소클래식 얌모얌모 콘서트 | 창조아트센터 | 8월 5일부터 | 02-747-7001 |
| 삼복더위 이기는 2011 좋아서 하는 밴드 '보신 음악회' | 충정로 가야극장 | 8월 13일 | 1544-1555 |
| **클래식** | | | |
| 썸머클래식 |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 8월 12~13일 | 02-399-1114~6 |
| 다니엘 바렌보임 평화 콘서트 | 임진각 평화누리 야외 공연장 | 8월 15일 | 1577-5266 |
| **오페라 / 무용** | | | |
| 조지발란신의 호두까기인형 내한공연 | 부산 KBS홀 | 8월 12~14일 | 1544-2862 |

### 7월 다섯째 가온차트 가요 인기순위 7월 17일~7월 23일

| | 곡명 | 가수 |
|---|---|---|
| 1 | Good-bye Baby | 미쓰에이 |
| 2 | Roly-Poly | 티아라 |
| 3 | Hate You | 2NE1 |
| 4 | 바람났어(Feat. 박봄) | GG |
| 5 | Bubble Pop! | 현아 |
| 6 | 남자니까 웃는거야 | 창민&이현(HOMME) |
| 7 | 압구정 날라리 | 처진 달팽이 |
| 8 | 모나리자 | 엠블렉 |
| 9 | 오늘도 사랑해 | 백지영 |
| 10 | 내가 제일 잘나가 | 2NE1 |

# 다그치기 앞서 마주 앉아라

역사 이래로 기성세대는 '신세대 걱정'을 의무로 삼았다. 현재를 살아가는 기성세대 역시 신세대에 대한 염려로 어깨가 무겁다. 하지만 신세대에게 충고나 대안 제시를 해보고 싶어도 여의치 않다는 의견들이 많다.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느낀 것은 신세대에게 한 수 가르치기에 앞서 그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이다. 내가 다 지나쳐온 길이고, 내가 살아보니 이렇더라고 말하기에는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고 있다. 습득하기 힘든 기기와 다양한 커뮤니티로 무장한 신세대들과 소통하려면 준비가 필요하다.

강의실 풍경부터 달라졌다. 10여 년 전 뒤늦게 대학원에 들어갔을 때만 해도 수업시간에 노트북을 사용하는 일은 드물었다. 이젠 강의실에서 학생들이 노트북을 켜놓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다. 수업자료를 프린트하지 않고 모니터에서 직접 보기 위해서이다. 강의를 하는 내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눈짓이나 표정을 봐야 강의가 잘 전달되는지 가늠할 수 있는데, 눈을 내리깔고 모니터를 보고 있으면 여간 답답한 게 아니다.

시선이 서로 어긋나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는다. 불과 몇 년 전의 떠들썩했던 사건, 누구나 알 만한 유명인사도 잘 모른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몇 년 전까지 중고등학생이었으니 어른들의 세계에까지 관심을 기울일 수는 없었을 것이다.

지난 학기 강의시간에 단편소설을 분석하는데 소설 속에 '철새는 날아가고'라는 팝송이 등장했다. 세상에나, 이 노래를 아는 학생이 한 명도 없었다. "어떻게 이렇게 유명한 노래를 모르냐"며 답답해하는데 누군가의 컴퓨터에서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그러자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처럼 요즘 학생들은 잘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 수업시간에 즉각 검색을 해서 의문점을 해결한다. 낯선 이름은 곧바로 포털에 입력하고, 인물정보가 모니터에 떠야 유명인으로 인정한다. 또한 지금 TV나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는 사건과 사람들에게 지대한 관심이 있다.

*변화가 빠른 시대를 즐기며 살아가는 신세대를 보는 기성세대의 노파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신세대들에게 충고하기 앞서 일단 마주앉아 이들의 현주소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소통 과정 없이 기성세대의 경험을 우겨넣는 것으로는 이어폰으로 외부의 소리를 차단하고 사는 이들의 귀를 뚫기 힘들다.*




그들이 기성세대와 확연히 다른 점은 글로벌 사고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을 통해 관심 있는 분야나 국가에 대해 전문가 이상의 지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의 단편소설 소재도 20여 년 전 우리 세대가 대학 다닐 때와 확연하게 다르다. 1980년대 정치상황 속에서 거대 담론을 주로 선택했던 우리 세대와 달리 요즘 학생들은 개인적인 문제를 주로 다룬다. 또한 치밀한 묘사보다는 스토리라인이 강한 작품을 선호하는 편이다.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최강 내러티브'를 발표하라고 했더니 반 정도 되는 학생들이 일본만화와 일본드라마를 선택했다. 의미를 강조한 것보다는 아기자기하고 편안한 작품을 좋아한다는 의미이다.

발전이 빠른 만큼 세대 간의 격차도 큰 게 우리 사회의 특징이다. 순식간에 관심사와 선호도가 달라지는 세상이다. 자유분방한 신세대를 보는 기성세대의 노파심이 커지고 있다. 그들에게 충고든 대안 제시든 하려면 일단 신세대의 현주소를 아는 게 중요하다. 소통하지 않고 내 경험을 우겨넣는 것으로는 이어폰으로 소리를 차단하고 사는 젊은 세대의 귀를 뚫기 힘들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G

글 · 이근미 (소설가)



환경부
greencard
그린카드란?
신용카드의 기능과 함께, 에너지 절약, 녹색제품 구매 등 녹색생활 실천 시
정부 · 지자체 · 기업 등에서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린을
꺼내세요
당신의 녹색실천,
그린카드가 기억합니다
그린카드는 녹색생활 실천 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정에서 전기,
수도, 가스
절약 시 포인트 지급
녹색소비
환경마크 ·
탄소라벨링제품
구매 시 포인트 지급
공공부문할인
휴양림 무료입장,
국립공원할인,
공연할인 등
신용카드의 기능
대중교통 이용특화
100~200
포인트 적립
그린카드 신청
'11년 7월 중순부터 그린카드 홈페이지(www.greencard.or.kr), BC카드(우리은행, 하나SK카드, NH농협, IBK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KB국민카드 등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에코마일리지카드도 동일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찾아라 공정사회 EVENT

대한민국 정책포털 korea.kr 공감코리아

# 공정이를 찾아라!

공정사회 홈페이지 곳곳에 숨어있는 우리 공정이를 찾아 주세요
'매일매일 자주자주' 참여하여 공정이를 많이 찾을수록
선물이 팡팡! 여러분의 공정 지식이 쑥쑥~




**이벤트 기간** 2011년 8월 17일까지

**당첨자발표** 2011년 8월19일

**참여방법** 공정사회 홈페이지 http://fair.korea.kr에 접속
공정이를 많이 찾을수록 경품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경품**

| 경품 | 인원 |
| --- | --- |
| 로봇 청소기 | 1명 |
| 관광상품권 20만원권 | 3명 |
| 문화상품권 1만원권 | 100명 |
| 카페라떼 | 1,000명 |

---

## 공정사회 특집

# 릴레이 퀴즈 이벤트

| 경품 | 인원 |
| --- | --- |
| 외장하드 [320G] | 5명 |
| 문화상품권 [3만원] | 20명 |
| 온누리상품권 [3만원] | 10명 |

**참여방법** 공감코리아(http://www.korea.kr) 접속 > 정책플러스 > 정책퀴즈
※ 매주 금요일마다 퀴즈이벤트가 업데이트 됩니다.

지금 응모하세요! korea.kr